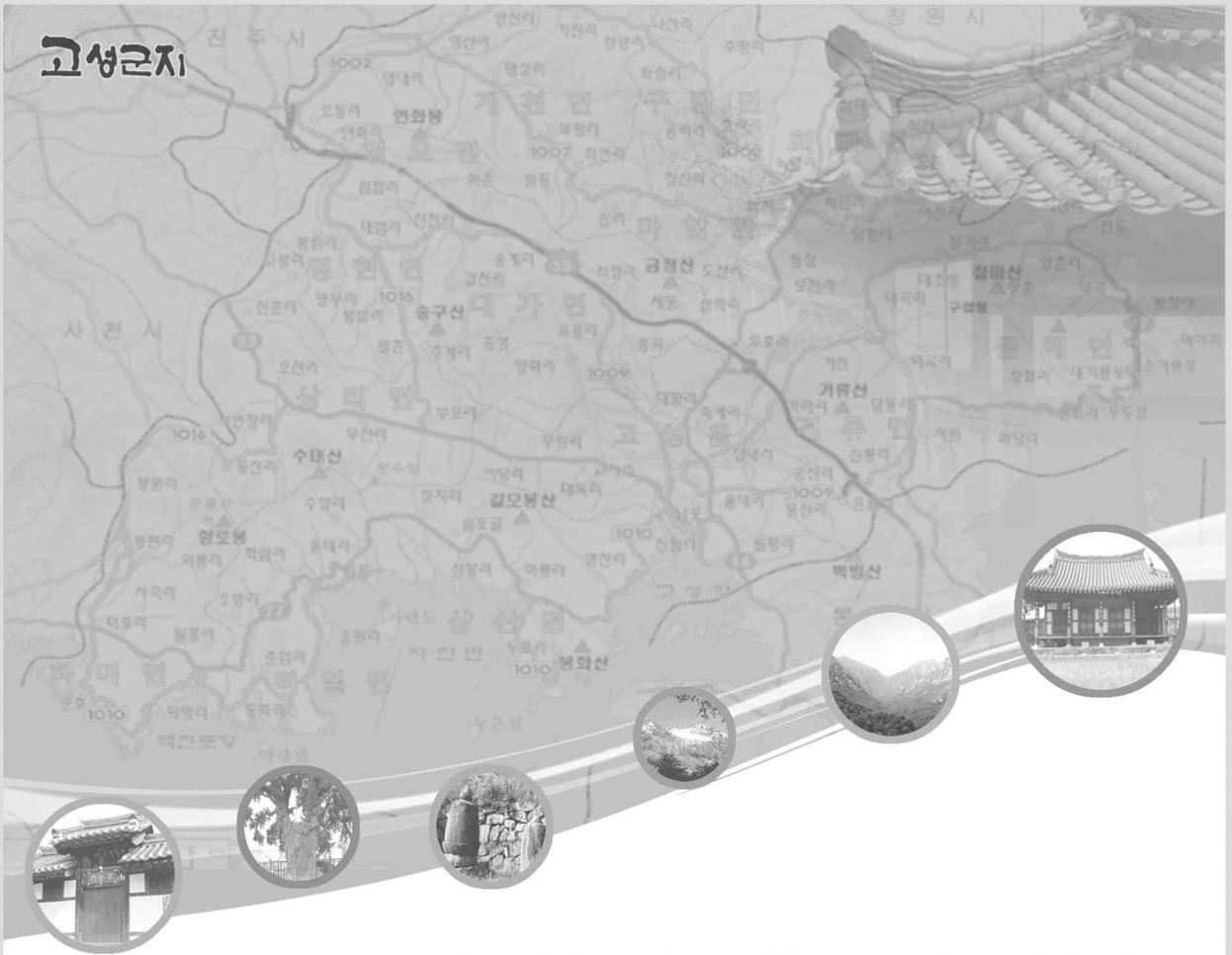


# 고성군지



## 제 11편 문화 · 예술 · 언론 · 체육 · 민속 · 마을사

문화예술단체 | 문학 | 언론 | 체육 | 고성문화원





## 제 11편 문화·예술·언론·체육·민속·마을사

### 제 1장 고성의 문화예술단체

#### 제 1절 (사) 한국예총 고성지회

##### 1) 한국예총 고성지회의 설립

(사)한국예술문화단체 고성지회(약칭: 예총고성지회)는 2006년 5월에 설립을 했으니 타 도시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이다. 그것은 고성이 처한 문화예술의 토양이 척박한 탓이기도 하려니와 무엇보다도 예총고성지회의 발족에 필요한, 고성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예총고성지회의 설립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면, 8·15 해방 후에서부터 고성의 예술부흥의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6·25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에는 김재운(一愚 金載潤 작고)이 연출을 맡아 대본을 쓴 「견우와 직녀」 「단종애사」 등의 연극이 공연되었고 같은 시기 문학 동호인들이 모여 동인지를 엮어내기도 했으나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일시적인 활동에 머물렀다. 역량 있는 인재들이 출향을 한 탓이었다.

문화예술의 불모지나 진배없었던 고성에서 그나마 문화예술의 싹을 키우게 된 것은 1959년 광복예술제부터이다. 예술제를 개최함에 따라 고성의 문화예술인들이 결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1963년 제3회 행사 때부터는 ‘가야문화제’ 로 개칭을 하여 행사를 하였다. 1971년 제8회 행사를 끝으로 예산관계 때문에 중단이 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1983년에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문화제 행사를 다시 개최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고성의 문화제 행사를 주관해 오던 시조시인 김춘량(김태근·작고)이 중심이 되어 2006년 5월, 고성문인협회·고성연예인협회·고성미술협회 등 3개의 지부가 결성됨으로써 (사)한국예총에 가입을 계기로 (사)한국예총 고성지회가 설립을 하게 된 것이다.

##### 2) 한국예총 고성지회의 목적 및 소재지

한국예총 고성지회는 예술문화의 교류촉진과 예술인 권익신장을 위한 행정지원 및 정책 연구 등 각종문화 사업을 시행하며, 군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만들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로 자리하게 되었다.

고성예총은 고성군청 지하실에 터를 잡아 업무를 시작했다. 그 후 의회사무실로 운용했

던 남 별관건물 1층 건물로 이전하여 2014년 12월 11일까지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2014년 12월 12일 고성박물관으로 이전하여 예술행정 및 예술문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3) 고성예술의 지리적 여건

인류문명의 주체가 되는 것은 예술문화이다.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이끌어 가는 것은 그 세대의 사람들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예술을 창조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힘에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리적 여건과 주위의 인문적 환경을 받아 가면서 예술로부터 인간발달이 이루어져 특성 있는 기품으로 형성됐다고 하겠다.

고성은 지리상으로 한반도의 남부지역인 경남의 남부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큰 강이나 높은 산이 없으며 평지는 고성읍과 회화면 배둔 부근에 비교적 넓게 발달되어 있다.

남동부와 남서부는 바다에 임하고, 서 북부는 육지인 반도지대로 해양성 기후대에 속한다.

고성은 지리적으로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다.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하며,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인다.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우리나라 기후의 범위 안에 들어가며, 태풍철에 태풍이 들어오는 입구에 해당되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 4) 고성예술문화 현 주소

고성은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할 수 있어도 예술문화는 지역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소외되는 변방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고성사회가 농경중심이고 관료 지향적이다 보니 예술문화가 꽃피우지 못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지역예술인들이 예술문화를 등한시 여기는 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체육인들을 위한 전용체육시설이 곳곳에 들어섰어도 예술인들을 위한 전용예술회관 공간 하나 제공받지 못했고, 그나마 예술문화에 종사하는 예술문화인 자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업 예술문화인으로 살아가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래서 그 성과를 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지역 예술문화인들이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묵묵히 열의를 바쳐 창작에 임해온 것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그것은 지역 예술문화에 대한 소중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고성예총이 설립되어 예술행정을 주도하고 예술문화단체를 총괄하는 책무가 주어

진 것이라면 고성군내의 모든 예술행사 및 활동도 예총고성지회가 주관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 5) 고성의 문화예술의 태동

### 가) 문학

고성의 문화예술의 태동은 1949년 이문형, 선정주, 한남재, 오종규, 김동건 등이 ‘고성 학생시우회’를 조직하고 「닭울음」을 1950년 말 창간하면서 부터이고 1951년 김한조, 이상원, 구관옥, 남정민 등이 합세하며 「닭울음」 제2집과 제3집을 발간하였고, 한 해를 건너 뛴 1953년 「닭울음」(일명 고성학생 시우회)의 동인들이 다시 모여 「小伽倻」란 이름으로 새 동인회를 결성하였으며 제3집까지 발간하였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동인지의 발간이 중단되었다.

고성의 문인으로서 1961년 서별은 처녀시집 「하늘색 일요일」을 발간하였으며 1963년 「시조문학」에 「연가」「가을은」이 추천되고 1964년 「관동사」가 천료 되어 등단을 하게 되었다.

1968년 김춘량도 역시 「시조문학」지에 「환상곡 제7번」으로 추천이 완료되고 1970년 선정주 또한 「시조문학」지에 「꽃」으로 추천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성의 문화예술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나) 연극

6·25한국동란이 끝난 직후인 1953년 고성에서 연극단이 구성되어 연극공연을 했다. 60년이 훨씬 지난 일이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2015년)보다도 더 활발하게 공연예술이 꽃핀 시기다. 예총고성지회에도 하루빨리 연극협회가 발족되어 그 찬란했던 연극의 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 당시 2편의 연극이 공연되었다. 단종애사와 견우와 직녀다. 2편 다 김재운이 각본 연출 총감독을 맡아서 했다.

0 공연명 : 단종애사(端宗哀史)

\* 각 본 : 김재운

▶ 각본내용 : 문종 고명 부터 노산군(단종) 영월 유배 까지

\* 연 출 : 김재운

\* 감 독 : 권동조

\* 공연년도 : 1956년 여름

\* 공연회수 : • 고성 대동극장 2회 • 통영 통영극장 2회

\* 출연진 :

배역	출연자	비고
문종	김재윤	주류도매업(재사)
단종	금성은	여고3
수양대군	권동조	옥미사진관 운영
김종서	강호성	운수업(음악인)
정인지	조명석	자영업
신숙주	김현근	은행원(상업은행)
한명회	김춘량	자영업(시인)
성삼문	김종대	자영업
박팽년	구관옥	동산의원근무
하위지	하진도	농고3
이개	문성근	대학1
유성원	김재수	토목업
유응부	이??	일홍양복점재단사
성승	김재수	토목업
김질	남정민	시인
권람	권일열	사진업
양정	김용기	농고3
김연	구관옥	내시
내시	김춘량	노산군(단종)영월 유배시 호위
김승규	김문삼	김종서 아들 농고3
야화	?	선일나사 재봉사
궁녀 1	?	가사
궁녀 2	?	가사

\* 연극 주요장면

- ▶ 문종고명 단종 왕위 계승
- ▶ 수양대군 야심횡포 발발
  - 어전회의시 어전에서 내시(김연)살해
  - 김종서 사가에 야간방문하여 김종서와 아들(승규)살해
  - 야간 어전회의 소집하여 살생부에 의거 대신 척살
  - 왕위찬탈 단종폐위
- ▶ 단종 복위 모의(성삼문 가 : 사육신 김질 성승)
- ▶ 김질 고변
- ▶ 사육신 친국
- ▶ 노산군(단종) 영월 유배길(가뭄 끝에 비가 왔다)

- 노산군 : 오늘이 몇일이요?
- 내시 : 올해년 윤유월 스무이틀이옵나이다
- 내시 : 마마 비가 내리는데 비를 피하시옵소서
- 노산군 : 농군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요 그냥 맞고 가려오

0 공연명 : 견우와 직녀

- \* 기획·각본·연출·총감독 : 김재윤
- \* 공연 때와 장소 : 1953년 여름. 6·25 때 불타 없어진 고성군청 공터(가설무대 )
- \* 음악: 작사 김재윤, 작곡 이용준(진주여고 음악교사)
- \* 무대장치: 김재윤
- \* 무용지도: 마산 무용학원 원장
- \* 출연진: 고성여중 3학년 학생 외 2학년 학생 약간 명(총30여명 출연)
- \* 주요배역:

배역	출연자	참고
견우	이효정	
직녀	김경자	팔선녀 중
옥황상제	정귀녀	
동해용왕	강문자	
햇님	남명애	
달님	강성녀	
팔선녀	김경자(직녀)김정자 김영희 탁정숙 유덕순 김정재 권경애 김옥소	
옥황상제시녀	박옥선 이은엽	
직녀아들	김영주	
직녀딸	박춘재	
사슴	전봉숙	
해설	최원숙	무대인사

- \* 도움주신 분 : 고성여중 교장 오덕원, 국어교사 최을림, 3학년담임 김호수, 음악교사 홍성희 외
- \* 공연일수 : 당시 변변한 문화행사나 오락이 없던 시절, 고성 군민 대다수가 공연관람으로 장기간 공연.
- \* 연극 주요 내용
  - ▶ 대사와 춤과 노래가 함께 어우러진 ‘견우와 직녀’ 는 당시에는 보기 드문 가극
  - ▶ ‘뮤지컬’ 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갈 가극은 당시에 고성군민을 크게 감동시킨 공연

- ▶ 고성여중 학부형이었던 일우 김재운 씨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기획·각본·연출·총감독·무대장치까지 1인5역을 맡아 고성의 문화예술을 선도했던 전설적인 인물이 있어 가능  
\*견우와 직녀 공연 후 기념사진



1952년 9월 고성여중생들의 가극 <견우와 직녀 공연>을 마치고(오른쪽 맨 끝에 서 있는 분이 각본·연출을 맡은 김재운 씨)

## 6) 고성예총 운영

### ① 고성예총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고성지역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2. 회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을 옹호하는 사업
3.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간의 예술문화 정보 교류 사업
5. 지역 예술문화의 발굴 소개 및 보존 사업
6. 기타 본 지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 사업

### ② 전 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지회 운영규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7) 고성예총 구성

고성예총은 군민들이 예술문화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친근해질 수 있도록 참여와 공유의 기회를 확장하고, 재능 있는 꿈나무들이 탄실하게 성장하며 사회에 공헌하고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예술, 문화인들을 육성하고 동기부여를 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2006년 5월 고성문인협회, 고성연예예술인협회, 고성미술협회가 참여하는 지부가 설립되었고 2009년 3월 고성음악협회와 2011년 12월 고성국악협회가 인준 돼 5개 단체로 구성 되었다.

### ① 고성예총의 연혁

- 2006. 5. 설립 (고성문협, 고성연예협, 고성미협 3개 지부)
- 2006. 8. 23. (사)한국예총고성지부 인준(문협, 연예협, 미협)
- 2009. 3. 11. (사)한국음협 고성지부 인준(문협, 연예협, 미협, 음협 4개 지부)
- 2009. 9. 14. (사)한국예총 임시총회에서 각 지역의 ‘지부’가 ‘지회’로 명칭 변경  
건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득함에 따라 명칭변경 확정 됨.
- 2009. 10. (사)한국예총 고성지회로 승격
- 2011. 12. 7. (사)한국국악협회 고성지부 인준(문협, 연예협, 미협, 음협. 국협 5개 지부)

### ② (사)한국예총 고성지회 역대 임원 명단

#### 제 1대(2006. 8. 23 ~ 2009. 1. 29)

지 부 장 : 김태근(춘량)

부지부장 : 안한규(문협 2006. 8. 23~ 2007. 12. 31)

박장재(문협 2008. 1.1~ 2009. 1. 29)

박순금(정현)(연예협 2006. 8. 23~ 2008. 4. 30)

김갑환(성아)(연예협 2008. 5. 1~ 2009. 1. 29)

김영화 (미협 2006. 8. 23~ 2007. 1. 31)

조은희(미협 2007. 2. 1~ 2009. 1. 29)

감 사 : 김춘기, 정수경, 최금용

사무국장 : 이상태(2006. 8. 23~ 2007. 5. 31)

제민숙(2007. 6. 1~ 2009. 1. 29)

### 제 2대(2009. 1. 30~ 2011. 1. 29)

지 회 장 : 김태근(춘량)

부지회장 : 박장재(문협 2009. 1. 30~ 2009. 12. 31)

강홍우(문협 2010. 1. 1~ 2011. 1. 29)

김갑환(성아)(연예협 2009. 1. 30~ 2011. 1. 29)

조은희(미협 2009. 1. 30~ 2011. 1. 29)

김영선(음협 2009. 3. 11~ 2011. 1. 29)

감 사 : 김춘기, 황선균, 정홍수

사무국장 : 제민숙(2009. 1. 30~ 2011. 1. 29)

### 제 3대(2011. 1. 30~ 2013. 1. 29)

지 회 장 : 김태근(춘량)

부지회장 : 강홍우(문협 2011. 1. 30~ 2011. 12. 31)

정영도(문협 2012. 1. 1~ 2013. 1. 29)

김갑환(성아)(연예협 2011. 1. 30~ 2012. 5. 31)

남재현(연예협 2012. 6. 1~ 2013. 1. 29)

조은희(미협 2011. 1. 30~ 2013. 1. 29)

김영선(음협 2011. 1. 30~ 2013. 1. 29)

박기선(국협 2011. 12. 20~ 2013. 1. 29)

감 사 : 구관옥, 정홍수, 이용재

사무국장 : 제민숙(2011. 1. 30~ 2013. 1. 29)

### 제 4대(2013. 1. 30~ 2017. 2월 정기총회 시 까지)

지 회 장 : 정영도(2013. 1. 30~ 2017. 2월 정기총회 시 까지)

부지회장 : 강미혜(문협회장 대행 2013. 1. 30~ 2013. 12. 31)

백순금(문협 2014. 1. 1~ 2015. 12. 31)

남재현(연예협 2013. 1. 30~ 2016. 6. 30)

조은희(미협 2013. 1. 30~ 2017. 2월 총회 시 까지)

이성준(음협 2013. 1. 30~ 2015. 1. 10)

김영선(음협 2015. 1. 11~ 2017. 1. 30)

박기선(국협 2013. 1. 30~ 2015. 12. 20)

감 사 : 구관옥, 강홍우(2013. 1. 30~2015. 2. 27)

허종철, 천윤식(2015. 3. 1~ 2017. 2. 28)

사무국장 : 제민숙(2013. 1. 30~ )

## 제 2절 한국예총 고성지회의 문화예술 행사

### 1) 문화기행

(사)한국예총 고성지회의 소속단체 회원들의 국내유적지 탐방 및 문화기행을 통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견문을 넓히고 전국에 산재한 문학관, 기념관, 전시관 등을 관람함으로써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창작활동에 식견을 깊게 하고 영감을 받게 할 뿐더러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친목을 갖고져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 2) 송년예술인의 밤 행사

2007년부터 2009년까지(3개년 동안) 군 보조금으로 실시하여 오다가 군비지원이 끊어지고 2010년부터 2012년(3개년)까지는 경남문화재단의 지원금으로 운영해 오다가 경남문화재단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승격되면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회원들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지역민과 문화예술을 지원해 주신 분들을 모시고 송년예술인의 밤을 실시하면서 저변확대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오고 있다.

### 3) '고성예술지' 발간 사업

2009년도에 제1호 '고성예술지' 발간을 시작하여 (사)한국예총 고성지회 소속 각 지부의 한 해 활동내용과 고성군의 문화예술 행정 및 예술가의 창작 활동 소개를 하며 회원 상호간의 기량과 역량을 홍보함으로써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어 왔다. 고성예술지 발간에 따른 수입금의 확보는 지역의 뜻있는 재력가나 기업가의 도움을 받아 고성예술 제6호까지 발간되었다.

### 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 후원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주 5일 수업제를 맞이하여 매주 토요일 아동, 청소년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가족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 문화를 조성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사)한국예총 고성지회에서는 2013년에 사업을 신청하여 예총지회로서는 전국 최초로 사업을 지정 받아 운영 하였으며 2014년에 이어 2015년도에도 세 번째로 이 사업을 획득 운영하고 있다. 늘면서 배우는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며 어린이들의 숨은 끼와 재능을 계발하고 발휘케하여 놀라운 실력들을 향상 시켰으며, 어린이와 부모님들을 통한 문화예술 부분 관심과 여건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제 3절 문화예술단체

### 1. (사)한국문협 고성지부

#### 1) 고성문학지 발간

1989. 9. 고성문학 창간호를 발간하여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발표하는 지면을 확보하게 되어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왔으며 2014년까지 제30호를 출판하였다.

‘고성문학’은 매년 10월경 연간집으로 발간하여 왔고 고성군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금으로 발간하고 있다.

#### 2) 문학의 밤

지역의 열악한 문화여건에서 향토 예술인과 군민이 함께하는 ‘문학의 밤’을 개최함으로써 정서순화와 문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음.

이 문학의 밤은 매년 정례행사로 10월 말경에 군 보조금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

### 2. (사)한국미협 고성지부

#### 1) 고성미술협회 정기회원전

2003년 10월 고성미협 창립전(청소년 문화의 집)을 가진 이후 매년 정기적인(11월 말) 전시회를 실시하며 군 보조금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금으로 실시 해 오고 있다.

고성미술협회 회원들의 한 해 동안 작업한 작품들을 전시하며 군민들과 학생들에게 예술 감각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고성엔 올바른 전시장 하나 없는 열악한 조건속에서 창작열을 식히지 않고 정기회

원전을 가지는 것은 회원들의 대단한 창작의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고성지부

#### 1) 공통가요제

2012년 10월 제1회 공통가요제(구, 공설운동장)를 고성군 보조금으로 개최하며 매년 정기적인 행사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화 상품 홍보와 공통엑스포 행사의 관광객 유치 를 위한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 4. 한국음악협회 고성지부

#### 1) 결성

음악협회 고성지부가 결성된 것은 고성예총회장이었던 김춘량을 비롯한 김영선, 배 영, 구관옥 등 동호인이 모여 음악지부를 조직키로 하고 관내 음악인을 규합하여 2009년 3월 11일 고성읍 동외리 “이스턴힐” 에서 한국음악협회고성지부 창립총회를 창립회원 25명이 모여 개최하였다. 각종 음악회와 경연대회를 통해 클래식 음악으로 군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창립된 고성지부는 초대 지부장에 김영선(지휘, 성악), 부지부장에 김옥자(바이올린), 사무국장에 이성준(바이올린), 감사에 김영희(피아노), 박숙경(피아노), 간사에 이경숙(재무 피아노), 박예진(기획 성악), 유지현(홍보 가야금), 김소영(외무 성악), 김경화(행사 플루트), 상임위원에 구관옥(성악), 회원 강미숙(성악), 김경화(피아노), 김대희(성악), 김성국(색소폰), 김진경(피아노), 박혜민(성악), 이계진(피아노), 장재숙(피아노), 전바실래(바이올린), 천지은(성악), 최지혜(피아노), 김행규(음악교육), 정순성(드럼), 김춘량(특별회원 예총회장)으로 구성했다.

#### 2) 활동

정기적인 활동으로는,

- 송년예술제-예술인의 밤 행사
- 찾아가는 음악회와 해설이 있는 음악회
- 학생음악경연대회 등이 있으며

고성음협이 결성된 이후 정기연주회와 각종음악회를 개최하여 고성군민들에게 클래식음악 전파와 가곡애창 저변확대는 물론 군민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했다.

### 3) 조직

- ° 임원 : 지부장-김영선, 부지부장-김영희, 사무국장-박숙경, 감사-유지현·김소영, 기획-이형근·구관옥, 홍보-박혜민.
- ° 회원 : 강미숙, 김동영, 문병석, 박길자, 박예진, 박인환, 박진현, 손정아, 신순돌, 이영순, 정영도, 최지혜, 전바실래, 하성은

### 4) 고성음악의 소사(小史)

한국음악협회 고성지부가 결성되기 이전에 고성에 음악관련 단체가 여럿 있었다.

#### \* 고성악대

8·15 광복 전후로 고성에서 주민계몽을 위해 활동하던 분들에 의해 조직된 「고성악대」는 김상옥(트럼펫). 오만수(만도린). 권동조(슬라이트롬본). 강호성(클라리넷). 황성문(대북). 신창호(트롬본). 임봉재(소북). 손상조(바이올린) 등이 대원으로 활약을 하였다.

이들은 고성과 통영의 정기야구대회가 있던 날 고성 야구부(주장: 하상옥)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환영행사와 함께 시가행진 때에 선도하였으며 남산 밑 공설 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있을 때 홍보를 위한 시내선전과 체육대회의 분위기를 고양시켰다.

#### \* 고성악우회

고성악대가 해산되고 난 뒤의 공백을 계승 하기위하여 1948년에 조직된 단체다. 음악인 김정삼(지도)씨의 주도로 김기도(트럼펫). 김종기(트럼펫). 김권호(코넷). 배 영(앨토). 구관옥(튜바). 임도섭(대북). 김한조. 임병귀(소북). 이원배(섭외)로 조직해 관내 각종 행사시 연주하였으며 고성관내 각 기관의 행사시에도 의전연주와 시가행진연주로 행사의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 \* 고성농업중학교 브라스밴드

1948년 10월 15일에 고성농업중학교(당시6년제. 현 항공고 전신) 브라스밴드가 창단되었다. 당시 음악교사였던 이용락 선생의 지도로 교내외 행사와 각종 예술행사에 동원되어 연주하였다. 특히 대동극장(가야극장의 전신)에서 개최된 학예발표회에서는 브라스밴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갈채를 받았다.

#### \* 에바다 중창단(1982년 3월 결성)

관내 합동결혼식과 경노잔치에 노래봉사 하였다.

**\* 국화클럽(1992년 4월 결성)**

고성음악 봉사단체로 활동하였다.

**\* 고성군립 여성합창단(2005년 1월 창단)**

군 지원으로 각종행사시 참여하고 정기연주회와 타지역 합창단과의 교류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기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 우리가곡 부르기(2008년 8월 27일 발족)**

우리가곡, 신작가곡, 애창가곡, 동요 등을 같이 모여 노래함으로써 정서순화와 행복지수를 높였다.

## 5. (사)한국국악협회 고성지부

### 1) 국악 한마당(얼씨구 ~ 우리의 樂과 舞)

군 보조금 사업으로 2012. 10. 5. 제1회 고성군민과 함께 하는 국악 한마당(얼씨구 ~ 우리의 樂과 舞)를 고성군 스포츠타운 특설무대에서 실시하여 2014년 10월까지 제3회의 행사를 가졌다.

이는 지역민들에게 우리 전통음악과 춤을 알리고 지역의 인재 발굴 육성하며 우리 국악의 보존 계승 창달하여 지역의 문화 향수권 신장에 기여하며 자긍심을 향상 시키고 있다.

< 참고문헌 >

고성(진주박물관 발행)

고성군지(고성군)

고성문단 50년(한국문협 고성지부)

## 제 4절 사)소가야문화보존회(小伽耶文化保存會)

### 1. 법인설립

0 목 적

가) 향토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새로운 고장문화를 창출하는 동시 지역사회의 체육진흥과 군민의 화합을 위해 “문화체육의 성전”을 창출하는 소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나) 향토사 불모지인 소가야사를 비롯한 고대사를 발굴 정립하여 향토사 재조명에 기여하는 한편 후세대에 계승토록 간행물을 출판하여 남기는 사업을 지속한다.

0 동 기 : 1983년 법인 설립의 추진모체로서 「소가야문화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여기서 부터 하나의 큰 주춧돌을 놓게 된 것으로, 이 뜻에 동참하는 군민과 재외 향인들의 뜨거운 성금과 고성인의 높은 이상으로 10여 년 간 중단되었던 소가야문화제를 다시 부활하여 1983년에 제9회 가야문화제와 제16회 고성군민 체육대회를 고성군체육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제전을 열고 향토문화창달과 체육진흥의 새 이정표를 뚜렷이 세웠던 것에서 출발하게 된 것임.

**2. 법인설립일자** : 1986년2월26일 문화관광부장관 허가(제535호)로 설립

**3. 주요추진업무** : 소가야문화제행사집행

**1) 행사개요**

소가야문화제는 1959년에 “광복예술제”란 명칭으로 고성문화원 등 뜻있는 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처음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매년 개최 되지 못하고 격년제로 2회까지 개최하고 1963년 제3회 행사부터 옛 소가야국의 전통문화를 고취하는 뜻에서 문화제 명칭을 “가야문화제”로 개칭하여 1971년 제8회 제전을 치르고 예산관계로 중단 되었다가 1983년에 그동안 중단 되었던 문화제행사를 부활하기 위하여 뜻있는 지역문화예술인과 체육 인사들이 힘을 모아 “소가야문화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모체로 삼았다.

군민과 재외 향인들의 뜨거운 성금과 고성인의 높은 이상으로 동년 9월 20일에 “제9회 가야문화제”와 “제16회 고성군민 체육대회”를 군 체육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제전을 열고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 진흥의 새 이정표를 뚜렷이 세워 재외 고성인의 애향정신이 어린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군민과 재외군민의 향토문화 체육에 대한 열의가 불붙기 시작하여 매년 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동시에 개최하였으며 1983년부터는 가야문화제행사의 원활한 재정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던 “사단법인 소가야문화보존회”가 주관하면서 '89년부터 그 명칭을 “소가야문화제”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행사 내용**

전야제와 서제행사로 불꽃놀이, 제등행렬과 “고성인의 밤”을 개최하고 개막식 때 가장

행렬, 고성오광대(중요무형문화제 제7호)와 고성농요(중요무형문화제84호)의 공연과 군악대연주, 의장대 시범을 하며 각종 문화행사, 민속행사, 전시행사, 체육 행사 등으로 매년 행사내용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3) 소가야문화제 행사 개최 현황

행 사 명	행 사 기 간	비 고
제1회 광복예술제	1959.8.15	고성문화원
제2회 광복예술제	1961.8.15	고성문화원
제3회 가야문화제	1963.10	고성문화원
제4~7회 가야문화제	1964. 66, 68, 70년	고성문화원
제8회 가야문화제	1971.10	고성문화원
제9회 가야문화제	1983.9.20 ~ 9.23	고성문화원: 이후 중단 및 부활 소가야문화제추진협의회 고성문화원 공동추진
제10회 가야문화제	1984. 9.11 ~ 9.13	군민체육대회
제11회 가야문화제	1985.10.29 ~10.31	청사개청
제12회 가야문화제	1987. 9.26	
제13회 가야문화제	1988. 9.26~ 9.28	군민체육대회
제14회 소가야문화제	1989. 9.18~ 9.20	(본회가 주관) "
제15회 소가야문화제	1990.11. 3	체육관개관
제16회 소가야문화제	1991. 9.26~9. 28	군민체육대회
제17회 소가야문화제	1992.11. 6~11. 7	"
제18회 소가야문화제	1993.10. 5~10. 7	"
제19회 소가야문화제	1994.10.19~10.21	"
제20회 소가야문화제	1995.10. 4~10. 6	" (제1회군민의날)
제21회 소가야문화제	1996.10.24~10.26	"
제22회 소가야문화제	1997. 9.30~10. 2	"
제23회 소가야문화제	1998. 9.30~10. 1	IMF관계로간소화

제24회 소가야문화제	1999. 9.30~10. 2	군민체육대회
제25회 소가야문화제	2000. 8. 3~ 8. 6	고성공룡나라축제와 병행
제26회 소가야문화제	2001. 4.25~ 4.27	군민체육대회
제27회 소가야문화제	2002. 4.23~ 4.25	"
제28회 소가야문화제	2003. 5.15~ 5.17	"
제29회 소가야문화제	2004.10. 1~10. 3	"
제30회 소가야문화제	2005.10. 6~10. 8	"
제31회 소가야문화제	2006.10.11~10.13	"
제32회 소가야문화제	2007.10. 1~10. 3	"
제33회 소가야문화제	2008. 9.30~10. 2	"
제34회 소가야문화제	2010. 9.30~10. 2	"
제35회 소가야문화제	2011. 9.29~10. 1	"
제36회 소가야문화제	2012. 10.3~10. 5	"
제37회 소가야문화제	2013. 9.30~10. 2	"
제38회 소가야문화제	2014. 9.30~10. 2	군민체육대회 격년제
제39회 소가야문화제	2015. 9.30~10. 2	군민체육대회

#### 4) 소가야보존회 역대회장 재직현황

구 분	재 직 기 간	재직년수	회 장	사 무 국 장
초대 ~ 5대	1986.7~1996.6	10년	裴 還 甲	조영철, 조현식
6대 ~ 7대	1996.7~2000.9	4년	趙 京 文	조복제
8대 ~ 9대	2000.9~2004.9	4년	金 泰 根	조복제
10대 ~ 11대	2004.9~2008.9	4년	李 洪 根	조복제, 이상태
12대	2008.9~2009.9	1년	朴 昌 弘	이상태
13대	2009.9~2012.2	2년	朴 庄 一	김일대
14대 ~ 15대	2012.2~2017.2	5년	朴 忠 雄	김일대

## 제 2장 고성의 문학

### 제 1절 개관

고성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고장이다. 신석기 시대 패총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고성의 해안과 내륙지역에서 이미, 주민이동을 엿볼 수 있다. 삼한 시대에는 고성이 변한에 속한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 일명 고자국(古資國)이라는 부족국가를 형성했던 것으로 본다.

어느 지역이나 오랜 연원을 거쳐 발전해온 고장에는 문화예술 또한 풍요롭게 마련이지만, 더구나 고성은 산과 들이 비옥하고 해안선을 끼고 있어 바다의 어족 자원 또한 넉넉하여 천혜의 경관과 함께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고성은 자연스럽게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며 문화예술의 꽃도 활짝 피워왔다. 특히 세계3대 공룡발자국 화석 산출지로 유명한 하이면 상죽암 바닷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바, 그 경관이 천하제일이라고 고성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한다.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해식에(海蝕崖), 즉 파도에 깎인 해안지형이 육지 쪽으로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해식에 앞 암반층을 파식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공룡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오죽했으면 천하에 제일 살기 좋은 면, 즉 천하제일면을 줄여 하일면이라고 했을까. 고성 하일면에 살았던 생전의 김열규 교수도 과연 고성이 천하제일경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다.

임진왜란 당시 당항포 대첩을 거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당항포국민관광단지도 고성이 단순히 경관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호국충절의 기상이 서려 있는 매혹적인 고장임을 알게 한다.

살기 좋은 천혜의 고장 고성은 자연스럽게 인물이 많이 나는 것으로 유명하다. 고성 출신 현직 사무관 이상의 관료가 군 단위별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얘기를 고성 사람들은 자랑삼아 한다.

그러나 근대 이후 고성은 인근 통영에 비해서 문인들은 그렇게 많이 배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통영의 경우, 한국현대문학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기라성들이 많아서 문향이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성은 취약한 편이다.

일제강점기에 통영에는 청마나 초정 같은 걸출한 문인이 있었지만 고성 출신 문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일제강점기 고성문학은 그야말로 암흑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나마 문장지 출신 박목월 시인을 배출한 고장이라는 자부심은 가질 만하다.

광복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인물의 고장 고성답게 배출한 문인의 면면은 예사롭지가 않다.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평론가로 김열규, 이선영, 김종희가 있고, 우리 시대 최고의 소설가의 하나로 조성기, 한국시조단에 큰 이름을 남긴 서벌 등이 있다. 물론 이들은 출향문인이지만, 김열규는 1991년 귀향하여 2013년 작고할 때까지 고성에서 터를 내리고 많은 저술 활동을 했다.

고성문단의 대부라 할 수 있는 김춘량은 고향을 지키며 시조시인으로 한 평생 고성문학 발전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겼다. 김춘량과 함께 서벌, 선정주, 이문형 등도 고성문단 형성에 큰 역할을 하여 오늘의 고성문학 발전을 가져왔다. 이들 4인방은 모두 작고했지만, 고성문학 2세대, 3세대 들이 고성문학 초창기에 그들이 씨를 뿌린 결실을 거둬들이며 다양한 형태로 고성문학의 꽃을 피우고 있다.

## 제 2절 고성문학의 태동기

한국의 현대문학은 멀리는 20세기 초에 시작된 신문학 운동을 기점으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며 근대적 자아의 각성을 가져온 가운데 최초의 월간 종합지 『소년』(1908) 창간호 권두시인 최남선의신체시 「海에게서 少年에게」가 발표되며 고전문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면모를 보인다. 최남선이 『소년』 지에 이어 1914년에 『청춘』 지도 창간하여 이 두 잡지를 통하여 신문학 운동을 전개하며 이광수와 함께 2인 문단시대를 열어가는 가운데, 경남지역에서도 이미 1913년 마산문예구락부(부장 金光濟)가 발간될 만큼 새로운 문학의 기운의 태동이 일어난다.

계속하여 1919년 순문예지동인지 『창조』가 창간되고 1920년에 『폐허』, 『장미촌』, 『백조』, 『개벽』, 『조선문단』 등 다수동인지 시대가 열린다.

경남 지역에서는 1926년 통영에서 시조 중심 동인지 『참새』, 1928년에는 경남 지역 최초의 인쇄 배포된 문예지로 진주의 『新詩壇』이 나오면서 지역문단을 넘어 중앙문단에 진출하는 문인도 나타난다. 이은상, 이원수, 김달진 등이 그들이다.

대동아공명권이라는 기치로 과시즘을 강화하던 1930년에도 통영의 유치환, 유치진, 마산의 김용호, 김수돈, 정진업, 권환 등이 중앙문단에 진출할 만큼 경남문단은 활기를 띤다. 1940년대 경남문학도 통영의 장응두, 마산의 지하련, 함안의 조연현 등이 얼굴을 드러낸다.

광복 이전에는 고성의 현대문학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일제시대

철성의숙을 설립한 박거수 선생이 음악구락부를 조직하여 현대음악을 선보이며 문화운동을 선도하고, 광복 이후 김재윤(전 『한국일보』 주필 김성우父)이 「단종애사」 대본을 쓰고 직접 연출하여 대동극장(가야극장 전신)에서 공연을 하는 등의 연극활동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인근 통영지역이 문학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는 고성의 문화예술 활동은 미미했고, 고성문학의 침묵도 길었다.

### 1) 백석의 「고성가도」와 고성 출신 박목월

광복 이전까지 고성문학은 아직 이렇다 할 문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1936년 백석이 고성을 지나가면서 쓴 「고성가도(固城街道) - 남행시초(南行詩抄) 3」이라는 시가 있고, 1939년 『문장』지의 추천으로 문단에 나온 것은 박목월이 있다. 아쉽게는 하지만 백석의 「고성가도」와 고성 출신 박목월에게서 광복 이전의 고성문학의 여명의 빛을 찾을 수 있다.

고성固城장 가는 길

해는 둥둥 높고

개 하나 얼른하지 않는 마을은

해밖은 마당귀에 맺방석 하나

빨갭고 노랗고

눈이 시울은 곱기도 한 건반밥

아 진달래 개나리 한참 뛰었구나

가까이 잔치가 있어서

곱디고은 건반밥을 말리우는 마을은

얼마나 즐거운 마을인가

어쩐지 당홍치마 노란저고리 입은 새악시들이

웃고 살을 것만 같은 마을이다

-백석, 「고성가도(固城街道) - 남행시초(南行詩抄) 3」 (『조선일보』 1936. 3. 7) 전문

백석은 1912년 평북 정주 출생으로 1935년 『조선일보』에 「정주성」을 발표하면서 등

단하여, 모더니즘 세례를 받으면서도 민중의 삶과 애환을 토속적, 민족적인 특이한 경지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고, 현대시 100년 최고의 시인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백석은 일본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1934년 귀국하여 조선일보사에 입사하고, 시인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화여고에 다니는 신여성으로서 통영이 고향인 ‘난’ 이라는 여성을 사랑한다. 「고성가도(固城街道)」는 백석이 통영에 가서 난의 어머니를 통해 청혼한 후 고성을 지나면서 쓴 시로 알려져 있으며, 1936년 3월 7일자 『조선일보』에 발표된 작품이다.

사랑에 빠진 백석이 바라보는 고성 풍경은 이채롭기만 하다. 조만간 있을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건반밥을 말리는 즐거운 마을이 그의 눈에 비친 고성이다, 백석은 사랑하는 난과의 혼인잔치를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성마을을 지나며 꿈꾸었겠지만, 결국 백석이 사랑했던 ‘난’ 은 친구 신현중과 결혼함으로써 비극적 로맨스로 끝난다.

한국 최고의 시인 백석이 사랑으로 가슴 앓이를 하는 가운데 고성을 지나며 그 체험을 바탕으로 「고성가도(固城街道)」라는 시를 쓴 것은 고성으로 봐서는 분명 축복이다.

백석에 버금 가는 시인으로 이름을 얻은 박목월도 바로 고성 출신이었는데 고성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북에는 소월, 남에는 목월이 있다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다.

1997년에 고성청년회의소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으로 남산공원 입구에 박목월의 대표작 「나그네」 시비를 건립하였다. 시비 뒷면에는 “시인의 자작 해설집 『보랏빛 소묘』에서 내가 태어난 곳은 ‘경남 고성’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고성청년회의소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시인의 출생지 기념 시비를 여기 건립하게 되었다. 1997. 11. 12” 이라고 기재해 두고 있다.

이미 세칭 청록파 시인으로 이름을 얻게 되는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세 사람이 펴낸 『청록집』(1946. 6. 6)에도 목월의 작가 소개란에는 “1916년 경남 고성” 이라고 밝히고 있다.

권영민 교수 편 『한국현대문학대사전』(서울대학교출판부, 2004)에도 “1916년 1월 6일 경남 고성 출생” 이라 적시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 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박목월, 「나그네」 전문

이 작품은 남산공원 입구에 서 있는 목월시비 전문이다. 이 시에 대해 박목월은 "보랏빛 소묘"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그네의 주제적인 것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였다. 그야말로 혈혈단신 떠도는 나그네를 나는 억압된 조국의 하늘 아래서, 우리 민족의 총체적인 얼의 상징으로 느꼈으리라. 나그네의 깊은 고독과 애수, 혹은 나그네의 애달픈 향수……(중략)…… 다만 생의 가냘픈 꿈과, 그 꿈조차 오히려 체념한 바람같이 떠도는 절망과 체념의 모습으로서의 나그네가 내게는 너무 애다운 꿈(영상)이었다."

이 시는 박목월 시인의 언어 미학의 최고 경지라는 평가를 받는데, 청록파 하나인 조지훈의 「완화삼」에 대한 화답시이다. 박목월은 자연 친화를 테마로 토속적, 서정적 자연주의 시풍을 개척하고, 순수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경지, 즉한국어로 도달할 수 있는 순수 서정시의 궁극적 경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고성이 낳은 한국의 대표적 시인이다.

## 2) 문학청년들의 동인 활동과 문화 운동

일제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조국이 광복을 맞으면서 일제강점기에 억눌려 있던 한국문학도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된다. 무릇 모든 일에는 빛과 어둠이 있듯이, 광복에도 대립과 혼란상이라는 어둠을 피할 수는 없었다. 조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대립양상을 보인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서 인근 통영에서는 주목할 만한 문화운동이 일어났다. 광복 이후 통영에서는 향토문화인들이 '통영문화협회'를 결성하고 대대적인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만주지방에서 돌아온 유치환이 가족과 함께 기거하던 문화유치원을 본거지로 삼고 김춘수, 전혁

림, 윤이상, 김상옥 등 지금은 한국문단을 비롯한 미술, 음악계의 전설이 된 이들이 당시 통영의 젊은 지식인들로서 벌인 문화운동은 한국의 르네상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지역 문화운동으로서 그 과장이 컸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바, 그 영향이 인근 고성에도 미쳤음을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고성에서도 1950년 봄 고성에서 최갑출, 이문달, 정중희, 이만수, 김용호, 황영기 제씨가 참여한 ‘해사파(海詞派)’란 문학동인이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고성 현대문학의 고고성의 소리였다.

하기호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최갑출은 일제시대에 조선어학회에 관여한 바 있으며 고성 농고 교사를 했고, 이문달도 대성초등학교 교사로 시조시인 이문형의 형이며, 정중희는 이범석 계열의 민족청년단 고성대표를 지냈고, 이만수도 당시 역시 교편을 잡았고 후에는 고성고등학교(예전엔 회화종교) 교장까지 지냈으며, 황윤기도 청년 실업가로 해사파 동인의 면면은 당시 20대부터 30대로 고성지역의 엘리트들이었다. 해사파 창간호 표지 뒷면에 유치환의 신작 「울릉도」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유치환 등 통영 문화인들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해사파는 동인지 1집을 8절지 10페이지 정도의 떡철로 하여 발간하고, 동년 가을 제2집 발간을 위해 원고를 모집하고 편집 하는 중 6.25 전쟁이 발발하여 그 의욕이 그만 꺾이고 말았다.

6·25 전쟁으로 인해 생존 자체가 문제되는 가운데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인간의 실존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면서 문학에도 새로운 지향을 보인다. 1950년 말경 비록 당시 중학생 신분이었지만 이문형, 선정주가 주축이 되어 오종규, 한남재, 김동건 등과 함께 동인지 『답울음』(일명 학생시우회) 1집을 내놓는다. 당시 이들 학생들의 활동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이들 중 다수가 후일 시조시인으로 성장하여 고성문학의 터전을 일구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듬해에는 김한조, 이상원, 구관옥 제씨들이 합류하여 『답울음』 제2, 3집을 발간하며창작의욕을 드러내는 가운데, 당시 고성중학교 교사 서문경의 서문도 받고, 제3집에는 청마로부터 신작시 「바람아」를 수록하기도 했다. 『답울음』 동인 중에는 이순옥, 김경련 같은 여성동인도 참여했는바, 이들의 시작 솜씨가 돋보였다고 전한다. 『답울음』 동인지는 당시는 여성동인까지 구성될 만큼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으나 3호로 종간을 고한다.

1953년 『답울음』 동인들이 다시 힘을 모아 『小伽倻』라는 새 동인을 결성하게 된다. 이 『小伽倻』 동인의 주요 멤버로는 이문형, 김한조, 선정주, 이상원, 김춘량, 서벌, 오종규, 구관옥 등이었으며 『小伽倻』 제1집에 청마의 서평이 실렸다. 당시 통영의 청마 유치

환, 조정 김상옥, 여류시인 이영도 제씨의 지도를 받는 등 왕성한 창작열기로 『小伽倻』 제3집 까지 발간하고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역시 중단되었다. 『小伽倻』 동인에 후일 고성문학의 토대를 쌓았던 김춘량이 참여하게 된 것은 기억해 둘 만하다.

고성에서 활발하게 문학청년들이 문학수업을 쌓고 있을 때 마암면 장산 출신의 허유는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인 1958년 『평화신문』 신춘문예에 「낙재기중(樂在其中)」이 당선되어 등단하자마자 『현대문학』에 「무제(無題)」 「시월달에」 등을 발표하며 문단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로 금융계에 투신함으로써 시에 전념할 수는 없었다. 허유는 한국 고유의 토착성을 살리며 소시민적 애정(哀情)을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1959년에는 이문형, 선정주가 귀향하여 『零番地』 동인을 조직할 때 김춘량, 최진기, 남정민이 합세하고, 이듬해 『갈매기』와 『기숙문학회』 동인을 결성하여 활동하던 서벌, 최우림, 원관수도 가세하여 『零番地』 제1집을 발간하였다.

동년 8월에는 오늘의 소가야문화제가 김춘량, 서벌 등의 주도로 ‘광복예술제’라는 명칭으로 열렸다. 광복예술제는 격년으로 개최되다가 1963년 제3회 행사부터는 ‘가야문화제’로 개칭하고, 1989년부터 오늘의 ‘소가야문화제’로 이어진 것이다. 당시 김춘량은 20대 초반이고, 서벌은 약관의 나이로 소가야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여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지역 축제를 개최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1961년 광복예술제에서는 『零番地』 동인들의 주도로 남산에서 한글시 백일장을 열기도 했고, 1963년 광복예술제를 가야문화제로 개칭하여 개최할 때는 고성문학의 기틀을 마련한 이문형, 김춘량, 선정주, 서벌 등이 함께 주도하며, 김춘량이 대회장을 맡고, 서벌이 총무를 맡았다. 당시 행사가 백일장, 시낭독회 등 문학행사 비중이 컸던 것은 가야문화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고성의 문청들이었기 때문이다. 광복예술제는 문학에 뜻을 둔 고성의 문학청년들이 그 외연을 지역문화예술 운동으로 확장, 개척해나갔던 예술제였다.

한편 1968년 5월에 문학에 뜻을 둔 20대 중반의 제정길, 차천행, 최규찬, 최순호는 동인 형식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새로운 문학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기생으로 학창 시절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친분을 유지하다가 제정길이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발령을 받아온 것이 계기가 되어 1년 정도 모임을 갖고서는 가야문우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여 학생백일장 등을 실시하며 고성문학의 새 기운을 불어 넣었다.

### 제 3절 전문문인시대 개막과 휴면기

고성 지역 문학청년들의 활발한 동인활동 결과, 고성도 아마추어 문청시대를 넘어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문단에 정식으로 등단하는 전문문인 시대를 열게 된다. 서별은 1961년 처녀시집 『하늘색 일요일』을 출간하고서는 1964년 『시조문학』지로 추천 완료하여 고성 지역에서 뿌리박은 경우로는 최초의 등단 시인이다.

木手가 밀고 있는 속살이 환한 角木  
어느 古典의 숲에 호젓이 서 있었나  
드러난 生涯의 무늬 물 젖는듯 선명하네.

어찌자 나는 자꾸, 꺾고 썰며 다듬는가  
톱밥, 대팻밥이 쌓아가는 赤字더미  
결국은 곧은 뼈 하나 버려지듯 누웠네.

-서별, 「어떤 經營 1」 전문

서별은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시조 쓰는 일에 매진하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나간 시인이다. 위의 작품은 그의 대표작의 하나로 아픈 현실과 대면하여 자신의 존재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생이라는 각목(角木)을 평생 꺾고 썰며 다듬어도톱밥, 대팻밥이 쌓아가는 적자 인생이지만, 궁극에는 「어떤 經營 1」 같은 수작 하나 곧은 뼈로 남기는 것이 그의 삶의 의미였다.

서별은 시조미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했고, 사설시조에 대한 현대적 모색으로 한국시조의 전통성과 전위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일가를 이룬 시인으로 평가 받는다. 그는 중앙일보사 제정 제11회 '중앙시조대상'의 수상자가 되었고, 시조창작뿐만 아니라 「시조문학사 방법론서설」 「현대시조의 흐름」 같은 시조연구논문과 시조평론을 발표하며 시조의 이론과 실재를 두루 갖춘 한국시조단의 리더 역할을 했다.

고성문단을 실질적으로 일구어낸 김춘량은 1968년 『시조문학』으로 천료하여 등단했다. 등단 이전 1959년 광복예술제를 창설하고 1965년 『울』 동인활동을 펼치는 등 일찍이 문단활동을 왕성하게 했지만 등단은 다소 늦은 편이었다.

김춘량은 등단 이전부터 고성을 지키면서 한평생 시조와 함께 시인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고성의 성주(城主)라는 별호를 들으며 고성지역 문단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山 11번지  
 어진 우리 순신성님(舜臣聖任) 두 번 크게 떨친 이곳  
 당항포 국민관광지 매점 하나에 호구(糊口) 걸고

경남 고성읍 교사리 山 666-1번지  
 입고조(入高祖) 구대(九代) 할아버지 선영(先塋) 뒤뜰 우거(寓居) 한칸  
 아직도 정정한 여든 세 살 노모님이 의지라오

산다는 게 무엇인지 먹새 입새가 무엇인지  
 네다섯 식솔들과 많잖으나 넉넉은듯  
 조그만 왕국 하나 경영키 아직도 태산이네

몸으로 詩 쓰는게 말같지는 쉽잖아서  
 십오년 도로(徒勞)였던 아·저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詩 쓰려오 마음으로 詩 쓰려오

-김춘량, 「續 近況」 전문

김춘량은 한때 경제적 이유로 절필하고는 몸으로 詩를 쓴다고 하며 고단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천생 시인으로 첫시집 『우리네 예사 사랑』에서는 빼어난 서정성을, 제2 시집 『서울 낮달』에서는 시사성이 강한 현실적 리얼리티로 날카로운 인식을 드러내며 제 3시집 『작은 행복론』 이후에는 서정성과 민중성이 변증법적으로 통합된 완숙한 작품세계를 선보여 시단의 주목을 받았다.

김춘량이 서별, 황선하 등과 뜻을 모아 1970년 한국문인협회 고성군 지부 인준을 받아 김춘량은 고성문협 회장으로 고성 문협지부 시대를 열었고, 소가야문화제를 창설하는 등 그는 탄탄한 시인으로서의 입지를 바탕으로 고성문화예술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다.

1971년에는 선정주가 『시조문학』으로, 1973년에는 이문형이 『현대시학』, 1974년에는 최우림이 『현대시학』으로 속속 등단하며 고성에도 전문문인 시대가 도래한다.

선정주는 서울에서 목사로 시무하면서도 『현대시조』를 창간하여 주간을 맡으며 후진 양성에 큰 기여를 했는데, 고향 후배들도 『현대시조』를 통해 등단시켜 고성 시조문단을

풍요롭게 했다.

三十年 잊고 살아온  
풀국새 울음을 듣는다.

初年の 때, 집으로 돌아가는 新作路는 언제나 人跡이 없었고, 共同墓地 쪽 숲에서 풀국새가 울었다. 섬짓한 풀국새 울음은 가슴에 고여 잠을 자다가도 풀국새 생각을 했었다. 비 오는 날에는 혼자 풀국 풀국하고 비에 젖은 풀국새가 되고,  
三十年 먼 거리를 둔 번잡한 都會에서 듣는 풀국새 울음은 가슴에서 울었다.

풀국새 울음을 듣는 나이  
고향 변두리에 온 것이다.

-선정주, 「回歸의 풀국새」 전문

김춘량, 선정주, 서벌과 함께 이문형은 고성문단 1세대로 제일 형이지만 등단은 다소 늦게 했다. 그의 순수서정과 구수한 인품은 고성 후배문인들의 존경을 받았다.

산이 걸어가는 걸 가수네가 보았것다  
부지깁이 두드리며 “산이 걸어 간대이”  
그 말에 그냥 그 자리에 서 버렸다는 고향 산.

낮 동안 달을 업고 영개등개 잠재우다  
대보름 둥근 달을 눈썹 위에 올려놓고  
수목화 목향 그옥이 가슴마다 그려줬다.

등술기 굼뜰굼뜰 가부좌로 앉아서  
두 팔 벌리고는 덩석 안아 주던 산  
수십 년 떠돌아 오니 돌아앉아 있구나.

-이문형, 「巨流山」 전문

이문형과 선정주는 출향문인으로 있었지만 고향을 자주 찾아 후배문인들과 교류를 하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선정주의 「回歸의 풀국새」와 이문형의 「巨流山」은 고성남산 문학 동산시비 작품으로 고향 사랑과 그리움이 묻어나는 애향시조이다.

한국문협 고성지부를 결성하는 등 매우 왕성한 활동을 보였던 김춘량은 1976년 갑자기 절필선언을 하며 문단활동을 접고, 이문형, 선정주 등은 직업 관계로 고성을 떠났다. 갑자기 고성문단은 텅 빈 형국으로 휴면기를 맞게 된다. 이 당시 제정길, 차천행, 최규찬 등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등단하지 못하고, 문청으로 문학수업에 열중하는 시기니, 전문문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오히려 아이러니칼하게도 고성문단은 침체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 기간 고성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고성 출신으로 문명을 얻은 이들이 있었던 것은 고성문학으로는 꼭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 대표적인 이들이 평론가로 김열규, 이선영, 소설가로 조성기, 시조시인으로 정해송을 들 수 있다. 김열규 같은 경우는 출향문인으로 이름을 얻은 후 금의환향하여 고성문화 수준을 향상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김열규는 1963년 김정반이라는 필명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에 평론으로 당선되어 현장 비평보다는 학자로서 한국학의 거장이라고 일컬어지며 한국인의 죽음론과 인생론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열규는 서울 서강대에 재직하며 학자로서 문명을 얻은 후, 1990년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로 귀향해 인제대학교, 계명대학교 등에서 후진들을 가르치며 고향 고성에서 더 깊은 사유와 인문학적 성찰로 『빈손으로 돌아와도 좋다』(1993)를 비롯하여 유고집 『아흔 즈음에』(2014)에 이르기까지 주옥 같은 저서들을 집필하여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진력했다.

다행히 아직은 성스런 바다가 있다. 아직 청아한 새벽바다가 있다. 그리고 절대의 침묵과 어둠을 예비하는 산이 있다. 파도의 노래가 아직은 잔잔하게 울려오고 개울 물살은 예대로 도란거리고 있다.

우리가 맨 마음, 알몸, 빈손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품이 되기 족한 것들이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오기 잘한 곳이 될 것이다. 아직 우리 고향은.

- 김열규 수필, 『빈손으로 돌아와도 좋다』에서

그는 1990년 귀향하자마자 고성문화사랑 모임을 조직하여 문화강좌를 열기도 했는데, 고향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열규는 생의 끝자락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전날까지 혼신을 다해 원고를 썼을 만큼 그의 인문학적 열정은 많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이선영은 1969년 『현대문학』 추천 완료로 평론가로 등단하여 연세대 국문과 교수를 역임하며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 『소외와 참여』, 『현대한국작가 연구』, 『상황의 문학』, 『작가와 현실』,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문예사조사』, 『한국근대문학비평사연구』 등이 있으며, 특히 초기 평론인 「비평에 있어서의 역사주의와 분석주의」(1972)에서 분석주의 지평을 어느 정도 용납하면서도 역사주의 또는 상황의식의 비평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밝힌 것은 당시 평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 등을 맡으면서 현실주의 비평을 옹호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학적 관점을 견지함으로써 학자로서 평론가로서 균형적 시각을 유지한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 현실의식에 입각하여 작품에 반영된 리얼리즘적 준거들과 분석주의적 관점을 아우르는 비평적 면모를 보이며 문학의 사회 문화적 의미와 그 실천성을 중시한 한국문단의 원로 비평가로 고평되고 있다.

조성기는 우리 시대 최고 소설가의 하나로 거론되기도 할 만큼 작가적 역량을 드러내었다. 그는 서울 법대를 거쳐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197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으로 문단에 나와, 신학적 종교적 세계를 형상화하면서 삶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신랄한 언어로 그려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편소설 『슬픈듯이 조금 빠르게』, 『가시등지』, 『욕망의 오감도』, 『베테스다』, 『우리 시대의 사랑』, 『잃어버린 공간을 찾아서』 등이 있으며 평전으로 『한경직 평전』, 『유일한 평전』도 있다. 현재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창작 활동을 하는 가운데 교회 목회도 한다.

1985년 장편소설 『라하트 하헤렙』으로 제9회 ‘오늘의 작가상’을, 1986년 『야회의 밤』으로 기독교문화상을 수상하고, 1991년에는 중편소설 『우리 시대의 소설가』로 제15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조성기는 한국소설문학상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상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어릴 때 바라본 변화무쌍한 고성바다가 자신의 문학이 있게 한 원초적인 기반으로 양수(羊水) 같은 바다라고 했다.

정해송은 1978년 『현대시학』을 통해 시조시인으로 데뷔하여 시조집 『겨울 달빛 속에는』과 평론집 『우리시의 현주소』 등이 있다.

물은 어디서든 낮은 데로 흐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높은 곳을 가고 있다

허공을 찌르는 대숲을 보라  
물이 분명 위로 간다

흐르면서 거스르는 저 완강한 물의 저항  
온몸으로 운기 세워 하늘까지 올라간다  
순리와 역리를 한 울에 엮는  
물의 말은 등그렇다

-정해송, 「물의 말」 전문

정해송은 도시의 현실적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직시하며 자유에의 의지와 열망을 시대정신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세계를 서정적 구조로 형상화한 하고, 나아가 내면 탐색으로 실재에 도달하고자 한다.

## 제 4절 『고성문학』의 창간과 부흥기

1980년대는 1979년 12·26 사태로 유신체제가 붕괴되고 서울의 봄이 오는가 했는데, 신군부가 12·12 사태를 일으켜 권력의 실세로 등장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유혈 진압하며 신군부 통치의 제5공화국을 열었다.

이 같은 암울한 시기임에도 경남 지역에서는 경남 도내 문인들의 구심체인 경남문인협회가 1983년 결성되었다. 신상철 마산지부장을 중심으로 김춘량 고성지부장을 비롯하여 진주, 울산, 충무, 진해, 삼천포, 밀양 각 지부장들이 뜻을 모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통해 경남문인협회를 발족시켰던 것이다. 초대회장은 이광석으로 1969년 경남문학간행위원회(위원장 김교한)에서 창간호와 2호(1970년)를 발간하고는 유명무실게 되었던 것을, 1983년 11월 『경남문학』을 재창간하고 경남문인들의 공기로써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미 70년대에도 마산의 『마산문학』, 진주의 『진주시단』, 울산의 『울산문학』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지역문학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범 경남권을 대표하는 경남문인협회의 발족과 기관지 『경남문학』의 재창간은 경남문단이 확실하게 터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

80년대가 되면서 고성문학도 기지개를 다시 켜기 시작했다. 이문형, 김춘량, 선정주, 서벌이 고성문학의 1세대라면, 2세대에 해당하는 제정길, 차천행, 최규찬 등은 1980년대

초반 경부터 뜻을 같이 하는 이상원을 비롯한 후배들과 합평회를 가지며 가야문우회의 재건과 아울러 고성문학의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1세대 고성문청들이 동인활동을 활발히 하며 고성문학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기성문인이 되면서 고성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김춘량 혼자 문협 고성지부를 지키고 있는 형국이었지만, 2세대인 후배들이 고성문학을 재건하기 위해 뭉친 것이 바로 1983년 11월 6일 발족한 ‘가야문우회’이다. 홀로 외롭게 고성문학을 지켜온 김춘량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부회장에 김홍래, 박영재, 간사에 차천형, 감사에 김춘기를 각각 선임했다. 창립동인으로는 김춘량, 김홍래, 박영재, 차천형, 김춘기 외에 황주철, 이상원 등이 있다. 가야문우회는 창립한 해 12월 고성읍 금실다방에서 송년의 밤을 가지며 최재구 전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하는 한편, 합평회, 시화전, 시낭송회도 열며 의욕적인 활동을 펼쳤다. 학생동인 ‘지계문우회’ 회원 중 장재, 손순미가 가야문우회에 가입하고 최순호, 김호영, 최재섭, 김인규, 강수복, 황일립 등도 합세하며 가야문우회는 당시 고성문학의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한다.

가야문우회가 나름대로 고성문학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기여를 했으나, 역시 동인회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문학의 열정을 가진 몇몇 회원들은 가야문우회를 구심점으로 문학적 역량을 키워왔지만 고성문학을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고성문학의 공기로서 고성문협의 기관지 『固城文學』 창간이 숙원사업이 되었다.

고성문단의 중심부 역할을 했던 이문형, 선정주, 서벌 등은 기성시인이 되어 출향하고 고성문단을 기성시인으로서 김춘량 시인 혼자서 지키고 있던 터라 『固城文學』 창간 이전에는 김춘량 1인 문단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황량한 고성문단 풍경이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드디어 1989년 『固城文學』이 창간됨으로써 고성문단은 새로운 피를 수혈하며 도약을 가져올 발판을 마련한다.

『固城文學』의 창간은 김춘량의 노력과 의지, 고성군 당국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固城文學』의 창간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간 고성의 문청들이 지속적으로 동인활동을 해왔고, 『固城文學』 창간 전까지 가야문우회를 구심적으로 문학에 대한 뜨거운 열의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固城文學』 창간호 발행은 한국문인협회 고성지부로 되어 있으나, 편집은 가야문우회로 된 것에서도 가야문우회의 역할을 가능케 한다.

드디어 「고성문학」 창간호가 탄생되었다. 오랜 치성 끝에 득남한 기쁨이 이런 것이 아



등을 연속 특집으로 이어가면서, 가히 고성문학의 르네상스라 불러도 좋을 만큼 활기를 띠었다.

1990년 6월 15일 총회에서 제정길이 제2대 한국문인협회 고성지부장으로 선임되어 그간 이원화되어 있던 가아문우회가 한국문인협회 고성지부로 일원화되어 고성문단은 명실공히 고성문인협회 체제로 힘찬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

1995년 1월에 이상원이 제3대 지부장을 맡고 『국제신문』과 공동으로 문학세미나를 통해, 타 지역문학 단체와 언론매체 등과의 교류 등을 통해 『固城文學』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 1996년 1월 9일 이상태가 제4대 지부장, 1998년 1월 16일 김호영이 제5대 지부장을 각각 맡아 전통적으로 이어온 한글시 백일장, 문학의 밤 등을 개최하고 기관지인 『固城文學』 발행 등을 통해 고성문단을 이끌었다.

이와 같이 한국문인협회 고성지부 기관지 『固城文學』의 창간과 함께 고성문단의 도약과 부흥기를 가져왔다. 고성문단은 기성시인이라고는 김춘량 1인이 지키고 있던 것이, 이상옥('89 『시문학』), 이상원('90 『경남신문』 신춘문예), 제정길('90 『시와 의식』), 김진문('90 『현대시조』), 최재섭('90 『시조문학』), 김춘기('90 『현대시조』), 김화홍('91 『시와 의식』), 김수부('91 『시문학』), 백종흠('91 『현대시조』), 김동봉('92 『문학과 의식』), 이상태('92 『경남문학』), 최미선('93 『경남신문』 신춘문예), 정해룡('93 『시와 비평』), 장재('93 『조선문학』), 김봉선('93 『현대시조』), 김수('94 『경남신문』 신춘문예), 김숙귀('94 『조선문학』), 최진경('98 『현대시조』), 백순금('99 『자유문학』), 제민숙('99 『자유문학』) 등이 등단함으로써 고성문단은 풍요로워졌던 것이다.

1993년에는 김수부의 주도로 ‘고성여성문우회’를 결성하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문학보급에 노력한 결과 다수의 여성문인을 배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문우회 회원들은 고성문학에 10여 명이 입회하고 계속 정진하여 고성문단에 주요한 멤버로 자리잡게 된다.

1989년 9월 『固城文學』 창간과 함께 이후 90년대 대거 등단한 고성문인들이 고성을 지역 기반으로 하여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고성문학은 부흥기를 맞았다.

한편 출향 문인으로 김종회는 1988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하여 김환태평론문학상, 김달진문학상, 편운문학상, 유심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서 450여 명에 이르는 대학교수와 평론가로 구성된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문단의 리더로서 현 문단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저서로 『문화 통합의 시대와 문학』, 『문학과 예술혼』, 『디아스포라를 넘어서』, 『북한문학 연구자료 총서』,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등을 출간하여 폭넓은 비평활동과 학자로서의 연구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박서영('95 『현대시학』), 손순미('97 『현대시학』), 김혜영('97 『현대시』) 등도 유수의 문예지로 등단한 출향 여성시인으로문단의 꾸준한 주목을 받으면서 고성문학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

## 제 5절 고성문학의 새로운 약진

민선 지자체장들이 2000년대 들어 경쟁적으로 지역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학축제를 펼치며 나름대로 지역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와중에, 문학도 중앙 중심에서 벗어나 각 지역마다 문학을 지역을 알리는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다. 특히 경남 지역에서는 통영의 통영문학제, 진해의 김달진문학제, 마산의 권환문학제, 하동의 토지문학제, 이병주국제문학제, 사천의 박재삼문학제, 의령의 청강문학제, 함양의 지리산문학제, 남해의 유배문학제 등의 문학제와 함께 다양한 문학상을 제정하면서, 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역설적으로 지역에서는 문학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2000년대 들어 지자체의 정착과 함께 두드러진 현상으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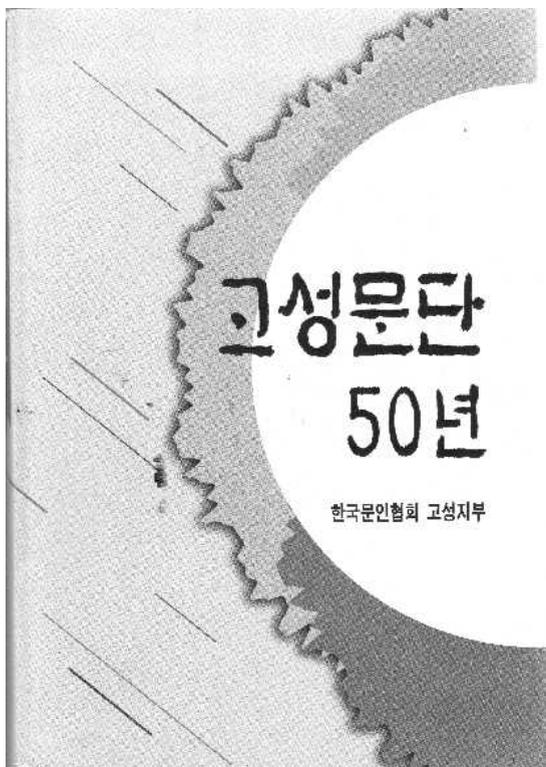
고성은 인근 지역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문학을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문학에 대한 인식이 너무 미미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고성문학의 새로운 약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2000년을 하루 앞두고 고성문인협회에서는 『고성문단 50년』을 간행하면서 고성문단 50년을 소략하게나마 조명하였다.

이 책은 고성문단 50년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고성문협 기관지 『고성문학』 일람, 고성문인단체의 연혁과 임원 소개 등과 함께 회원작품을 선집으로 묶었다. 당시, 선집에 참여한 이들은 고성문협 회원으로 시 부문에 공형선, 김남철, 김수부, 김영순, 김진엽, 박원일, 박행숙, 손수남, 안한규, 이상옥, 이상원, 조성숙, 허정화, 시조 부문에 강홍우, 김춘기, 김춘량, 김호영, 백순금, 이진훈, 장재, 제민숙, 최재섭, 최진경, 수필 부문에 강미혜, 권영배, 김동봉, 김열규, 김화홍, 이상태, 정상옥, 동화 부문에 손혜숙, 최미선, 소설 부문에 이상태가 참가했다. 출향문인으로 시 부문에 박서영, 백경학, 손순미, 이정립, 이향안, 제정길, 조범산, 진진옥, 최재복, 허유, 시조 부문에 김설영, 박금옥, 백종흠, 서별, 이문형, 이소라, 정해송, 최우림, 동화 부문에 김수, 수필 부문에 이방수, 소설 부문에 최규찬이 참여했다.

『고성문단 50년』은 말 그대로 고성문단 50년을 되돌아보며, 정리하고 새로운 밀레니엄



을 향한 힘찬 출발을 기약하는 의미가 있었지만, 출항문인 선집에서 고성이 나온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평론가 이선영, 소설가 조성기, 평론가 김종희 같은 문인을 누락시키는 등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고성문협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2000년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기 앞서 고성문단 50년을 조명해본 것은 새 천년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하나의 세례모니로 고성문단 50년을 조명해본 그 자체만으로 의의가 깊다 하겠다.

고성문협은 기관지 『고성문학』을 연간지로 결호 없이 발간하면서 2000년대에 고성문학의 구심적 역할을 이전과 같이 묵묵히 수행해 왔다.

2000년 들어서면서 김춘기는 한국문협 고성지부장을 맡아 『고성문학』 제16호를 출간하며 간행사에서 한 나라의 국력이 그 나라의 전통문화에 기인하듯이 한 지역문화의 발전도 그 지역 문학사에 의해 좌우된다는 취지로 21세기로 접어드는 고성문학의 새로운 각오를 피력했다.

고성문학은 고성문단 50년사로 오늘에 이르러 발전해왔으며 앞으로 이어 발전해 나갈 것이다.

20세기 마지막 넘어가는 새벽 달빛은 새 아침의窓을 닦아 새 천년을 일으켜 세워 주었다. 분명히 고성문단 50년사도 새 천년 고성문학 활동의 跳躍의 깃발을 하늘 높이 세워 주고 이제는 역사의 뒀안길로 물러서서 21세기의 발전을 주시하고 있다. 구름에 싸인 달빛처럼 끊어진 듯 이어져 온 고성문단 50년 發展史의 哀歡을 거울삼아 고성문인협회의 회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성문학 활동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 『고성문학』 제16호(2000년) 간행사 일부

2000년은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이며, 고성문단 50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고성문협

중심으로 기존의 전통적으로 이어온 행사를 그대로 잘 계승해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부용('00 『문학공간』), 정영도('00 『시조문학』), 김진엽('00 『조선문학』), 황보 정순('03 『옥로문학』), 김성규('04 『시조문학』), 김숙선('05 『시조문학』), 전갑열('05 『시조문학』), 김진현('05 『문학세상』), 정수경('05 『시조문학』), 박연순('05 『시조문학』), 황석우('06 『시조문학』), 전순옥('06 『시조문학』), 이수경('06 『시조문학』), 정정배('06 『시조문학』), 강권수('06 『시조문학』), 김분옥('07 『시조문학』), 박재연('08 『문학사랑』), 이상진('08 『시조문학』), 박창홍('08 『시조문학』), 김행수('09 『시조문학』), 김홍점('09 『시조문학』), 이상근('09 『시와 수필』), 강미혜('10 『문학사랑』), 손수남('12 『호서문학』), 윤홍렬('12 『서울문학』), 이근석('12 『서울문학』), 제정례('12 『문학일보』), 반혜정('13 『시선』) 등이 등단했다. 타지에서 고성으로 거주지를 옮긴 빈명숙('93 『문예한국』), 정이향('08 『시에』)도 고성문단 새 식구가 되었다.

김춘기에 이어 2002년부터 강홍우가 1년간 지부장을 맡고, 2002년부터 1년간 김수부가 지부장을 맡고, 2006년부터 1년간 안한규가 지부장을, 2008년부터 장재가 1년간 지부장을, 2010년부터 강홍우가 다시 1년간 지부장을, 2012년부터 1년간 정영도가 지부장을, 2013년부터 1년간 강미혜가 지부장을, 그리고 2014년부터 백순금이 지부장을 맡아서 고성문협을 이끌고 있다.



고성문협은 고성문학의 중심으로 소가야 문화제 학생 백일장, 배둔장터 독립만세기념 학생백일장, 고성문화원 충효백일장, 고성군아동협의회 학생백일장 등 다양한 백일장과, 문학의 밤, 시화전, 문인초청 특강, 출판기념회 등을 매년 개최하고, 출향문인과의 교류를 꾸준히 해오는 가운데, 기관지 『고성문학』을 통해 출향문인과 교류를 꾸준히 해온바, 2009년 말 결성한 재경고성문협과도 교류하고, 2011년에는 경남문인협회 주최 ‘찾아가는 문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시야를 꾸준히 넓히고 있다.

2011년 4월 15일에는 고성예총과 고성문

협이 주관하여 고성남산공원 내 문학동산시비를 제막하였다. 등단 30년 이상인 고성출신 최재호, 서벌, 이문형, 김열규, 허유, 김춘량, 선정주와 최계락 등과 정완영의 시비를 건립했다. 이 시비가 남산공원에 좋은 뜻으로 세워졌지만, 생존문인과 고성과 관련 없는 문인의 시비를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없지 않았다.

고성문학을 실질적으로 일구었던 김춘량, 서벌, 이문형, 선정주 등이 시조시인이었던 관계로 고성에는 시조시인들이 많이 배출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2000년대 들어 고성의 시조시인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결집하면서, 고성시조의 전통을 잇고 자 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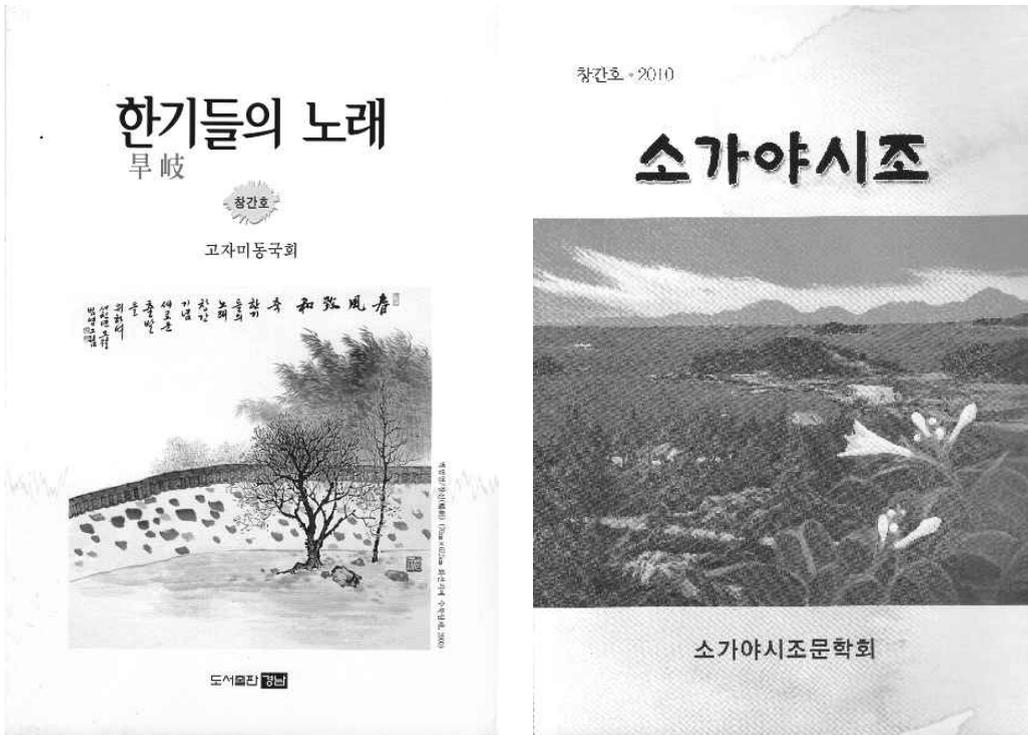
1990년대까지 고성 시조시인들은 독자적인 협회를 구성하지는 않고, 고성문협 기관지 『固城文學』을 중심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문학행사를 하였다. 그러다, 고성문협 회원 중 시조시인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 ‘소가야시조문학회’라는 동인모임을 결성하여 김호영이 초대회장, 2대가 김춘기, 3대 회장에 다시 김호영이 맡으면서 2000년 6월에 동인지 창간호 『한기(旱氣)들의 노래』를 출간하였다. 동인지 창간과 함께 고성의 옛 지명인 시조나라 고자미동국으로 동인회 명칭을 바꾸었는데, 창간호 수록 동인은 강홍우, 김설영, 김춘기, 김춘량, 김호영, 박금옥, 백수금, 백종흠, 그리고 출향 시인 서벌, 선정주도 합세하여 고성의 시조시인들의 새로운 결집으로 고성(高城)이 시조나라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경남 고성이라고 하면 먼저 시조로 신문학을 연 고장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고성문인들을 보는 인상이다. 그만큼 고성의 문학은 시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시조는 우리 고유의 역사 깊은 가락과 우리말의 짜임새에 절로 묻어 온 우리의 노래이다. 고성의 시조인들이 ‘시조나라 고자미동국’이란 동인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이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나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오늘에야 동인지를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다.

- 소가야시조문학회 창간호 『한기(旱氣)들의 노래』 발간사 일부

이 글은 발간사 일부이다. 발간사에서 밝힌 것처럼 고성(高城)이 시조나라라는 자부심으로 동인지 창간까지 했지만, 2001년에는 제2집 『시조나라』를 출간하고자서는 고자미동국 동인 모임은 참여 저조로 흐지부지 되어버렸지만, 이 동인 모임 결성을 바탕으로 고성(高城)에 시조단체가 출범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3년 10월 5일 김호영, 김춘기, 김홍래('02 『시조문학』)가 발기인이 되어 고성 시조의 진흥과 신인 발굴 등을 위해 ‘소가야시조문학동우회’를 결성하고, 정수경, 김성규, 전갑열, 박연순, 황석우, 김숙선, 전순옥, 이수경, 정정배 등의 회원을 영입하였다. 2005년부터 ‘소가야문학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동인회를 넘어 문학단체로의 도약을 도모했다. 소가야문학회가 활성화되면서 고성에 시조의 저변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2010년에는 『소가야시조』가 창간되었다. 『소가야시조』 창간호에는 김홍래가 「고성 시조문단 60년사」를 정리하고, 회원 등단 작품을 수록하는 등 소가야 시조시인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의를 보인다. 소가야시조문학회는 『소가야시조』 창간 이후 시화전, 문학기행 등을 통해 회원간의 친목과 창작의욕 고취를 꾀하고 제정래, 이상근, 김미경, 백문기 등 새 회원을 영입하는 등 고성시조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4년부터 고성에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디카시 운동을 펼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디카시는 사물에서 시적 형상, 시적 감흥을 디카(스마트폰 디카)로 순간 포착(영상)하고 문자로 표현한 하나의 텍스트(영상+문자)로 종이책을 넘어서 SNS 등을 통해 실시

간 쌍방향 소통하는 것이다.

디카시는 이상옥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한국문학도서관에 연재하여, 동년 9월 최초의 디카시집 『고성 가도(固城 街道)』를 출간하면서 공론화되었다. 디카시는 차츰 고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학 운동성을 띠고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머니투데이, 오마이뉴스 등지에 연재되고, 여러 언론매체가 보도하면서 고성이 디카시의 발상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디카시 공론화 이후 2004년 9월에 ‘디카시마니아’라는 다음 카페가 개설되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디카시 운동을 펼침과 아울러 2006년 디카시 전문 무크지 『디카시 마니아』를 창간하고, 2007년 12월에 반년간 『디카詩』를 창간하여 2015년 9월 현재 통권 16호를 출간하였다.

디카詩는 기존의 언어 예술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디카詩는 멀티 언어 예술이다. 기존의 시가 문자 언어를 매재로 하는데 비하여 디카詩는 문자와 동등한 레벨로 사진을 매재로 활용하는 것

이다.

문자 외에 사진을 매재로 하는 디카詩는 시각적 효과를 살리기 위해 작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다. 이는 시를 새롭게 인식하는 시론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적인 작업인 것이다.

-무크지 『디카詩 마니아』 창간사 일부

무크지 『디카詩 마니아』 창간사에서 드러나듯 디카시 운동은 뉴 미디어 시대에 고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새로운 시운동으로 문학사적 의미를 지닌다.

디카시 운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적 이슈를 생산해 내었다. 2008년부터 해마다 고성에서 경남 고성 디카시페스티벌을 개최하고, 2009년부터 서울시가 주최하는 ‘시가 흐르는 서울’에 초청 받아 디카시 낭독회를 열었고, 2011년에는 농어촌희망재단의 지

원을 받아 전국 문인초청 고성생명환경농업 디카시체험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가운데, 2012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디카詩공모전도 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디카시가 고성의 문화자원으로서 문화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이, 행안부 용역조사에서도 평가되자 고성문화원에서 2014년 5월 12일 SNS 시대 새로운 시의 장르로 각광받는 디카시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부설 디카시연구소를 개소했다.

고성문화원 부설 디카시연구소는 지자체별 특성화사업(지자체 축제나 지역 농산물 홍보 사업)과 디카시공모전, 디카시잡지 및 디카시연구서 발간, 디카시 페스티벌 등 디카시 관련 프로젝트 사업을 하며, 디카시의 발상지인 고성을 알리고, 고성이 디지털 시대 최첨단 문화운동의 최전선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통영문협회장, 통영예총회장 등을 역임한 정해룡 시인이 한전을 정년퇴임하고서 고향 고성에서 집필에 전념하면서 2012년 5월 10일 도서출판 경남에서 「조선의 잔다르크 월이」라는 소설 출간을 필두로 여러 괄목할 만한 저서를 잇달아 내었다.

정해룡의 저작들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세계문학의 위대한 유산들이 대부분 작가의 고향에서 구전되었던 것들을 세계적인 인류의 보편적 심상으로 끌어올린 작품들이었던 것처럼 지역 고성을 테마로 문학적 형상화를 하여 고성의 문화적 가치를 드러내려는 첫 시도였기 때문이다.

“왜적의 함대가 소소강召所江 서쪽에 있었다고 한 이순신 장군의 장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 서쪽은 바로 고성읍 쪽이야. 그것은 바로 왜적의 간자間者가 만든 지도에 월이가 길이 있는 것처럼 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이었지. 소소강(지금의 울천리에서 흘러내리는 고성천을 소소강이라 했음)에서 고성만 바다까지 뱃길이 있는 양 지도 위에 붉은 선으로 그어져 있으므로 왜장은 그 지도를 따라 소소강으로 거슬러 올라갔겠지. 가다가 길이 없음을 알고 후퇴를 하고 있을 즈음에 이순신 함대가 들이닥치자 적들은 물러서자니 퇴로는 없고 나아가자니 이순신의 막강한 함대가 버티고 있으니 우왕좌왕하다가 전멸되었거든. 26척이나 되는 왜적의 대 함대를 깨뜨리는 숨은 주역은 월이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어찌 월이를 논개와 단순비교를 하겠는가 말일세”

-정해룡, 「조선의 잔다르크 월이」에서

기생 월이는 임진왜란 때 고성 지역에서 위대한 충절을 보인 기생 월이 이야기는 고성 사람이면 누구나 어릴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다.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 조선에 정통한 첩자를 침투시켜 조선의 지형 곳곳을 염탐하게 하여 전쟁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경남 고성에 들른 한 첩자는 기생 월이가 있는 주점에 하룻밤 지내게 되어 기생 월이와 정분을 나는 과정에서 이 첩자가 왜인으로 고성의 주요지점을 그린 지도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해상로로 표시된 한 부분 중 막힌 곳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열린 곳으로 표시하여, 결과적으로 왜적함대가 그 지도를 토대로 해전을 벌이다가 이순신 장군에게 궤멸 당했다는 당항포 승전의 비사가 바로 그것이다.

정해룡의 「조선의 잔다르크 월이」 출간을 계기로 ‘기생 월이’ 를 문학콘텐츠로 활용하여, 앞으로 월이공원, 월이주막, 월이산책로 등을 만들고, 나아가 영화화하여 고성의 문화 브랜드로 내세울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고성의 시조적 전통을 살려 고성 시조시인들의 결집으로 시조문단을 구축하고, 고성이 발상지로 내세운 디카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시의 길을 개척하고, 월이 테마 문학콘텐츠 개발하는 것 등은 고성문학의 새로운 약진을 보여준다.(본고는 개별 문인들의 문학적 성과는 작고문인과 출향문인으로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경우에만 기술하였고, 현재 고성에 터를 두고 치열하게 창작하는 고성문단의 개별 문인의 경우, 그들의 문학적 평가는 후일로 미루어 두었다. 단, 개별 작품이지만 「조선의 잔다르크 월이」는 고성의 문학콘텐츠로 활용되고 있기에 다루었음을 밝혀둔다.)

## 제 3장 고성의 언론

### 제 1절 한국의 지역언론과 고성신문의 태동

한국 언론 100년사를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한국 언론은 비정상적인 발전을 해왔다.

즉 선진 외국의 경우 지역지, 지방지 등에서 전국지로 발전해온 반면에서 한국에서는 서울 및 대도시 중심의 전국지 및 지방지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제 21세기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소도시 및 군 읍 단위의 지역 언론 발전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한국 지역신문은 이제 갓 25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신문들이 비정상적인 소유구조에서 저널리즘과 경영, 그리고 광고 및 판촉 활동을 보이고 있다.

지역 언론은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짧고, 가장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언론 분야이긴 하지만,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앙 일간지와 방송 못지않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지역신문이 비록 규모는 작더라도 자신들이 발행되고 있는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1. 지역언론의 역할과 의미

원래 언론은 정보전달, 사회감시 및 비판, 오락 제공이라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사회 시민들의 삶에 오리엔테이션을 주고 가치 정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발전이 필수불가결하다.

지역 언론은 지방주민들에게 사회적인 오리엔테이션, 개인적인 정체성 및 뿌리, 사회적 통합, 출신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2. 지방자치와 지역언론의 관계

지역사회의 발전은 지역언론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즉 지역사회는 지역언론이 발전하는 기반이 되는 한편, 지역언론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제도인 지방자치제는 국가권력을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전환시켜 자

치구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체제를 최대한 활성화하고 자립능력과 자율성을 극대화해 지역사회 및 지역언론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장치로 이해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은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며 또한 지역언론의 활성화 없이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이를 발전시켜 나갈 지역언론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신문 매체의 발전과 함께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 점차 발전해 온 서구의 지역신문과는 달리, 한국의 지역신문은 한국정치의 최 근대사의 역동 속에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한국의 지역신문은 1988년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25년이 조금 넘는 2014년까지 등록 신문 수로 본다면 거의 538개로 늘어났다. 지역신문의 이러한 양적 증가는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운동과 199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 시대와 깊은 연관이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발행한 2014년 기준 등록현황에 따르면 일간지 374개 주간지 3천289개이다. 인터넷신문은 5천950개가 등록돼 있다.

## 제 2절 고성신문의 태동

고성신문은 1948년에 처음 발간됐다. 당시 이종수 민족청년단고성군단 부단장이 주축으로 고성신문 발간의 당위성과 계획서를 만들어 제헌국회의원인 이구수 의원을 찾아가 상의하니 대찬성이라며 자신이 판권획득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공보처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1948년 8월 하순에 발간 허가를 받았다.

### 1. 초대 이구수 국회의원 발행인 맡아

발행인-이구수 주필 겸 편집인-이종수 인쇄인-강한형(정문사 사장)씨가 맡았다.

지면은 타브로이드 판형 4페이지로 1948년 9월 하순 첫 호가 발간됐으며 매주 토요일에 배부됐다. 발간부수는 매호 1천부로 최초 구독료 없이 무료로 배포됐다. 지역의 독지가들의 협찬금으로 충당해 신문을 발간했다.

### 2. 고성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

광복 후 어수선했던 정국 속에 고성신문이 발간되면서 일반 청년들 중 민족진영 전향자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무질서 속에서 불안했던 민심도 점차 평온을 되찾는데 영향을 주었다.

당시 이종수씨는 민족청년단 고성군단 부단장을 맡고 있었고 대한반공연맹 고성군연맹

공작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부산 대청동 미국공보원에서 시사영화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그 영화 제목은 ‘자유언론’ 이었으며 영화의 주요내용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정책의 굴레를 벗고 독립을 쟁취하는 유일한 길은 미국시민들로 하여금 정의의 독립투사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 방법으로 신문을 만들어 그 지면에 자주독립의 당위성과 효율적인 투쟁방법에 관한 진리와 이론을 신는 것으로 타브로이드판 한 장에 실린 주간신문은 많은 시민의 머릿속에 인식될 수 있다는 피터젠가의 독립투지를 담은 영화 내용이었다. 피터젠가는 ‘모든 사람은 펜촉에 잉크를 묻혀 원고를 만들지만 나 피터젠가는 내 몸속의 피를 뱉아 펜촉에 묻혀 원고를 쓴다’ 며 미국 독립의지를 부르짖었다.

이 영화를 본 이종수 씨는 동지들과 의논하고 힘을 모아 고성에 신문을 창간하여 공산주의에 이기기 위한 실질적 투쟁방법을 바꾸기로 하고 주간고성신문의 발간동기가 됐다.

### 3. 21호까지 발간하고 중단

제헌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구수씨를 지지하여 당선시킨 일부 청년단 간부들이 당시 선거 운동 경비의 부채청산이 불가능하면 신문판권을 넘기라는 압박에 못 이겨 그들에게 발간권을 넘겨주게 되고 21호를 끝으로 발간이 중단됐다.

## 제 3절 제2의 고성신문 창간과 지역신문의 르네상스

### 1. 주간 고성신문의 재탄생

고성신문은 1991년 7월26일 제6공화국의 언론자유정책과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다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창간됐다. 특히 지방자치화시대에 지역신문의 역할은 또다른 기능과 언론문화를 창조해 내는 중요성을 갖게 됐다.

제호 고성은 군 지명을 따 지역주민의 신문임을 강조했다, ‘찾는 신문’ ‘읽는 신문’ ‘함께 하는 신문’ 을 사시로 정론직필로 언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김중래 발행인이 초대 고성신문 사장에 취임, 당시 타블로이드판형 8면 8천500부를 격주간 발행됐다. 논설위원에는 조현식 씨를 비롯한 김화홍, 제종길 씨가 선임됐으며 편집국장에는 김을성 씨가, 취재부장에 조연구 기자가 맡았다. 취재차장은 김관호 씨가 기자에는 이옥철 김경화 박옥 마일도 최정학 씨가, 이정림 교정기자가 근무했다.

고성신문은 격주 간 발행돼 재미국 150부, 재일본 70부, 서울 2천500부, 재부산 1천부, 울산 1천500부, 창원 200부, 마산 150부, 통영 100부, 거제항우들에게 300부를 보내고 고성지역에 2천500부가 발송됐다.

고성신문 후원을 위한 26명의 운영위원회가 결성돼 운영됐다. 김광열 법무사와 옥치규 고성군 육상연맹 회장이 운영위 부회장을 맡았으며 사무국장은 황수갑 고성군체육회사무국장(고성군의원)이 역임했다. 박형갑 남산약국약사, 조경문, 김오현, 최문주, 박기태, 신우홍, 남진현, 김충길, 황진실, 제정인, 정순성 씨 등 26명의 운영위원이 고성신문을 위해 물신양면으로 후원하기도 했다. 그 이후 재정악화로 1995년 10월 고성신문이 휴간하는 아픔을 겪었다.

■ 고성신문 제1대 운영위원(1991년 7월-1995년 10월)

직 위	성 명	근무처
회 장	김 종 래	고성신문 사장
부회장	김 광 열	김광열법률소장
	옥 치 규	영생건설 전무이사
감 사	박 형 갑	남산약국 약사
	김 종 성	대흥수도 대표
사무국장	황 수 갑	고성군체육회 사무국장
운영위원	이 중 찬	무학장 대표
	신 우 홍	충무시 삼우수산 대표
	조 경 문	전고성농협조합장
	남 진 현	우성교통대표
	최 연 출	수산업
	김 충 길	고성축협조합장
	김 일 성	백설카페 대표
	강 수 진	수산업
	박 기 태	대신전기 대표
	박 연 옥	축산업
	황 진 실	미보항약국 대표
	백 천 만	백천만보신원 원장
	김 형 찬	원세차장 대표
	최 재 봉	고성터미널 전무
	김 오 현	고성산업 대표
	정 형 성	현대주유소 대표
	제 정 인	제정인내과의원장
	김 외 수	수산업
	방 장 수	선화횃집 대표
	최 문 주	바르게살기고성군협의회장
최 효 중	산죽암횃집 대표	

## 2. 새 고성신문 발간과 고성신문 통합

1997년 11월 28일 새고성신문이 고성시장 상가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다시 발간되면서 발행인에는 김상수 사장이 취임했다.

휴가중이던 고성신문이 1997년 12월 20일 김상진 씨가 발행인으로 복간되어 고성지역에 2개의 지역신문이 발간되는 시기를 맞았다.

1998년 7월 1일 고성신문과 새 고성신문이 통합해, 발행인에 김상수 씨가 하현갑 한산신문 고성주재기자가 고성신문에 영입되어 편집국장을 맡고 황수경, 김대진, 공병권, 최현화 취재기자와 이은미, 김미정 편집기자가 타블로이드 8면-16면을 칼라로 매주 발간돼 고성신문이 새롭게 출발했다. 이 당시 명성건설 박재하 사장의 후원으로 명실상부한 지역신문으로 자리잡아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제3대 김상수 발행인이 4년간 운영해 오던 고성신문은 2002년 1월 김성규 사장이 제4대 고성신문 발행인에 취임했다. 고성군청 앞 성내리 48-11 정하빌딩 3층에 사무실을 내고 기존 타블로이드이던 판형을 일간지와 같은 배판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신문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2013년 2월 제5대 강덕희 사장이 취임하여 사무실을 남산로 21번지로 이전해 발간해오다 2015년 5월 13일 제6대 하현갑 사장이 취임해 성내로 123-12 JB빌딩 3층에 사무실을 매입해 이전했다. 기자출신의 새로운 발행인과 황수경 취재부장이 편집국장으로 승진해 알찬 지역소식을 전해오는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김민지(홍점) 광고관리부장과 취재부에는 황영호, 박준현 기자와 편집부에는 이연희 기자가 근무하고 있다. 고성신문 시민기자회가 12년째 결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지면평가위원과 학생기자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 ■ 고성신문 역대 사장 현황(2015년 기준)

제 1 대	김종래 사장(1991년 7월-1995년 10월) 편집국장-김을성
제 2 대	김상진 사장(1997년 12월-1998년 7월)
제 3 대	김상수 사장(1997년 11월-2001년 12월) 편집국장-하현갑
제 4 대	김성규 사장(2002년 1월-2013년 1월) 편집국장-하현갑
제 5 대	강덕희 사장(2013년 2월-2015년 4월) 편집국장-하현갑
제 6 대	하현갑 사장(2015년 5월-) 편집국장-황수경

제6대 하현갑 사장이 취임하면서 주주 및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주주에는 최경

훈 고려노벨화약 대표와 김영홍 대화항공 대표, 박성현 대신전기, 박재하 명성건설 대표, 광태영 태창이엔지 대표, 송무석 삼강엠엔티 대표, 이현문 신안건업 대표, 오경기 하나방송 대표, 장도선 고성중공업총괄본부장이 맡고 운영위원회는 최칠관 노벨cc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박기태, 김영홍, 송무석, 박재하, 광태영, 이현문 씨 7명이 맡았다.

고성신문은 2013년부터 문화관광체육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와 2011년부터 경남도지역신문발전위 우수신문사로 선정되는 등 지역신문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김열규 계명대 석좌교수와 심의표 KBS 남북교류협력단장, 제재형 한국일보기자, 정출도 동아일보기자, 이상근 경남대교수, 이상욱 창신대 교수 김화홍 전 중앙고교장, 이진만 철성중교사, 황진실, 강인 약사 황종욱 고성오광대보존회 사무국장, 김남철 씨 등이 논설위원에 위촉됐다. 또한 고성신문 주부기자와 학생기자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 일본, 미국 등과 군민 출향인에게 고향소식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그동안 고성신문은 지역민의 화합과 출향인들의 고향사랑을 이끌어내는 작은 역할을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동호조성관련 보도, 송학고분군현장취재, 당항포 세계평화 공원건립의혹, 야철지, 사직단 터 발견,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보도 등 크고 작은 지역현안문제를 특종 보도하는 등 지역신문의 소명을 다해 오고 있다.

■ 고성신문 제2대 운영위원(2015년)

직 위	성 명	근무처
대표이사	하현갑	고성신문 사장
운영위원장	최칠관	노벨cc 회장
상임위원	김영홍	대화항공 대표
운영위원	박기태	대신전기 대표
	송무석	삼강엠엔티 대표
	박재하	명성건설 대표
	광태영	태창이엔지 대표
	이현문	신안건업 대표

3. 고성미래신문, 고성시사신문, 고성인터넷 뉴스, 고성타임즈, 고성뉴스, 고성굿데이뉴스

2009년 고성미래신문이 창간되면서 고성지역에 2개의 지역신문이 발간되었고 고성인터넷

뉴스가 처음으로 인터넷소식을 전하면서 지역언론의 르네상스를 맞는다. 2014년에는 고성 지역에 인터넷신문이 고성타임즈(대표 구성옥), 고성뉴스(대표 양기성), 고성굿데이뉴스(대표 김대진) 등 4개나 늘어나게 된다.

고성미래신문은 하태호 사장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다 군수출마 이후 김윤호 대표가 제2대 사장을 맡게 된다. 이후 고성시사신문 류정열 편집국장이 고성미래신문사를 인수해 제3대 대표에 취임하여 고성시장 한솔메르빌상가에서 고성읍 동외로 156번길 46번지에 사무실을 이전해 지역소식을 전하고 있다.

#### ■ 고성미래신문 역대 사장 현황(2015년 기준)

제1대	하태호 사장
제2대	김윤호 사장
제3대	류정열 사장

#### ■ 고성시사신문 사장 현황(2015년 기준)

고성시사신문은 2012년 2월20일 창간했다. 제1대 대표이사(발행·편집인)에는 양기성 씨가 맡고 류정열 씨가 편집국장을 역임해 매주 금요일 1천500부를 발간했다. 2013년 8월 05일 제2대 대표이사(발행·편집인) 김윤호 씨가 취임해 고성읍 성내리 53-5번지에 사무실을 내고 5천부를 발행하고 있다.

제1대	양기성 사장
제2대	김윤호 사장

#### ■ 고성인터넷뉴스 사장 현황(2015년 기준)

제1대	한창식 대표
편집인	김미화

고성인터넷뉴스는 2006년 9월 14일 개소했다. 고성지역에서 처음 인터넷 소식을 전하면서 실시간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나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면서 새로운 지역소식의 장을 열기 시작했다. 고성인터넷뉴스의 대표는 한창식 씨가, 편집은 김미화 씨가 맡아 고성읍 서외리 명성건설 2층에 사무실을 개소한 후 고성읍 중앙로 48번지 동외빌딩에 사무실을 이전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 제 4절 고언회 회원 명부(고성출신 언론인 명단)

연번	직책	성명	연고지	약력
1	회장	박진열	거류면	전)한국일보대표이사 현)환경TV미디어사장
2	고문	이청수	고성읍	전)KBS워싱턴총국장 전)KBS해설위원장 현)한국국제홍보협회(KIPRA)회장 현)관정이종환교육재단사무총장
3	"	이천수	고성읍	현)영남학원 이사장
4	"	최현열	동해면	전)롯데그룹고문 현)CY그룹명예회장 현)남북경제협력발전협의회이사장
5	"	허태학	대가면	현)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총동창회부회장 현)대한민국ROTC중앙회부회장 현)한국능률협회부회장
6	"	김형오	고성읍	전)18대전반기국회의장 현)부산대학교석좌교수 현)백범김구기념사업회회장
7	"	허태열	마암면	전)국회의원 전)청와대비서실장
8	"	허원재	마암면	전)제18대국회의원 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현)부산진구갑총선출마
9	"	제재형	대가면	현)대한언론인회명예회장 현)국민일보비상임논설위원
10	"	이상갑	마암면 신리	전)한국방송공사보도본부해설위원 현)고성신문논설위원(언론학박사)

연번	직책	성명	연고지	약력
11	"	정기정	하이면	전)마산MBC사장 전)대한언론인회감사
12	"	정종표	대가면	전)한국방송공사보도국전문기자 전)KBS총국장 (주)고려노벨화약고문
13	"	최연근	마암면 화산	전)KBS국장 현)시조시인 주식회사연합조경회장
14	"	심의표	대가면 평동	전)재경고성향우회회장(전고연회회장) 전)KBS비즈니스감사 주식회사다함커뮤니케이션회장 뉴스통신진흥회이사
15	회원	허도학	대가면 암전	전)경남신문KBS사회교육방송논설위원 현)GH인문정치연구소장
16	"	허의도	마암면 초선	전)포스코경영연구소전무, 경영자문위원 전)이코노미스트대표 현)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17	"	이동한	마암면	현)조선일보 총무국 국장
18	"	최형두	구만면 화립	전)국회대변인실대변인 전)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실홍보기획비서관 현)경기 의왕 · 과천총선출마
19	"	박정원	대가면 지동	전)조선일보기자 현)월간산부장
20	"	유명렬	고성읍	현)국민일보 편집부 차장

연번	직책	성명	연고지	약력
21	"	심평보	회화면 산북	전)민주일보정치부기자 전)사이버정치마당편집장 현)한국캐릭터협회부회장
22	"	황명문	고성읍 이당	현)CBS 기획조정실매체 정책부장
23	"	최익림	마암면	전)겨레신문전략사업국국장 현)한겨레신문애드국기획담당부국장
24	"	박영암	거류면 용산	전)머니투데이정치부장 현)뉴스핌에디터겸금융부장(부국장)
25	"	최형철	개천면	현)한국일보 스포츠부 부장
26	"	허영한	마암면 간사지	현)조선일보 멀티미디어 영상부 차장
27	"	이상권	고성읍	현)경남신문 정치부 부장
28	"	김동욱	고성읍	현)TV조선 편집부장
29	"	황진영	고성읍 이당	현)동아일보 산업부 기자
30	"	강기택	동해면 입암	현)머니투데이 경제부장
31	"	문수인	고성읍	현)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기자
32	"	조상인	고성읍	현)서울경제신문 기자
33	"	장원수	하일면 임포	현)인터넷한국일보 뉴스본부 부장
34	"	이기철	하일면 수양	현)서울신문 국제부장
35	"	정연욱	하이면	현)채널A 보도본부 본부장
36	"	백승민	영현면 봉발	현)조선일보경영지원국 회계부장
37	감사	최영재	마암면 독골	현)뉴스아시아투데이 정치부 부장
38	기타	성중기	동해면	현)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9	기타	배만호	마암면	현)고성신문 서울본부장

## 제 4장 고성의 체육

### 제 1절 고성군 체육의 발달사

#### 1. 일제감정기 근대체육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1910년대 무단적으로 행해질 때 우리 민족운동의 조건은 점차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민족주의 체육활동 또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는 민중의 저항은 가슴속에서만 불타고 있었고 이러한 조건 아래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식민지 민중의 일제에 대한 저항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운동경기를 통해서였다.

이 시기의 민족주의 체육활동은 첫째, 근대적 스포츠를 정상적으로 수용하여 민족의 체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YMCA의 체육활동과 둘째, 근대적 운동경기가 모두 일인에게 독점된 상황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경기인 활쏘기, 그네뛰기, 씨름경기 등의 부활을 통해 민족주의적 체육활동을 유지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셋째, 구체적인 운동경기에서 일인선수들을 제압함으로써 식민지 민중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흐름이었으며 넷째, 동경 유학생들의 민족주의적 체육활동으로 나타난다.

먼저 YMCA의 체육활동은 한말 때부터 매우 활발했는데 일제하에 들어서면서 다른 조선인 체육단체가 대부분 침체된 것에 반해 계속 체육활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간 유일한 단체였다. 이 당시 YMCA는 1908년 서울 명물 YMCA회관이 개관되고 새로운 지도이념을 수립하였다. 그것은 첫째, 청년조직체이고 둘째, 교육기관이며 셋째,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넷째, 애국애족의 정신함양 다섯째, 국력배양의 기본적 자세 여섯째, 민족자립정신과 각오 등이었다. 그러므로 YMCA는 1910년 이후 민간 독립운동단체가 해체되고 강압정치에 오갈데 없이 된 애국지사들이 대거 영입되어 그야말로 민중의 연합세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YMCA가 실시한 운동에는 야구, 농구, 배구, 축구, 육상경기, 유도, 군사훈련 등 각종 프로그램이 있었다.

따라서 이 당시의 YMCA 체육활동의 의의는 첫째, 우리나라에 순수한 체육을 장려 보급하였고 둘째, 한일합방으로 인해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YMCA에 가입하여 무단통치하의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어, 그 지도이념이 체육을 통한 애국운동의 본산이 되게 함으로써, 식민지 백성인 한민족에게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에서 민족주의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로, 민족 고유의 경기인 궁술 씨름 등의 전통적 민속운동경기의 부활을 통해서도 민족의식을 고양하고자 하였다. 합방 후 일제는 운동경기를 식민지 지배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운동경기의 주도권을 찬탈하고 민족주의적 성격이 짙은 민속경기를 탄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민족전통 경기 부활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단결을 도모하였다. 이들 민족전통 운동경기에 대한 관심은 이미 구한말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었지만, 1910년대에 매우 크게 일어났다. 그 가운데 활쏘기는 1916년 4월 30일에 조선궁술연합대회로까지 발전하였다. 특히 궁술은 조선 고유의 상무정신을 진작시키고 문무를 겸비한 국민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되는 면이 있었다. 또한 심신수련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오락으로도 적합한 운동이었던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궁술대회는 단지 전통적인 무예의 부활이 아니라 근대적 체육정신이 바탕이 되어 새롭게 부활된 것이다.

셋째, 운동경기를 통해서 일본 선수들을 제압함으로써 민족적 우월감과 울분을 달래는 흐름이었다. 1913년 4월에 열린 자전거경주대회는 인천, 서울, 부산, 평양 등 4곳에서 일본에서 건너온 10명의 선수를 포함한 1백 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경주대회 중 평양에서 열린 대회에는 관중이 2만 5천명이나 운집하는 성황을 이루었고, 이 경주대회에서 일류(一流)의 일본 선수를 물리치고 한국인 엄복동이 우승하였다. 엄복동은 이 경기 외에도 1913년 11월 4일 서울에서 열린 자전거 경주대회에서도 우승하였다. 따라서 신문에서도 엄복동은 자전거대왕으로 숭상하면서 식민지 민족적 영웅이라고 열광적인 성원을 보냈다. 이 자전거 경주처럼 일본인과 조선인의 대항경기가 훨씬 더 관심이 집중되고, 조선인의 승리에 대한 응원이 열렬했던 것은 무단통치로 인해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민족적 긍지와 우월감의 표현을 가장 고개적인 장소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식민지 민중이 일제에 저항을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재일 한국인 유학생의 스포츠 활동에서도 민족주의적 체육활동을 볼 수 있는 데 한일합방을 전후로 일본으로 유학하는 학생들은 일본에서 대한학회(大韓學會), 태극학회(太極學會), 공수학회(供修學會)등을 통합하여 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를 결성하였는데 이들의 체육사상은 체육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근본으로 인식하고 미국의 사회체육소개, 체육시설의 건설 등 체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본으로 인식하고 미국의 사회체육소개, 체육시설의 건설 등 체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였다. 스포츠 활동은 운동회, 일본 국내의 경기대회에 참가, 본국에의 원정시합을 거행하였고, 운동회는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행해졌는데 그 내용은 오늘날의 육상경기와 같은 것으로 운동회가 끝난 뒤에는 운동가, 애국가, 군가를 제창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의 민족주의 체육활동은 첫째는 근대적 스포츠를 정상적으로 수용하여 민족의 체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YMCA의 체육활동과 둘째는, 근대적인 동경기가 모두 일인에게 독점된 상황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경기인 활쏘기, 그네뛰기, 씨름경기 등의 부활을 통해 민족주의적 체육활동을 유지 보존하려는 움직임이었고 셋째, 구체적인 운동경기에서 일인선수들을 제압함으로써 식민지 민중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흐름이었으며 넷째, 동경유학생들의 민족주의적 체육활동은 민족주의 활동이 비밀결사의 형태로 잠복한 시기에 일제의 총량한 신민 향성을 거부하는 비타협적 노선의 민족주의에 영향을 받아, 국권회복의 기초로서 민중의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 경기보급과 구체적 운동 경기에서 일본인을 제압하여 조선인의 기상을 드높이는 것 등을 통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 수단이 될 수 있었다.

3.1운동은 일제침략에 반대한 거국적인 항일운동이었다. 1910년대 식민지 기본정책인 무단통치에 대한 지배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한 민족분열정책으로 지배방침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이시기의 민족주의 체육활동의 두 가지 큰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첫째, 우파계열의 체육을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민족 전체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민족이 건강한 민족으로 개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우파계열의 민족주의 체육활동은 동아일보가 주도하여 이끌어 나갔으며 3.1운동 이후 민족주의 체육사상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둘째, 사회주의자들의 계급적 입장의 체육을 강조하는 흐름이다. 이들은 당시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으로 체육을 장려하는 정책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하였다. 이것은 체육장려 정책에 휩쓸리는 민족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민족을 보존하고 식민지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점이라 하겠다.

먼저, 언론기관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체육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체육의 발달 여하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인식하에서 당시 체육사상은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1920년대의 신문이나 잡지에 나타난 체육 관련기사 중에는 민족의 신체적 건강과 민족의 자강개혁사상을 고취하고 민족적 단결을 꾀하였고 한국인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 한민족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었고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장차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쟁취하려는 커다란 활력소가 되었다. 이와 같이 잡지와 신문을 통한 민족주의 체육활동은 신체의 활동을 경시한 유교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심신단련의 체육을 고취하는 자연적 인간발달의 근대화를 촉진하는 역할과 더불어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둘째, 민족 전통경기의 보급은 씨름과 활쏘기로 3.1운동 이후에 민족주의적 스포츠로서

더욱 장려되었다. 이는 우리 민족이 나라 빼앗긴 슬픔을 고유한 전통 속에서 잇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일체와 우리가 결코 일시동인(一視同仁)이 되지 못함을 재천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의 고유 명절인 단오를 기해 씨름대회를 열거나 윷놀이 등 민속경기를 개최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동아일보는 씨름, 궁술대회 등을 통하여 조선적 민족체육의 부흥을 꾀하고 1920년대에 와서는 민족주의 체육활동의 체육관을 가지고 민족주의 체육이 국가적 발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역설하고 그 사회에 민족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가 체육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궁술은 국민의 고유한 정신을 배양하고 국민성을 고양하는 민족주의적 스포츠로서 적극적으로 그 의미가 평가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 전통경기의 보급은 일체에 대한 저항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위당 정인보가 ‘조선의 얼’을 강조한 것이나, 단재 신채호가 ‘화랑도’를 강조한 것은 모두 이러한 성격을 반영한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체육사상에서도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강조하고 이것을 민족적 운동 경기로서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셋째, 이러한 민족 전통경기의 보급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이 본격화 되는 시기를 맞아 우리 민족 독자적인 체육 기관을 결성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일이었다. 이는 이제까지 일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우리나라 체육계를 우리민족 독자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과 체육기관의 필요성으로 설립된 조선체육회는 1920년 7월 13일에 창립되기에 이른다. 조선체육회는 “조선인의 체육을 지도 장려함”을 목적으로 삼고, 첫째, 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선전 둘째, 체육에 관한 도서 발행 셋째, 체육에 관한 각종 경기대회의 주최 및 후원 넷째, 기타 체육회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 등의 활동을 행하는 것을 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조선체육회는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대대적 지원에 따라 전국 규모의 각종 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조선체육협회를 능가하는 체육단체로 성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육을 통하여 민족이 독립성취를 외부적 원조에 기대하기 보다는 민족 내부의 정신력의 단결과 민족향상의 기본 문제를 온 국민의 강력한 체력배양에 있음을 자각하고 첫째, 체육단체를 결성하여 조직적인 체육활동을 전개하고자 했으며 둘째, 민중의 체력 증강을 통해 일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국민체력의 증강을 도모하여 우리 민족의 여러 독립운동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민족주의 체육의 주류를 형성하였고, 체육을 민족주의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체육활동을 통하여 민족운동의 유리한

조건을 창출해 내고자 한 것에서 그 의의를 들 수 있다.

1929년 이후 몰아닥친 세계 경제 공황으로 자본주의의 위기가 가속되면서 파시즘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일본 제국주의 역시 경제 공황으로 인한 위기를 전쟁과 파시즘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또한 일제는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파쇼적인 탄압을 가하였으며, 민족적 색채를 띠는 활동이라면 아무리 온건한 것이라 해도 일체 허용하지 않았으며, 한국어문 출판물을 폐간시켜 민족운동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민간지를 없애고 말았다.

그 반면 한민족에게 일왕숭배사상을 주입하여 한인의 일본화를 기하는 민족말살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일제는 이 과정에서 한민족의 저항과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친일파는 대거 이용하였으며, 민족운동의 지도급 인사들에게 친일행위를 강요하였다. 그에 따라 일제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친일의 길로 나서는 자들이 늘어났다.

그 예로는 이광수, 최남선, 윤치호 등 일부 적극적인 친일인사는 자발적으로 친일단체를 조직하여 전쟁과 파시즘의 정당성을 설명하거나 지원병, 징병 등 여러 정책에 조선 민중이 적극 협력하도록 독려하기도 하였다.

조선에만 적용되는 법령으로 1936년 “조선사상법 보호관찰령”을 만들어 반일운동자라는 이른바 요시찰인을 상시 감시하고, 1938년에는 사상운동 전력자의단체로 “조선사상보국연맹”을 만들어 집단 감시하고, 1940년에는 “사상법 예비구금령”을 내려 반일운동 혐의자를 예비 구금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처절한 탄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운동은 질식하여 비타협의 소극적 반항조차 힘들게 되었으니 모든 운동은 지하로 들어가 은신함으로써 체포를 면하는 길을 찾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민족이 체육을 통한 민족정신의 고취, 민족문화의 발달, 반일의식의 양양 등을 감지한 일제는 민족말살의 통치방식 하에 우리의 강력한 민족지였던 동아일보를 폐간하고, 체육단체의 해체와 강력한 단속책을 자행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민족주의 체육의 존립기반은 완전히 말살되었으며, 이에 대한 저항도 기존의 체육단체의 활동이나 운동경기를 통한 민족정신의 고양으로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우연한 기회에 폭발되어 일제에 항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일제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 조직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다양하게 전개 된다고보다는 일시적이고 치열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민족주의적 체육의 조직적 역량의 파괴에서 비롯되는 것임과 아울러 일제 탄압의 가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일제의 이와 같은 탄압에 대하여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투쟁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유억겸과 김신실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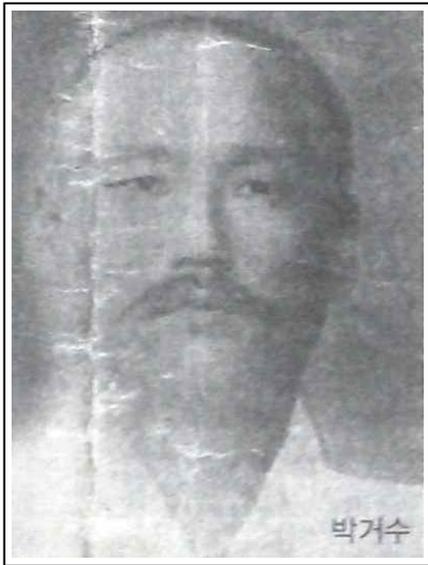
유억겸은 조선체육회의 창립 발기인으로 조선체육회 창립 당시부터 민족주의적 체육활동을 하였으며 1937년 5월에 조선체육회 회장에 취임하여 일제에 의해 강제해산 될 때까지 회장으로 있었다. 그는 조선체육회가 강제 해산되기 이전인 1934년 신흥우를 중심으로 흥업구락부(興業俱樂部)를 결성하여 조선인의 체력을 증강하는데 힘을 쏟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38년 7월 조선체육회가 강제 해산되고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일제의 감시인물이 되었다. 1938년 2월 24일 서대문 경찰서 고등계형사가 연희전문학교와 이화여자전문학교 도서관을 수색하고, 소위 적색도서(赤色圖書)라 하여 수백 권을 압수하는 한편, 흥업구락부에 대한 정치적 음모를 날조하여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 이 결과 신흥우, 윤치호, 유억겸, 최현배, 이춘호, 장덕수 등이 체포되었으며 유억겸, 이춘호, 최현배 등은 흥업구락부의 중심인물이었기 때문에 서대문 경찰서에 3개월 동안의 지독한 고문과 고초를 받았으며, 일본경찰의 강요에 못 이겨 경찰서 안에서 끝내 교수직에 대한 사임서를 내고 연전(延專)을 물러나고 말았다.

이 흥업구락부 사건은 애국적 지식인에 대한 탄압사건이었으며 그 중 주도적인 멤버로 참여한 유억겸은 민족주의적 체육을 지도했던 사람이었다.

민족주의 체육의 또 하나의 저항은 평양일곡 축구팀의 응원단 사건이다. 1941년 11월 3일 제 12회 명치신궁 국민체육대회 축구 일반부 결승전에서 평양 일곡(日穀)팀이 일본의 일립(日立)팀과의 대전에서 3:2로 우리가 이기자 기쁨에 넘쳐 재동경(在東京) 응원단이 스탠드에서 내려와 축의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11월 26일부터 5일간 거행 예정이던 제 22회 종합 축구대회를 폐지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 대표팀에게 일본팀이 지자, 그들은 소위 신성한 명치신궁대회의 위엄을 파괴했다는 것으로 우리의 체육대회를 무참히 탄압하였다. 이것은 체육을 통하여 체력으로나 기술로서나 일인을 제압하여 항일투쟁을 굳건히 전개하여 나가는 기틀을 두려워하였고, 일본인들을 철저히 압도한 것이 비위에 거슬려 이와 같은 체육의 탄압상을 보여 준 것이다. 또한 이 평양 일곡축구단은 조선체육협회(日人주도단체임)파견한 감독이나 축구 협회이사의 명령을 무시하였으며, 경기장에서는 감독에게 목례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민족적인 주체성을 가진 팀이었다.

1930년대에 들어와 일제는 민족 말살의 통치정책으로 동아일보 폐간, 각종 체육단체의 해체와 강력한 단속으로 우리 민족주의 체육의 존립기반은 완전히 말살되었다. 이에 대한 저항도 기존의 체육단체의 활동이나 운동경기를 통한 민족정신의 고양으로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개인이나 단체 활동 중이 우연한 기회에 폭발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 2. 일제감정기 근대체육과 더불어 고성체육회 발족의 의의



고성체육회의 효시 철성의숙을 세운 무량산인 박거수, 그는 누구였을까?

철성의숙은 고성읍 무량리에 사는 박거수가 1908년 사재를 털어 덕선리 선동마을에 설립한 학교로 1930년 폐교될 때까지 22년간 민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1887년 7월 6일(음력) 고성읍 무량리 173번지. 아버지 박진호와 어머니 유기계 사이에서 4남중 3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첫 이름은 익원 이었으나 뒷날 거수(居洙)로 고쳤다. 자는 성칙, 아호는 무량산인 또는 기전이었다. 주변에서는 기전선생으로 자주 호칭을 했

으나 정작 본인은 무량산인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그 이름을 반기고 즐거워했다. 선생이 태어나 지란 곳이 서쪽에 우뚝 솟은 고성의 진산인 무량산 자락이었기에 ‘무량산인’ 이었다고 한다.

1902년(광무 6년) 부친의 병환이 깊어지자 부친의 뜻에 따라 생전에 며느리 보기를 원하므로 17세 나이에 설정창 여사를 아내를 맞았다. 부친이 세상을 뜨자 3년 상을 마친 후 청운의 뜻을 품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가 학업에 열중했다고 하나 어느 학교인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일본에 머문 2년 동안에 일본의 선진문물을 접하자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그는 개화의 길은 곧 배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후쿠지와 유기치가 경응의숙을 세운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후 1908년(22세)에 고향 고성으로 돌아왔다. 그가 일본에 머물면서 깨우친 것은 ‘사람은 알아야 하고, 알아야만 사람다운 구실을 할 수 있다’ 는 육영의 신조였다.

그는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고성읍 덕선리에 집안의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고성의 옛 이름인 철성(鐵城)을 따서 ‘철성의숙’ 을 설립하였다.

철성의숙에는 그의 숙부이신 박진원을 초대교장으로 모셨고 선생 자신이 교감으로, 장질(큰조카)인 박상요와 덕선리 이관수를 학감으로, 평양에 있던 정주 오산학교 출신인 김정행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였다.

철성의숙의 대표적인 교육목표는 삼은(三隱)이었다. 삼은이란 국은(國恩), 사은(師恩),

부은(父恩) 즉 나라와 스승,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사 때마다 애국가를 불러 독립정신을 고취시켰으며 기미 3.1독립만세운동 후의 3.1절 행사로 소운동회를 개최하고 개천절(당시에는 음력 10월 3일에 거행)에는 대운동회를 갖고 가지각색(지금의 가장행렬을 포함)의 행사를 했다. 그때마다 전교생에게 시루떡을 나누어 주는 일을 잊지 않았다. 운동회 때에는 신호용 총으로 엽총을 사용하여 일제에 무언의 위협을 과시했으며 운동장 주변 독에는 무궁화를 심어서 민족혼을 고양시켰다.

선생은 고성 땅에 문맹(文盲)을 없애기 위해 철성의숙의 옛집에 야학을 열어 이를 직접 주도했으며 5년 후에는 무량리에도 야학을 하나 더 개설하였다.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그해 3월 15일 밤 덕선리 철성의숙의 교장 박진환과 박거수를 만나기 위해 한 진주에 사는 이주현이 찾아왔다. 후에 의열단(義烈團)에 가담하여 제1차 일본인 고위관리 암살과 파괴사건에 관련되었던 그는 자신이 찾아온 뜻을 밝히고 배만두와 이상은, 김상옥을 은밀히 박진환의 집으로 불러와 국내사정을 설명하고 고성에서도 독립만세의거를 결행할 것을 다짐한 후 독립선언서를 남겨두고 그는 돌아간다.

이주현이 돌아가자 박거수는 배만두 이상은 김상옥으로 하여금 거사를 3월 17일로 실행토록 막후에서 종용하는 한편으로 철성의숙과 박거수의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거사일에 몸종인 ‘에린놈(나이가 어리다고 붙인 명칭)’을 시켜 고성장터에 운집한 군중에게 나누어 준다. 고성읍 장터 독립만세의거는 고성읍 성내동에서 일용잡화를 운영하는 박효수의 철성상회에 지휘본부를 두고 진행한다. 이 철성상회(지금의 군청 앞 동산약국)는 고성 3.1운동의 본거지였던 셈이다.

거사는 마산가도, 통영가도, 진주가도, 대가가도 네 가도에서 한꺼번에 일으켰다가 장터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거리를 행진하기로 논의한다. 그러나 대가가도(철성의숙에서 읍내로 내려가는 길 - 덕선리에서 고성박물관까지의 거리)에서의 거사가 사전에 누설되면서 헌병들이 들이닥쳐 무산되었다. 결국 거사는 실패로 끝났으나 고성군내 구만면 등지의 3.1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거사 후에는 3.1독립만세운동의 주역들인 배만두, 이상희, 이진경을 독립운동에 매진하도록 이들을 당시 상해에 있는 그때 당시 운남기병학교 조교였던 이범석 장군에게 보내 군사교육을 이수케 한 후 광복군에 종사케 하였다.

무량산인 박거수는 경남 마산에서 이곳의 애국지사들과 의기투합하여 ‘원동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해산물, 곡물, 주단, 포목 등속을 도산매하고 수출하기 위한 회사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의 일부를 상해임시정부의 정치자금으로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1910년 고성체육회를 조직하여 초대회장을 맡았고 고성청년단과 신간회조직의 산과 역을 자임했다.

### 3. 일제강점기 고성군의 체육자료

일제강점기 고성의 체육자료를 살펴보면 1910년에 발족한 고성체육회가 주도함을 알 수 있는데 초기의 자료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대략 신문에 기재된 자료를 살펴보면,

- 동아일보 1922년 6월 22일

고성청년단체육부원정(固城靑年團體育部遠征)

고성청년단 체육부에서는 거 18일 사천청년회(泗川靑年會)와 정구(庭球)를 시합하기 위하여 17일 오후 1시에 30여인의 단원이 사천으로 출발.

- 동아일보 1922년 7월 1일

사천군정구대회(泗川郡庭球大會)

고성청년단은 체육부 주최로 정구단을 조직하여 6월 17일 30명의 단원이 도보(徒步)로 사천에 도(到)하여 익(翌) 18일 오전 10시 사천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사천청년단과 정구전(庭球戰)을 개(開)한 바 양군(兩軍)의 전략은 막상막하하여 관중으로 하여금 흥분을 야기(惹起)하더니 최후승리는 사천군(泗川軍)에 귀(歸)하였고 갱(更)히 고성군(固城軍)과 사천 재주인군(在主人軍)간에 시합이 역유(亦有)하였는데 우승은 고성군에 귀(歸)하였다더라.

- 동아일보 1922년 8월 18일

고성의 축구대회

8월 7일 오후 3시부터 고성공립보통학교 코트에서 고성학생운동구락부(固城學生運動俱樂部) 주최로 철성(鐵城)팀 1, 청년팀 2, 읍내학생팀 1이 상대로 교전(交戰)되었는데 기(其) 승부가 호상(互相) 일점이점(一點二點)을 다투어 관객 근(近) 천명의 박수가 부절(不絶)하더니 최후 철성군이 승리를 득(得)하고 오후 8시경에 산(散)하였다더라.

- 동아일보 1922년 11월 21일

육십리경주성적(六十里競走成績)

거월(去月) 28일 고성청년단 창립기념축하식의 여흥으로 축구 정구 마라손 경주를 2일간

거행하였는데 기중(其中) 특기할 것은 육십리의 장거리를 2시간 미만에 경주한 것인 바 각 선수별 능력을 견(見)하면 고성에서 삼십리를 격(隔)한 배둔시(背屯市)까지 1등 최익락(崔翊洛)군은 고성공립보통학생으로 왕복 1시간 55분을 비(費)하였으며, 2등 천두상(千斗上)군은 1시간 57분, 3등 김남도(金南道)군은 2시간, 4등 이재홍(李在洪)군은 2시간 5분, 5등 이순조(李順祚)군은 2시간 10분을 비(費)하여 왕복하였다더라.

▪ 동아일보 1922년 12월 13일

양청년축구경기(兩靑年蹴球競技)

고성청년단 용호군(勇虎軍)은 통영 신길운동구락부(新吉運動俱樂部)를 상대로 거 3일 오전 11시부터 고성공립보통학교 코트에서 축구시합을 하였는데 양군의 용맹과 위풍(威風)은 관중 수천으로 하여금 상찬(賞讚)을 득하였다 호상격투(互相激鬪)의 결과 우승기는 고성 맹호군(猛虎軍)에 귀(歸)하였고 뒤를 이어 정구가 유(有)한 바 통영군(統營軍)이 승(勝)하고 일모(日暮)산회한 후 고성청년회관에서 다과회를 개(開)하고 주객이 서로 환담(歡談)타가 야심(夜深)산회하였다더라.

▪ 동아일보 1923년 1월 10일

고사군축구전(固泗軍蹴球戰)

고성공립보통학교단과 사천학생단(泗川學生團)은 거(去) 4일 오전 9시 고성공립보통학교 코트에서 축구경기를 하였는데 관객은 무려 5백명에 달하여 성황을 정(呈)하였으며 우승기는 고성군의 수(手)에 낙(落)하고 오후 4시경에 산회하였다더라.

▪ 동아일보 1923년 3월 1일

고성체육회개최

고성체육회에서는 청년의 화목(和睦)을 도(圖)코저 2월 25일 고성축구대회를 철성의숙(鐵城義塾) 코트에서 개최.

▪ 동아일보 1923년 3월 1일

고통청년축구회(固統靑年蹴球會)

고성청년단과 통영청년단급 고성주지단은 2월 18일 고성공립보통학교 코트에서 축구를 시합하였는데 최후 승리는 통영단에 귀(歸)하였다더라.

- 동아일보 1924년 9월 16일

- 경남축구대회

고성용민군(固城勇敏軍) 주최 경남고성군 고성용민군 주최와 후원 본사분국(本社分局) 시대일보사(時代日報社) 고성지국 철성자전거점(鐵城自轉車店) 고성손살군 고성세진양화점의 주최로 9월 13일에 울천(栗川)운동장에서 개최코져 하였던 경남축구대회는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 내월 23일로 연기하였다는데 상세(詳細)는 여좌(如左)하다고.

- 시일 9월 23일 오전 9시부터

- 장소 고성 울천운동장

- 신입기(申込期) 9월 22일 정오까지

- 가입금 매(每)팀 2원씩

- 신입장소(申込場所) 시대일보 고성지국

- 추첨 9월 23일 오전 8시 어동아일보(於東亞日報) 고성분국

- 동아일보 1923년 10월 24일

- 고성청년기념경주(固城青年紀念競走)

거 18일 고성청년단에서는 창립3주년 기념으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선수 20명이 오전 9시 30분에 통영을 발하여 고성까지 60리여의 장거리를 경주하였는데 그 착통(着統)시간 급 인명은 여좌하더라.

- 동아일보 1925년 3월 16일

- 전고성축구(全固城蹴球)팀

경남 고성체육회에서는 금반(今般) 총회를 개최하고 금년에 경성조선체육회 주최로 개최될 전조선축구대회(全朝鮮蹴球大會)에 참가하기 위하여 고성으로 팀을 조직하기로 결의되었는데 그에 대한 비용은 6백여원 예산으로 하고 위원 박거수(朴居洙)씨는 1백50원, 다른 위원들이 백원씩을 부담하고 내21일에는 각단(各團) 대표가 회합하여 선수선발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고.

- 동아일보 1925년 3월 30일

- 고성올림픽조직

경성에서 개최될 전조선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고성체육회에서는 올팀을 조직한다는 함은 이미 보도한 바 어머니와 거(去)22일에 성내 박익수(朴翊洙)씨 상점에서 선수가 회합하

여 충분한 의논이 있는 결과 선수를 좌기(左記)와 여(如)히 선발하여 매일 연습중이라 하며 위원 제씨는 찬성금(贊成金)모집에 진력(盡力)중이라고.

이만우(李萬雨) 천두상(千斗上) 최대우(崔大禹) 최차범(崔次凡) 외 15명

▪ 동아일보 1925년 4월 28일

북(北)으로 북청(北靑) 남(南)으로 고성(固城) 참가 22단(團) 금일부터 전조선축구대회 조선체육회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의 반도 인사의 손꼽아 기다리는 체육회 전조선축구대회도 오늘 아침 여덟시부터 기 정한 정동(貞洞) 배재학교 운동장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축회대회에 참가한 단체는 청년단 여섯과 전문학교단에 일곱단과 중학단에 아홉단과 소학단에서 단체로 모두 스물두단체인데 이 중에는 멀리 함경남도 북청(北靑)과 경상남도 고성(固城)에서까지 참가한 성황을 이루었다.

▪ 시대일보 1925년 5월 15일

고성 궁술 대회

경남 고성에서는 좌기와 여히 궁술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개최일기: 5월 20일 오전 9시

입회금: 매인 1원

장소: 남산 사정(射亭)

주최: 고성남사정(固城南射亭)

후원: 동아일보고성지국, 시대일보고성지국

▪ 동아일보 1925년 5월 16일

궁술대회(弓術大會) 개최 고성에서

경남 고성군 남사계(南射契)에서는 수년 전부터 열심히 궁술을 연구하여 오던 바 대회를 개최한다는데 본사 고성지국 후원하에 시일 급 회비(時日及會費)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고.

시일 구(舊)4월 28일

회비 1인에 1원

장소 남산 남사정(南射亭)

주최 고성남사계(固城南射契)

후원 동아일보고성지국

- 동아일보 1925년 5월 31일

남선정구대회(南鮮庭球大會) 고성에서 개최

경남 고성청년단에서는 춘계남선정구대회를 시대(時代) 조선(朝鮮) 급 본보 각 지국 후원으로 개최한다는데 규정은 여좌하다고.

시일 6월 7일 오전 9시

장소 고성정구구락부 코트

신청기일 6월 5일까지

가입금(加入金) 3원씩

1단체 3조와 대표자 1인

- 동아일보 1925년 6월 1일

제1회 남선정구대회

시일 6월 7일 오전 9시부터

장소 고성구락부 코트

가입기일 6월 5일까지

가입금 매 단체(每團體) 3원씩

1단체 3조(組)와 인솔자 1인

주최 고성청년단

후원 시대 조선 동아 3일보 지국

- 동아일보 1925년 8월 5일

삼군축구(三郡蹴球) 학림유학생(鶴林留學生) 주최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에 거주하는 외지(外地)유학생 주최로 내8월 15일에 하일(下一)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남해(南海), 사천(泗川), 고성 3군 축구대회를 개최한다는데 가입금은 1단체에 1원 50전이라고.

- 동아일보 1925년 8월 21일

삼군축구대회(三郡蹴球大會)

고성군 하일면 유학생회 주최 학림(鶴林)청년단후원으로 남해, 사천, 고성 3군연합축구 대회는本月 15일에 개최되었는데 시간 전부터 몰밀듯이 운집하는 관람자는 수천 명에 달하여 입추의 여지가 없는 대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경기 중에 2인의 청년 외에 소년으로

조직된 고성읍내 바보단의 교묘한 연락에는 일반관람자의 경탄하는 바이었으며 당일 경기 성적은 여좌(如左)하다고.

▪ 동아일보 1925년 10월 1일

추석놀이

고성 경남고성에서는 내구(來舊) 8월 16, 17 양일간 동군 울천사장(栗川沙場)에서 매년의 예(例)와 같이 추석놀이를 이상욱(李相旭) 외 삼씨(三氏) 주최로 1)각희대회(脚戲大會)를 개최한다는데 상품은 여좌(如左)하다고.

대인(大人) 대우(大牛) 1두(頭)

총각(總角) 중우(中牛) 1두

소아(小兒) 삼성(三星) 1필(疋)

▪ 동아일보 1925년 10월 9일

고성각희대회(固城脚戲大會)

고성각희대회는 예정과 같이 지난 음(陰)16일부터 울천사장(栗川沙場)에서 개최되었는데 제1일에는 총각(總角)의 예선전으로 끝을 마치고 제2일에는 총각의 결승과 대인(大人)의 예선결승까지 마쳤는데 대인의 결승전이 시작하기 전에 결승전 방식에 대하여 각위(各位)의 물의(物議)가 구구(區區)하여 장시간 동안 토의하다가 결국 계속 개전은 되었으나 선수측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원성이 자자하였으며 모모(某某) 청년간에 언쟁까지 일어나 일시는 장내가 혼잡하게 되었다는데 금반의 수상자는 여좌하다고.

▪ 동아일보 1925년 11월 29일

최후 우승은 진주, 광림(光林)

남산축구대회(南鮮蹴球大會)

진주 원팀 대(對) 고성(固城)

진반 - 원래의 고성군(固城軍)은 필승을 기(期)하여 시작초부터 진주군(晋州軍)의 진지를 육박하여 골 1점과 성적 1점을 얻어 우세하다 진주군 분발하여 패널티에 골 1점을 얻었으나 고성군이 성적으로 1점을 승(勝)하다.

후반 - 진주군이 고성군의 진지를 수차 돌파하여 골 1점을 승 고성군 최후까지 역전(力

1) 각희:두 사람이 넓적다리에 살바를 걸어 서로 잡고 갖가지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먼저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우리나라 고유의 운동 경기. 현재의 씨름

戰)하였으나 그라운드외의 콘디션이 나빠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전중 타임오프가 되어 결국 골 2대 1로 승리는 진주군에 돌아가다.

▪ 동아일보 1927년 2월 4일

고성체육회 정총(定總)

고성체육회는 창립 된지 우금(于今) 5개 성상(星霜)에 사계(斯界)에 많은 장려(獎勵)와 실지(實地)를 밟았으며 따라 내용이 충실과 외규(外規)의 정연(整然)함은 남선(南鮮)에서 체육장려기관으로는 무난하다 할지라도 과언이 아닌 바 거1월 30일에 제7회 정기총회를 철성의숙(鐵城義塾) 강당에서 개(開)하고 좌기사항을 결의하였다더라.(고성)

사업성적 급 서무보고에 관한 건

결산 급 예산승인에 관한 건

위원개선에 관한 건

기타 중요사항

▪ 동아일보 1927년 9월 3일

고성각회대회

고성농민조합 주최로 팔월 추석을 기하여 각회대회를 개최하리라는데 1, 2, 3등까지 농우 1두(頭)씩을 준비하였다하며 기타 부상(副賞)도 불소(不少)하다는데 준비에 분망(奔忙)한만큼 예년보다 성황일 것을 예기한다더라.

▪ 동아일보 1927년 9월 18일

고성각회성황

경남 고성농민조합에서는 대중의 단결적 의식을 촉진하고 농민의 위안을 목적하여 고성 각회대회를 개최한다함은 기보한바 어니와 예정일인 거 11일은 우천(雨天)이므로서 하루를 연기하여 십이일부터 십삼일의 양일간을 두고 계속 개최하였는데 관람객이 많았었음은 명수(名數)의 한정을 하기 어려울 만큼 인해(人海)를 이루었고 이일만이 십삼일 오후 10시 30분까지 예선전을 마치고 동 40분부터 2회전이 시작되어 3회, 4회에 이르기까지 열중한 관중은 내리는 비도 피(避)치 않고 끝까지 헤어지지를 아니하였다하며 결과로 당선된 입등(入等)선수는 1등 통영군 도산면 범송리 김여기, 2등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 이현묵, 3등 동군 고성면 수암동 김준수, 4등 동군 동면리 김기태 등이라는데 당일에는 상장만을 수여하고 소정상품의 수여식은 구(舊) 8월 22일 오전 10시에 고성청년동맹회관에서 별도로 거

행하리라함도 기보와 같거니와 등외(等外)로 부상증(副賞證)을 받은 인사는 구(舊)9월 말 일내로 성내동 남상국(南相國)씨 철물점에 그 교환증을 가져가면 전기(前記) 기한이내에는 하시(何時)든지 기재상품을 급여하리라더라.

▪ 동아일보 1928년 9월 18일

고성체육회에서는 거 13일 오후 4시에 위원회를 철성의숙(鐵城義塾)에서 개하고 좌기 각 항을 결의하고 동회와 동일 명칭을 용하는 단체에 대한 질문위원으로 황응도, 구종근 양씨를 선거하고 동 5시에 폐회하였다더라.(고성)

남선각희대회(南鮮脚戲大會) 후원에 관한 건

본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에 질문에 관한 건

관북(關北) 수재구제(水災救濟)에 관한 건

▪ 동아일보 1928년 10월 8일

남선각희(南鮮脚戲)성황

고성농민조합 주최인 남선각희대회는 예정인 음 8월 16, 17, 18 연3일간을 진행하였는 바 남선각희대회란 규모의 큰 것만큼 각 군에서 참가한 역사(力士)가 운집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는데 수상자는 여좌(如左).

1등 김한순(金漢順), 2등 김억기(金億基), 3등 구순갑(具順甲)

▪ 동아일보 1928년 10월 22일

남조선축정구(南朝鮮蹴庭球)

고성청년동맹에서는 내11월 1일부터 연3일간 개최하는 고성물산품평회기를 이영하여 남조선축정구대회를 개최한다더라.

一. 남조선축구

일시 11월 2일부터 2일간

장소 고성철성의숙 코트

참가금 3원

선수 11인 후보 2인

상품 우승기

二. 남조선 개인 정구

일시11월 1일부터

장소 고성군 정구장

가입금1조(組) 1원

상품컵 2개와 여비(旅費) 5원

▪ 동아일보 1929년 8월 4일

남조선개인정구대회

주최 재마산고성학우회(在馬山固城學友會)

후원 고성청년동맹, 동아시아국(東亞支局)

▪ 중외일보 1930년 9월 18일

고성농조 주최 남선각희대회 구(舊)8월 추석에 개최

피땀으로 농사짓기에 바쁜 농민을 위로하기 위하여 경남 고성 농민조합에서는 연중행사의 하나로 오는 납월(臘月) 추석을 기하여 남선각희대회를 연다는데 다수 참가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일. 시일: 8월 16, 17, 18 3일간

일. 주최: 고성농민조합

▪ 동아일보 1931년 8월 22일

남조선개인정구대회

일시 8월 23일

장소 고성정구 코트

신청 8월 22일까지 동아일보사 고성지국

참가금 매조(每組) 1원(晝食을 포함)

주최 재부산 고성유학생학우회

후원 동아일보고성지국, 고성체육회

▪ 동아일보 1932년 9월 30일

남조선각회 고성에서 개최

경남 고성 본보 지국에서는 오는 10월 4일의 고성수립조합의 낙성식이 기회를 이용하여 남조선각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목하 준비 중에 있다는데 그 장소와 상품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장소 덕선리 사장(沙場), 상품 1등 금20금, 2등 금 10원, 3등 금 5원, 4등 금 3원, 5등 금 2원

주최 동아일보고성지국

후원 고성수리조합

▪ 동아일보 1932년 10월 1일

남선각희대회

시일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장소 덕선리 사장(沙場)

주최 동아일보고성지국

후원 고성수리조합

▪ 동아일보 1934년 9월 30일

남조선 각회 고성에서 개최

경남 고성에서는 재 고성 각 신문지국 연합 주최로 지난 24, 25 양일간 남조선 각희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는데 우승자의 씨명은 다음과 같다한다.

1등 부산 김재수, 2등 창녕 임중옥, 3등 고성 박삼★, 4등 고성 강문도, 5등 고성 구★갑

▪ 동아일보 1938년 4월 26일

전조선공술대회

장소: 고성 철성정(鐵城亭)

시일: 4월 29일 향(向) 3일

입회금: 1인 1원 50전

상품 : 1등 1인 40원, 2등 2인 40원, 3등 3인 45원, 4등 4인 40원, 5등 5인 35원, 6등 6인 24원

주최: 고성공도회

후원: 동아일보 고성지국

## 제 2절 경기종목별 활약상

### 1. 검도

□ 경기종목에 대한 설명 : 죽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가격함으로써 승부를 겨루는 투기 스포츠이다. 가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손목, 머리, 허리, 목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경기자는 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검도의 수련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처음에는 예절과 수련에 앞서 갖추어야 할 것을 배운다. 그 다음에 기본자세와 기본동작을 습득하고, 그뒤에 대전연습과 본연습(本練習), 그리고 시합연습에 들어간다. 기본자세에는 상단(上段)·중단(中段)·하단(下段)이 있으며, 각기 공격과 방어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다. 검도의 목적은 운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인격을 수양하며, 건전한 여가선용을 하는 데 있다.

□ 협회(연맹)의 설립년도 :

□ 협회(연맹)의 활동사항 : 고성군 검도저변확대 및 건전한 체육문화 선도

□ 협회(연맹) 기구표 :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직 책	성명	직업	비고
고문	최규범		
고문	심재술		
회장	김창호		
직전회장	구원석		
상임부회장	허동정		
부회장	유영민		
부회장	최현철		
부회장	최장호		
감사	강동희		
감사	하대홍		
전무이사	서무현		
총무이사	변부용		
이사	송호준		
이사	하석호		
이사	김태형		
이사	강문기		
이사	이재영		
이사	김상철		

직책	성명	직업	비고
이사	허태봉		
이사	김기동		
이사	김석원		
이사	강동석		
이사	김상배		
이사	김인석		
이사	이찬열		
이사	최인기		
이사	홍성조		
이사	강부용		
이사	김기훈		

□ 경기종목별 활약상

년도	주최	대회명	소속	입상자	부별	입상순위
2012	경남체육회	제51회 도민체육대회	고성군	고성군	종합	1위
2013	경남체육회	제52회 도민체육대회	고성군	고성군	종합	위3

## 2. 궁도

□ 경기종목에 대한 설명 : 일찍이 중국인들이 우리 민족을 일컬어 동이족(東夷族)이라 하였는데, 동의(東夷)의 이(夷)는 대(大)와 궁(弓)의 합성어로 “동쪽의 활 잘 쏘는 민족”이라는 뜻이다. 이는 우리 민족이 선사시대부터 활쏘기를 즐겨하고 궁시(弓矢)의 제작 기술이나 다루는 능력이 주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도는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슬기와 빛나는 얼이 깃든 자랑스러운 전통무예로서 삼국시대부터 국민을 훈련시키는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이를 통해 한민족의 용기와 진취적 기상을 배양함으로써 우리 겨레의 패기와 활달한 기상을 유감없이 발휘한 전통무예이다.

□ 협회(연맹)의 설립년도 : 1933년

□ 협회(연맹)의 활동사항 : 도민체육대회 참가, 고성군수기 전국대회개최로 고성군의 위상을 높임

□ 협회(연맹) 기구표 :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직책	성명	직업	비고
회 장	천명갑	상업	동광목재
부 회 장	최영진	농업	양봉업
이사	천대영		
이사	박정식	농업	돌밭농원
이사	김항룡	농업	

□ 경기종목별 활약상

년도	주최	대회명	소속	입상자	부별	종목	입상 순위
1965	대한궁도협회 (사천관덕정)	제8회사천문화제	고성군 (철성정)	단체전	일반	궁도	1위
1992	대한궁도협회 (거제계룡정)	독로문화제	고성군 (철성정)	단체전	일반	궁도	1위
1996	대한궁도협회 (남원관덕정)	문화체육부 장관기	고성군 (철성정)	단체전	일반	궁도	1위
1998	대한궁도협회 (통영열무정)	한산대첩기념제전	고성군 (철성정)	단체전	일반	궁도	1위

### 3. 배구

□ 경기종목(배구)에 대한 설명 : 직사각형으로 된 코트의 중앙에 네트를 두고 두 팀으로 나누어 공을 코트에 떨어뜨리지 않고 세 번안에 상대편 코트로 넘겨 보내는 구기 경기로서 6명의 선수가 네트를 사이에 두고 최종5세트를 제외한 나머지 세트는 최소2점을 앞선 상태에서 25점을 따낸 팀이 세트를 얻어 3세트를 먼저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국제식 경기와 9명의 선수가 최종3세트를 제외한 나머지 세트를 21점을 따낸 팀이 세트를 얻어 2세트를 먼저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극동식 경기가 있다.

□ 협회(연맹)의 설립년도 :

□ 협회(연맹)의 활동사항 : 배구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협회장기직장 및 사회단체배구 대회 개최, 고성군을 대표하여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생활체육 지원, 유소년배구 활성화 및 고성배구의 기반 확립을 위한 거류초등학교 배구부 지원.

□ 협회(연맹) 기구표 :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직책	성명	직업	비고
회장	강문호	회사원	
부회장	최재영	수의사	
부회장	백경훈	회사원	
부회장	고재갑	공무원	
부회장	김성수	공무원	
감사	김근수	자영업	
감사	김복상	회사원	
전무이사	정성용	회사원	
이사	구자춘	자영업	
이사	이광호	자영업	
이사	이종영	공무원	
이사	백인현	공무원	
이사	백수명	자영업	
이사	박춘근	자영업	
이사	선형재	공무원	
이사	강정환	회사원	
이사	김태용	자영업	
이사	송호준	자영업	
이사	김창국	공무원	
이사	허종훈	자영업	
이사	윤명식	자영업	
이사	윤수원	자영업	
이사	김낙문	회사원	
이사	강성웅	자영업	
이사	정정철	자영업	
이사	황동일	공무원	
이사	김주연	자영업	
이사	문기정	공무원	
실무이사	박석재	공무원	

□ 경기종목별 활약상

년도	주최	대회명	소속	입상자	부별	종목	입상순위

#### 4. 보디빌딩

□ 경기종목에 대한 설명 : 보디빌딩은 건강하고 근육이 우람하면서도 균형 잡힌 강한 체력을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 오늘날은 중량 기구를 사용한 것이 주체가 되어 바벨(역기)이나 덤벨(아령) 또는 서킷(Circuit), 익스팬더(Expander)와 같이 중량이나 저항에 의해 근육을 팽창, 수축시켜 근육의 굵기와 힘을 발달시킨다. 선수들의 심사와 채점에는 국제보디빌딩연맹(IFBB) 규정이 적용되지만 세부적으로는 대회마다 적절한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 협회(연맹)의 설립년도 : 1992년

□ 협회(연맹)의 활동사항 : 고성군 체육의 다양성 확보 및 선수육성을 통한 도민체전, 전국소년체전 등 각종 대회 참가를 통한 고성군민의 체위향상에 힘쓰고 있다.

□ 협회(연맹) 기구표 :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직 책	성 명	직 업	비고
고 문	최 재 봉		
	김 종 성		
	정 성 규		
	김 정 홍		
명 예 회 장	배 정 훈		
자 문 위 원	김 재 용		
직 전 회 장	배 정 구		
회 장	최 재 민		
부 회 장	문 성 복		
	심 재 출		
실무부회장	박 승 원		
전 무 이 사	임 기 열		
감 사	박 재 호		
이 사	이 문 조		
	이 판 석		
	배 기 완		
	박 상 근		
	이 동 철		
	김 주 연		
	이 창 근		
	문 영 일		

직책	성명	직업	비고
	김유성		
	김성일		
	이상동		
	정주녕		
	조용원		
	김태환		

□ 경기종목별 활약상

년도	주최	대회명	소속	입상자	부별	입상순위
2012	경남체육회	제51회 도민체육대회	고성군	고성군	종합	3위

### 5. 복싱

□ 경기종목에 대한 설명 : 제23회 고대 올림픽경기에서 복싱이 처음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1892년 글러브를 끼고 1라운드는 3분으로 하고 휴식은 1분으로 하며 다운이 되어 10초 이내에 일어나지 못하면 상대방의 승리로 인정하는 QUEENS BERRY의 규칙이 제정되었다. 1946년 AIBA가 영국 런던에서 발족하였고 1964년 전 세계의 복싱인구는 182개국에서 약 200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 협회(연맹)의 설립년도 : 1965년

□ 협회(연맹)의 활동사항 : 고성체육관 복싱관을 중심으로 건강한 체육활동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도민체육대회에서 꾸준한 상위권 성적으로 고성체육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 협회(연맹) 기구표 :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직위	직업 및 직책	성명	비고
회장	SK텔레콤 대표	우봉호	
부회장	상업	박재환	
	고성체육관	이종두	
	상업	김상배	
	상업	김종택	
전무이사	고성복싱체육관코치	김재현	
총무이사	금싸라기부동산대표	유남현	

직위	직업 및 직책	성명	비고
이사	신토불이대표	정혜정	
	풍미식당대표	김유동	
	회사원	서환법	
	상업	김권수	
	삼성디지털프라자대표	이동열	
	한국주유소대표	천정일	
	팔도샷시대표	전병천	
	굿모닝베이커리대표	강정호	
	대가토건대표	배정도	
	농업	박우용	
	농업	최운환	
	메이드대표	배정구	
	함지막도시락대표	이동철	
	동양농기계대표	이재준	
	매일용역대표	차성만	
감사	장영업	이석만	
	매일용역대표	김유철	
	대웅충전서대표	이철원	

□ 경기종목별 활약상

년도	주최	대회명	소속	입상자	부별	종목	입상순위
1997	대한체육회	제78회 전국체전	경남체고	백영현	고등	복싱	3위
2012	경남체육회	제51회 도민체육대회	고성군	고성군	종합	복싱	2위
2014	경남체육회	제52회 도민체육대회	고성군	고성군	종합	복싱	3위

## 6. 야구

□ 경기종목에 대한 설명 :

◦ 야구의 기원에는 두가지설이 있다. 그 하나는 13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크리켓이 라운더가 되고 이것이 발달되어 베이스볼이 되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19세기 전반경에 배트와 볼을 사용하는 놀이가 성행, 포코너즈(four corners)라든가 피더(feeder), 라운더즈 등으로 불리었다. 이것을 영국 이민이 미국으로 갖고 와서 미국 독립전쟁 이전에 동부 해안 지방에서 많이 하다가 19세기 중엽쯤에는 미국 각지에 보급, 발달되었다.

◦ 1830년에는 보스턴에서 라운더를 모방한 타운볼이라는 경기가 시작되어 3년 후에 필라델피아 및 뉴욕에서도 약간의 다른 타운볼을 하였고 이것이 발전하여 베이스볼이 되었다는 것이다.

◦ 또 다른 설은 1907년 미국의 한 운동구점 주인의 의뢰를 받고 구성된 베이스볼 기원조사 위원회가 조사한 것으로 야구는 1839년 뉴욕주 쿠퍼즈 타운에서 에버터 더블데이 소장이 고안한 것이라는 설이다.

◦ 이 설은 발표당시에도 야구는 라운더즈의 응용이라는 반론이 있었으나 1939년 뉴욕도서관의 헨더슨이 조사한 결과 1750년 이전에도 영국에서는 배트와 볼을 사용하는 베이스볼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으며 더욱이 1789년에 출판된 그림책에도 베이스볼이란 제목의 삽화가 있는 시가 발견되어 이 설의 신뢰도가 희박해지고 말았다.

◦ 한국야구는 1904년 기독교 청년회 창립 공로자중의 한 사람인 미국인 질레트가 청년 회원들에게 야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한국 야구의 첫 걸음이었다.

◦ 1911년에는 각 학교에서 야구팀의 창설하였으며 해방후 1946년에는 대한 야구협회를 조직하였고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1962년 9월 제5회 아시아야구대회에서 처음으로 국제대회 우승을 하며, 1977년에는 대륙간컵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다.

◦ 우리나라 야구사의 가장 큰 전환점은 1982년 전두환 전대통령이 암울했던 시기 국민들의 정서적인 면을 잡기 위해 프로야구가 출범한 것으로 현재는 10개 팀이 지역 연고지를 바탕으로 펼쳐지고 있다.

□ 협회(연맹)의 설립년도 : 1998년 고성군야구협회 정식 설립(초대회장 배효택, 전무이사 김홍식)

□ 협회(연맹)의 활동사항 :

-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
- 고성군야구협회장기 사회인 야구대회 개최
- 고성군리틀야구단 창단 및 후원
- 고성군 엘리트 야구선수 육성
- 고성군 야구인구 저변 확대
- 고성군 야구인프라시설 확충

□ 협회(연맹) 기구표 :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직 책	성 명	직 업	비고
회 장	강정환	회사원	
고 문	김홍식	군의원	

직책	성명	직업	비고
고문	황명준	자영업	
고문	배효택	자영업	
부회장	김상철	자영업	
부회장	허태립	회사원	
부회장	구태욱	자영업	
당연직부회장	강태화	회사원	
당연직 부회장	김태정	회사원	
당연직 부회장	최성태	회사원	
당연직 부회장	갈경영	회사원	
당연직 부회장	김석언	자영업	
당연직 부회장	김병찬	자영업	
당연직 부회장	이응준	회사원	
감사	최재혁	자영업	
감사	김근수	자영업	
전무이사	최은철	회사원	
이사	이광호	자영업	
이사	조삼식	자영업	
이사	정규영	자영업	
이사	홍창조	자영업	
이사	김태용	자영업	
이사	김동건	자영업	
이사	김인근	자영업	
이사	김복상	회사원	
이사	권오석	회사원	
이사	진병국	자영업	
이사	김수형	자영업	
이사	이현열	회사원	
이사	김충환	회사원	
이사	이성대	회사원	
기록이사	허성한	회사원	
심판이사	김현철	회사원	
경기이사	박근석	회사원	
실무이사	정상현	회사원	
실무이사	김용욱	자영업	
실무이사	원성완	회사원	

직책	성명	직업	비고
실무이사	김명길	회사원	
실무이사	김향승	자영업	
실무이사	우대경	자영업	
실무이사	이용준	회사원	

□ 경기종목별 활약상

년도	주최	대회명	소속	입상자	부별	종목	입상순위
2008	경상남도 체육회	제47회 경남도민체전	고성군	종합우승	군부	야구 일반부	1위
2014	경상남도 체육회	제53회 경남도민체전	고성군	종합준우승	군부	야구 일반부	2위

## 7. 역도

□ 경기종목에 대한 설명 : 4m 사방의 연기대 위에서 바벨(barbell)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그 중량을 겨루는 경기로 몸무게에 따라 10체급으로 나누어지며 같은 체급끼리 승패를 겨룬다. 소련·동유럽을 중심으로 구미에서 성행되는 경기로, 체력육성, 특히 근력양성에 좋은 종목이다.

□ 협회(연맹)의 설립년도 : 1996년

□ 협회(연맹)의 활동사항 :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 및 전지훈련 유치 등으로 고성군 역도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국대회 유치, 전국체전 출전 등으로 고성군민의 체위향상

□ 협회(연맹) 기구표 :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직책	성명	직업	비고
직위	성명		
고문	최재봉		
	김종성		
	정성규		
	김정홍		
명예회장	배정훈		

직책	성명	직업	비고
자문위원	김재용		
직전회장	배정구		
회장	최재민		
부회장	문성복		
	심재출		
실무부회장	박승원		
전무이사	임기열		
감사	박재호		
이사	이문조		
	이판석		
	배기완		
	박상근		
	이동철		
	김주연		
	이창근		
	문영일		
	김유성		
	김성일		
	이상동		
	정주녕		
	조용원		
	김태환		

## □ 경기종목별 활약상

년도	주최	대회명	소속	입상자	부별	입상순위
2012	경남체육회	제51회 민체육대회	고성군	고성군	종합	1
2013	경남체육회	제52회 민체육대회	고성군	고성군	종합	1
2014	경남체육회	제53회 민체육대회	고성군	고성군	종합	1

## 8. 유도

□ 경기종목에 대한 설명

### ● 유도

유도는 메치기, 굳히기, 호신술로 구성되며 유도경기는 2명의 경기자가 백색과 청색의 도복을 입고 메치기, 굳히기의 기술로 온몸을 사용하여 상대를 공격하거나 공격해오는 상대를 힘의 역학으로 허점을 찔러 승패를 겨루는 격투경기이다.

현대 유도는 IJF(International Judo Federation : 국제유도연맹)의 정관 제1조 3항에 'The IJF recognizes Judo, as a system of physical and mental education created by Jigoro Kano, which also exist as a Olympic sport' 라고 하여 가노 지고로(嘉納治五郎)에 의해 심신의 교육체계로 창안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올림픽종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 ● 역사

유도와 비슷한 형태의 투기(鬪技)는 고대부터 존재해왔다. 고구려 고분 각저총(角抵塚) 등 세계 각지의 고대 유적을 통하여 두 사람이 마주잡고 힘을 겨루는 씨름이나 유도와 같은 형태의 투기가 오랜 옛날부터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서기(日本書紀)》 《고사기(古事記)》에 보이는 투기 장면이 각저총 벽화의 내용과 일치하고, 일본의 이즈모(出雲) 지방을 정복한 천신계(天神系) 사람들이 고구려계 기마민족이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일본이 한반도로부터 전해 받은 투기술을 바탕으로 유술(柔術)이라는 무술 체계를 세웠고, 이것이 유도의 기원이 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유도연맹은 유도가 일본의 가노 지고로에 의하여 심신의 교육체계로 창안된 것임을 인정하는 문구를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텐진신요류(天神眞楊流)와 기토류(起倒流)의 유술을 수련한 가노 지고로는 텐진신요류의 급소지르기와 굳히기, 기토류의 메치기 기술을 중심으로 다케우치류(竹内流)의 포박 기술, 세키구치류(關口流)의 낙법 기술 등을 비교 연구하여 개량하였으며, 여기에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여 체련법(體鍊法)·수신법(修身法)·승부법(勝負法)으로 체계화·이론화한 뒤 유술 대신 유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는 1882년 고토칸(講道館)이라는 도장을 열고 직접 유도를 보급하였으며, 1909년에는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되면서 유도의 세계화에 공헌하여 '유도의 아버지'로 불린다.

### ● 내용

유능제강(柔能制剛)의 원리와 자타공영(自他共榮)의 철학을 실현하려는 무예(武藝)로서 신체의 유연성과 근력 양성, 승부법과 정신수양에 적합한 운동이다. 공격과 방어의 수련과 경기를 통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아울러 정신을 수양함으로써, 심신을 가장 유효하게 구사

할 수 있는 대도(大道)를 체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 협회(연맹)의 활동사항 :

1962년 고성유도관 개관

1962년 고성군유도협회 창설

1994년 김영수회장취임

1997년 고성여자중학교 유도부창단

2002년 고성동중학교 유도부창단

2004년 표건태회장 취임

2005년 제44회 전국남·녀체급별유도선수권대회 및 2006세계선수권 파견 국가대표선발전 개최

2008년 제17회 베트남오픈국제유도대회 표건태단장 선출

2009년 제37회 경남체급별유도대회 및 전국체전 최종선발전 개최

2013년 김창국회장 취임

2014년 “고성군유도연합회” 창설

□ 협회(연맹) 기구표

직 책	성명	직업	비고
회 장	김 창 국	고성교육청	
부 회 장	서 문 식	자영업	
부 회 장	허 은 수	자영업	
전 무	조 영 진	고성군생활체육회	
상 입 부 회 장	조 성 래	농협	
전 입 회 장	표 건 태	새마을금고	
감 사	박 진 흥	자영업	
재 무	이 정 혁	수남카센터	
이 사	김 세 환	쉐보레	
이 사	이 상 실	고성경찰서	
이 사	이 성 노	자영업	
이 사	유 범 석	기아자동차	
이 사	방 경 두	자영업	
이 사	천 상 옥	동광목재	
이 사	김 대 영	천일기업	
이 사	황 우 수	자영업	
이 사	전 소 민	소가야횃집	
이 사	김 창 현	수림꽃집	

## □ 경기종목별 활약상

년도	주최	대회명	소속	입상자	부별	종목	입상순위
1999	대한유도회	제29회 춘계중고남녀 유도연맹전	고성여중	김문우	여중부	-52kg	3위
2005	대한유도회	제33회 춘계중고남녀유도연맹전	고성동중	서종욱	남중부	-81kg	3위
2005	경남체육회	44회 도민체육대회	고성군	고성군	종합	유도	3위
2006	경남체육회	45회 도민체육대회	고성군	고성군	종합	유도	2위
2008	대한유도회	제1회 전국청풍기 유도대회	철성고	김창현	남고부	+100kg	3위
2008	대한유도회	2008년 하계유도연맹전	철성고	김창현	남고부	+100kg	3위
2008	경남체육회	47회 도민체육대회	고성군	고성군	종합	유도	2위
2009	경남체육회	48회 도민체육대회	고성군	고성군	종합	유도	3위
2011	대한체육회	40회 전국소년체전	고성동중	한동군	남중부	-90kg	3위
2014	경남체육회	53회 도민체육대회	고성군	고성군	종합	유도	3위

## 9. 축구

□ 경기종목에 대한 설명 : 양편이 대항하는 구기 종목의 하나로, 발을 사용하여 볼을 다루고 골을 다루는 대표적인 팀 스포츠이다. 축구는 손과 팔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위로 볼을 다룰 수가 있으므로 경기 기술이 다양하고, 많은 양의 달리기가 필요한 경기이다. 또한 경기 상황이 매 순간 새로우므로 선수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게임을 펼쳐 나가야 한다.

드리블, 슈팅, 패스, 트래핑 등의 기술을 연마하면서 민첩성, 협응력 등을 양성할 수 있고 격렬한 게임을 통해 강한 지구력과 투지를 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팀 스포츠로서 자신만의 독자적 노력으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특성에 의해 협동심, 책임감, 단결심, 희생정신 등의 사회성 육성에 도움이 된다.

□ 협회(연맹)의 설립년도 :

□ 협회(연맹)의 활동사항 : 군수기 리면별 축구대회, 협회장기 직장별 축구대회 등을 통한 축구인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함.

□ 협회(연맹) 기구표 :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순번	직 책	성명	비고
1	직 전 회 장	박성태	
2	회 장	정소영	
3	상임부회장(총무)	백찬문	
4	행 부 회 장	우정옥	
5	내 무 부 회 장	이정길	
6	외 무 부 회 장	정효종	
7	실 무 부 회 장	정영수	
8	실 무 부 회 장	문철성	
9	감 사	김향섭	
10		강인호	
11	전 무 이 사	김준호	
12	상별분과위원장	백찬문	
13	심판분과위원장	김민석	
14	경기분과위원장	박정만	
15	기술분과위원장	강성호	
16	대의협력분과위원장	이정갑	
17	홍보분과위원장	김대진	
18	생체분과위원장	이상화	
19	협회분과위원장	이상동	
20	유소년분과위원장	조청용	
21	이 사	황종식	
22		정철규	
23		김희태	
24		강인호	
25		김석동	
26	이 사	심영조	
27		이대의	
28		송호준	
29		김상배	
30		이재원	
31		이성환	
32		옥준석	
33		김옥수	
34	독 수 리	김향섭	
35	철 성	김태용	

순번	직	책	성명	비고
36			김경승	
37			문진수	
38	아	름	홍원표	
39			고정봉	
40	삼	산	이성대	
41			황현철	
42			정호석	
43	거	류	백송현	
44			최정구	
45	고	성	박정만	
46	여	명	김유성	
47	영	천	최연익	
48			윤현식	
49	스	카	이상배	
50			이창환	
51			황규덕	
1	재	정	제정인	
2			김종환	
3			최규범	
4	고	문	최삼락	
5			고영국	
6			차형호	
7	자	문	서환법	
8			조용준	
9			이문조	
10			이옥근	
11			김정현	

□ 경기종목별 활약상

년도	주최	대회명	소속	입상자	부별	입상순위
2012	경남체육회	제51회 도민체육대회	고성군	고성군	종합	2위
2013	경남체육회	제52회 도민체육대회	고성군	고성군	종합	2위
2014	경남체육회	제53회 도민체육대회	고성군	고성군	종합	2위

## 10. 태권도

### □ 경기종목에 대한 설명

#### ● 역사

태권도의 연원은 고대부족국가의 제천행사였던 영고·동맹·무천 때 체육활동으로 행해졌던 제전경기로, 이로부터 형성된 전통무술이 택견(태권도의 옛이름, 수박)에서 찾을 수 있다. 태권도의 가장 오래된 실증은 고구려의 고분 가운데 하나인 무용총 현실의 천장지붕 부에 그려진 풍속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신라는 화랑도를 통해 학문을 닦는 한편 신체를 단련하고 무술의 하나로써 수박을 행했다.

또한 고려 고종 때 이승휴가 지은 <제왕운기 帝王韻記>에 신라 무술의 대목에서 택견술을 기술한 것이 있는데, 태권도의 옛 이름인 '탁면'도 이 택견에서 유래되었다. 한편 태권도는 다른 문헌이나 사화에 따르면 수박 이외에도 수박희·박희·수박·수벽·각희·권법·권술·유술·탁견 등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태권도를 수박 또는 수박희라고 했으며, 고려 의종(毅宗)은 이의민의 수박희를 가상히 여겨 벼슬을 올려주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790년에 이덕무·박제가가 저술한 <무예도보통지 武藝圖譜通志>에 권법이라는 이름으로 태권도 기술이 도해로 기록되었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정책적으로 택견을 탄압했는데, 택견이 가라테와 비슷한 점을 들어 가라테라고 부르게 했으며 가라테형을 보급시켜 택견을 말살하려 했다. 그러나 의식 있는 사범들에 의해 전승되어 8·15해방 이후 크게 보급·발전되기 시작하여 1954년 고유명칭인 태권도로 부르게 되었다.

1961년 대한태권도협회가 창립되었다. 1962년 무도로서의 태권도가 스포츠 경기종목으로 인정받으면서 이 단체는 대한체육회에 경기단체로 가맹되었다. 1962년 10월 태권도는 전국체육대회 경기종목으로 결정되었다.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이 창립되었으며, 1975년 국제경기연맹(GAISF)에 가맹했다. 1980년 10월에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 올림픽 위원회 총회에서 경기종목으로 공식승인을 받아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정식경기종목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에서는 시범 경기종목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회에서 정식경기종목으로 채택되었다.

#### ● 태권도 품새 순서

대한민국의 민족적 기예, 국기인 태권도는 크게 품새와 발차기, 그리고 겨루기로 나

된다.

태권도 품새는 태권도의 발차기, 주먹지르기, 막기와 같은 기본적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일정한 보폭으로 나아가며 수련한다.

태권도 품새의 처음은 '태극'이다. 태권도 품새인 '태극'은 총 8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장마다 한 단계씩 추가적인 공격과 방어 자세가 추가되면서 구성된다.

태권도 품새인 '태극' 제1장에서 제8장을 모두 익히면, 태권도 1단, 또는 태권도 1품에 심사를 볼 수 있다.

태권도 품새 '태극'을 마치고 나면, 다음 태권도 품새인 '고려'를 수련하고, 태권도 1단 또는 태권도 1품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한 이후 태권도 2단 또는 태권도 2품 심사를 볼 수 있다.

태권도 2단 또는 태권도 2품을 취득한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엔 태권도 품새 '금강'을 수련하여 태권도 3단 또는 태권도 3품 심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태권도 품새는 태극 → 고려 → 금강으로 나아간다. 여기까지 마치면 태권도 3단 또는 태권도 3품에 해당한다.

참고로 태권도의 단과 품의 분류기준은 '만 15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15세 미만은 '품'을, 15세 이상은 '단'을 취득한다. 두 개념은 연령을 기준으로 한 구분으로 자격으로서는 다르지 않다. 태권도 '품'을 취득한 사람은 만15세가 넘은 이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

태권도 품새 금강 이후로는 태백(4단) → 평원(5단) → 지태(6단) → 천권(7단) → 한수(8단) → 일여(9단)으로 나아간다.

태권도 품새는 태권도의 수련정도와 과정을 상징적으로 들어낸다. 많은 이들이 태권도 품새는 '무용 같다' 느니 하며, 실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제대로 된 자세와 힘의 강약조절을 통해 태권도 품새를 하나씩 해나가면 어느새 이마와 온몸에 땀이 베이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온 몸의 스트레칭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다. 단순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 보다 태권도 품새 수련을 통해 무도의 정신과 힘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는 것을 권한다.

### ◎ 태권도 띠의 종류와 차이

태권도에서 띠는 저고리와 함께 한 벌의 도복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도복이 유급자, 품 및 유단자 도복으로 구분되듯 띠도 유급자, 품 및 유단자 띠로 각각 구분되어 역시 삼극을 이루고 있다.

한민족은 하늘(양)·땅(음)·사람(음양)의 삼재 중에서 하늘과 땅의 요소를 사람으로 집약하였다. 태권도복에서 저고리는 하늘, 바지는 땅에 해당되고 띠는 이 두 개념을 포함하여 우주라 하는 데, ‘한’의 철학에서는 사람을 소우주라 일컫는다.

도복은 전체적으로 정적인 면이 강하며 띠는 이 도복의 중심에 동적 요소인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띠의 색상은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초보자의 흰색, 유급자의 노랑·파랑·빨강과 유단자의 검정색이다.

삼극적 원색은 노랑, 파랑, 빨강이고 흰색과 검정색은 해와 달, 낮과 밤, 시작과 완성 등 음양을 상징한다. 이 다섯 가지 색상의 의미는 음양 오행의 사상과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음양은 동양의 전통적 사고에서 우주를 형성하는 생성 원리, 질서의 원리로 인식되고 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를 말하며 천지의 생성 원리이다. 소우주인 인간은 몸 안에 오장육부를 갖고 있다. 오장에서 오행이 나왔고 간장(목), 심장(화), 비장(토), 신장(수)으로 부터 오행이 시작된다. 그리고 오행은 오방 곧 중앙(세상의 중심)과 동서남북의 다섯 방위를 말하고 이를 오방색이라고 한다.

태권도에서 띠의 오색은 바로 우주의 원리인 오행, 오기와 일치하며, 이 오색은 오늘날에도 한국인의 전통색으로 궁궐이나 사찰 등 건축물의 단청에서부터 복식, 만화, 포장지 등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태권도에서 띠가 상징하는 급과 단의 숫자는 시작과 완성이 아홉수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하늘과 땅, 음양과 오행의 합수를 의미한다.

태권도를 수련하는 과정에서 색상의 변화 원리는 오행과 부합하며, 다섯 가지색에 해당되는 인체 내의 오기는 자아 자체가 우주적 기의 흠어짐과 모임의 끊임없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적인 현상으로 생명소이다. 띠의 존재론적 역동성에 있어서 채와 용으로 구분, 변화운동에서 ‘한’의 철학상을 규명할 수 있다.

띠의 체는 방(땅), 용은 원(하늘)과 각(사람)인데 허리를 감았을 때의 상징(형상태)가 원, 그리고 매듭을 지었을 때 형상태가 각을 이루어 하늘·땅·사람 삼태극의 원리가 적용된다.

태권도인이 도복을 입고 띠로 단전 부위를 중심으로 두 번 단단히 두르는 의미는 음과 양이 만나는 기의 장소가 단전이기 때문이며 이는 단전에 기를 모으고 적재적소에 기를 기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띠는 도복에 견주어 우주를 상징하듯 실제로 태권도인은 도복을 몸

시 조심스럽게 다루며 간수하는 예를 매우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 수련은 엄격한 질서를 요구하며 그 질서는 바로 띠의 색상 차이로 권위와 상하 관계가 분명해진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예를 바탕으로 변화하고 조화하여 질서를 이루게 된다.

태권도에 입문하면 흰 도복에 흰 띠로 시작하는데 흰색은 탄생 또는 시작 이전의 무의 상태 곧 태극을 의미한다. 노랑은 탄생을 상징하고 파랑색은 재생, 소생, 희망, 젊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빨강은 격렬, 열정을 상징하고, 검정은 겸허, 완성을 상징한다.

초보자 수련에서 흰 도복 바탕에 흰 띠부터 시작하는데, 점차 노랑, 파랑, 빨강을 거쳐 마침내 검정띠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은 피땀 흘리는 고된 수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띠는 태권도에서 오행, 오색, 오기에 의한 원리를 바탕으로 중요한 통과 의식을 상징하는 예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포괄적 의미에서 바로 띠의 ‘한’ 철학적 무도성을 찾아 볼 수 있다.

#### □ 고성군 태권도 협회 정관 조직도

연번	성명	직책	연락처	직업	비고
	이석재	고문	010-2686-2140	경남체육회	
	이상현	자문	010-4178-0600	자영업	
	장도선	자문	010-3892-3113	고성중공업	
	김성수	자문	010-2833-0772	자영업	
1	박재주	회장	010-4545-5590	참나무숯불갈비	
2	최창식	부회장	010-8526-8824	교직원	
3	정호경	부회장	010-3863-5111	주) 매직카라	
4	정부오	부회장	010-2580-0519	고성군생활체육회	
5	배상길	부회장	010-4851-0028	노인세상	
6	배정구	부회장	010-6767-1701	주) 메이드	
7	정재현	감사	010-3868-5556	세종랜트카	
8	김은국	감사	010-2737-4360	고성군청	
9	이세원	전무이사	010-3589-4420	한려종합상사	
10	우대경	총무이사	010-4669-1971	고성택시	

11	장형갑	상임이사	010-3582-1771	경남태권도협회이사	
12	서경덕	이 사	010-4583-5418	동암건축	
13	백재왕	이 사	010-3557-6921	쉐보레	
14	강인호	이 사	010-7185-0019	울대자원	
15	김인근	이 사	010-4809-0058	동부화재	
16	문상배	이 사	010-6273-5238	신라정비	
17	박형준	이 사	010-3895-2619	한성수산	
18	안광준	이 사	010-5509-0002	고려화공	
19	김정훈	이 사	010-4349-4992	고성체육관	
20	이관주	이 사	010-9307-4696	고룡이스포츠클럽	
21	박상민	이 사	010-2851-6774	조광페인트	
22	심영민	이 사	010-5757-3116	명품건설	
23	김병국	대의원	010-2715-8806	xpl 태권도	
24	최성철	대의원	010-6232-2282	고성체육관	
25	황수환	대의원	010-9313-4197	화랑체육관	
26	이완기	대의원	010-4040-2834	공감태권도	
27	장인호	대의원	010-9340-1138	용호도장1관	
28	강문기	대의원	010-2128-1746	배둔용호태권도	

#### □ 고성군태권도협회 연혁

협회장 대행	천만우	1968.3~1975.12
초대회장	김종래	1976.1~1990.12
2대회장	김대겸	1991.1~2005.12
3대회장	이상헌	2006.1~2008.12
4대회장	장도선	2009.1~2010.12
5대회장	김종석	2011.1~2012.12
6대회장	박재주	(현) 2014.11.29~

□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고성군 선수단 성적(태권도)

회차	성적(위)	비고
45회	2	
46회	-	
47회	-	
48회	2	
49회	3	
50회	2	
51회	1	
52회	3	
53회	1	
54회	3	
55회	1	

□ 고성군태권도협회 발자취

도민체육대회 10회 우승 / 2013년·2014년 이나경 국가대표 상비군 발탁	
황수갑	1972 육군참모총장기 1위 1976 전국체전 1위
손현수	1977 전국체전 3위
이재규	제19회 대통령기 1위 1982 한국유니어대표선발 62회·64회 전국체전 1위
정충렬	1987 전국종별 3위 1987 한국중·고연맹기 1위 1987 청소년 대표선발전 2위 1989 대학연맹기 3위 1995 국방부장관기 3위

김정훈	14회 소년체전 3위 1985 한국중·고연맹기 2위 1988 연세대총장기 2위 1990 전국체전 2위 1991 대학연맹기 3위 1992 국제오픈대회 1위
김동수	1985 한국중·고연맹기 2위
박상민	1998 전국종별선수권대회 3위
김재봉	2004 국가대표선발전 1위 85회 전국체전 1위 2005 국가대표선발전 2위 2005 코리아오픈대회 1위 86회 전국체전 2위
최창윤	2001 용인대총장기 3위 2001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3위 2002 한국중·고연맹기 3위 2002 5.18광주기념전국 남·녀 중·고대회 1위
김민곤	2004 5.18광주기념전국 남·녀 중·고대회 2위
강의성	2000 대학연맹기 3위
정형우	1999 전국소년체전 2위
이정훈	2009 전국소년체전 1위 2005 한국중·고연맹전 2위
최대호	2005 전국종별선수권대회 3위
이나경	2012 5.18광주기념 전국남녀중고교대회 2위 2013 한국중고연맹회장기대회 1위 2013 협회장기대회 겸 국가대표 예선대회 2위 2014 경희대총장기 전국남녀고교대회 2위 2014 여성부장관기 전국여성 태권도대회 2위

김보름	2009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1위 2010 전국중별선수권대회 1위 20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고체육대회 1위 2013 협회장기대회 겸 국가대표 예선대회 1위 2013 여성부장관기 전국여성태권도대회 1위
이가림	2009 3.15기념 전국태권도대회 1위 2010 전국중별선수권대회 1위 20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고체육대회 1위 2011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1위 20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고체육대회 1위 2013 여성부장관기 전국여성태권도대회 1위 2013 대통령기대회 겸 국가대표 예선대회 1위 2014 한국실업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1위
김현정	2008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3위 2009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8위 2009 3.15기념 전국태권도대회 3위 2010 5.18 광주기념 전국 남녀 중고교대회 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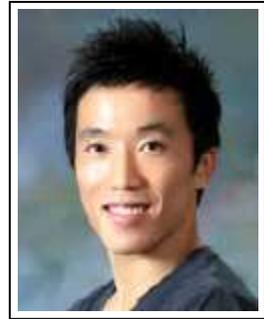
최근에도 제 55회 경남도민 체육대회 태권도 종합우승이라는 쾌거와 함께 2016년 경남 초·중학생 종합 체육대회에 참가한 고성태권도 유소년팀 28명의 수련생 중 21명의 선수들이 입상(금6, 은8, 동7)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고성군 태권도 협회에서는 나라사랑 태권도 사랑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의 혼·민족의 정신인 우리의 무예 태권도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유소년팀부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바탕으로 청소년, 특히 여성들에게 까지 심신수양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으며,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 제 3절 고성군을 빛낸 체육인

## 유 원 철 (체조선수)

- 출생 : 1984년 7월 20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출생)
- 신체 : 165cm, 59kg
- 소속사 : 더블유스포츠마케팅
- 소속팀 : 경상남도체육회
- 학력 :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수상 : 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안 게임 남자체조 단체전 동메달
- 경력 : 2010.06 제91회 전국체육대회 명예홍보대사  
2010.06. 제91회 전국체육대회 명예홍보대사  
2010. 제16회 광저우 아시안 게임 남자체조 국가대표  
2008. 제29회 베이징 올림픽 남자체조 국가대표  
2006.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 남자체조 국가대표  
2005. 제4회 마카오 동아시아경기대회 남자체조 국가대표  
2005. 200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남자체조 국가대표



## 천 영 석 (전 스포츠기관단체인, 탁구선수)

- 출생 : 1931년 2월 7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출생)
- 경력 : 2001년~2007.12 대한탁구협회 기술위원장  
2004~2008.07 제19대 대한탁구협회 회장  
1991 중고교탁구연맹 회장  
한국 여자 탁구 국가대표팀 감독



### 정 정 숙 (전 축구선수)

- 출생-사망 : 1982년 8월 5일- 2011년 6월 25일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출생)
- 신체 : 153cm, 50kg
- 수상 : 2005년 동아시아대회 우승
- 경력 : 2006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국가대표  
2005.08 동아시아대회 한국 국가대표



### 정 재 근 (농구감독, 농구선수)

- 출생 : 1969년 7월 23일 (경남 고성군 회화면 출생)
- 신체 : 191cm, 85kg
- 소속 : 연세대학교
- 학력 : 연세대학교
- 수상 : 1997년 나이키-스포츠조선 프로농구 대상
- 경력 : 2011.11~ 연세대학교 농구부 감독  
2011.11 ~ 2014. 7. 연세대학교 농구부 감독 역임  
2009 ~ 2010. 연세대학교 농구코치  
2005. 전주 KCC 이지스 플레이코치      2003 ~ 2004 전주 KCC 이지스 선수  
2000. 대전 현대 걸리버스 선수      1992. 안양 SBS 스타즈 선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출신 이창호(89년 12월 23일) 선수 역대 국가대표 선발

고성군 출신 이창호(25·경남도청 소속) 선수가 2013년 역대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태능 선수촌에서 훈련 중이다.

어머니 강선자(45·월평리)씨는 “중학교 1학년부터 운동을 시작하면서 코치에 발탁돼 열심히 운동한 결과 국가대표선수가 됐지만 사실 부담이 간다.”며 “여기서 운동하는 것보다 좀 더 힘들겠지만 국가를 대표해서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들이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선수는 철성중학교, 경남체고, 국군체육부대를 거쳐 경남도청 역도팀에 입단해 지



난 2009년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되어 꾸준한 훈련 끝에 드디어 태극마크를 가슴에 품을 영광을 얻었다.

-94kg급의 전국 최강자로 평가되는 이창호 선수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바벨과 씨름중이다.

이창호 선수를 지도한 경남역도연맹 박승원 전무이사는 “어려서 부터 심성이 고와 정해진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해 왔기에 이같은 영광이 찾아왔다. 계속 노력하여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는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창호 선수 동생인 이창준(경남체고 3) 학생도 역시 역도를 하며 장래 국가대표를 꿈꾸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제86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1위

제15회 한, 중, 일 주니어 경기대회 1위

제52회 전국춘계역도선수권대회 1위

제84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1위

제55회 전국춘계역도선수권대회 1위

제93회 전국체육대회 3위

제88회 전국체육대회 1위

제94회 전국체육대회 2위

### 이종두씨 복싱 국제심판 자격증 획득 '한국인물사' 등재 지도자 자질 탁월 평가

고성신문. 2011.10.17.

경남 고성군 마암면 출생(1960.10.11. 일생)

고성군청 문화관광체육과에 근무하는 이종두(사진)씨가 세계아마추어 복싱연맹에서 수여하는 '2011 국제심판 자격증' 을 획득했다.

이종두씨는 고성체육관 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경남아마추어복싱연맹 심판위원장, 전무이사, 경기부회장, 중앙심판 등 복싱계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주요경력으로는 제37회 대통령배 시·도대항 경남복싱단장, 제24회 아시아 아마추어복싱 선수권대회 대한민국 부단장,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된 제92회 전국체전에서도 중앙심판 등을 역임했으며, 아마추어복싱 연맹 최우수심판으로 선임되어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한국인물사' 에 등재되기도 했다.

특히 여자복싱의 불모지인 고성에서 자신이 직접 지도하여 고성군 소재 철성고 이상미 학생을 제92회 전국체전에 경남대표로 출전시키는 등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탁월하다는 게

전국 복싱계의 평가이다.

그는 “앞으로 세계 심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스포츠를 통한 고성군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자라나는 후배들의 양성을 위해 불철주야 고성체육관에서 복싱링과 씨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 대한복싱연맹 최우수 심판상

제5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2007 제24회 아시아복싱선수권대회 국가대표 부단장

2008 베이징올림픽 대한민국 복싱임원

2009 경남복싱협회 전무이사

2010 2010년 경상남도 체육상

2011 세계복싱연맹 국제심판

2011 아시아복싱선수권대회 운영위원

2013 제94회 전국체전 대한복싱협회 기술위원

2014 대한복싱협회 기술위원

### 고성군청 이가림, 대통령기 태권도대회 금메달

(경남 고성=뉴스1) 서진석 기자 | 2013.08.29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 오른 이가림 선수© News1

경남 고성군은 여자 태권도팀 이가림(20)선수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전북 무주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48회 대통령기 태권도 대회 여자일반부 -73kg 미들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대표 선발 예선대회를 겸한 이번 대회에는 남고부 570명, 여고부 247명, 남대부 211명, 여대부 117명, 남일반부 89명, 여일반부 102명 등 총 1336명이 참가했다.

이가림 선수는 이날 금메달 획득으로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티켓도 함께 확보했다.

정충열 감독은 “이 선수는 어린 나이지만 훈련에 열성을 다하는 근성이 뛰어난 선수”라며 “내년 선발전에서 충분히 국가대표로 뽑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가림 선수는 경남 고성초, 고성여중, 경남체고를 졸업하고 올해 고성군청 팀에 입단했다.

경남 고성군 고성읍 출신(1994.08.01. 생)

경남체고 졸업

경남고성군청 태권도 선수단(현)

제12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여성태권도대회 1위

제48회 대통령기태권도대회 1위

제94회 전국체육대회 3위

제8회 한국실업태권도연맹회장기대회 1위

2014 경주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2위

### 故천만우(千萬又) 관장님 기념비

출생 : 27.10.16, 사망 : 91.4.14(경남 고성군 고성읍 출신)

여기 고성군 체육의 산실인 고성체육관의 건립자  
故천만우 관장님의 기념비 건립으로 고성체육인의 체육상 확립과 체육후배들의 끊임없는  
전진을 기하고자 하노라

2011년 2월 일

고 성 군

#### ● 고성체육관 연혁 및 故천만우 관장님 공적

1958년3월 :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45-6번지에 고성군 소유

“공회당”에서 역도, 씨름, 기계체조, 탁구, 보디빌딩

종목의 후진양성과 체육인의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함

1961년 12월 : “공회당” 이 개인에게 매매됨.

1962년3월 : 고성읍 동외리 230-2번지(현 위치)

1,440㎡의 대지에 327㎡의 건물을 신축하여 태권도, 역도, 복싱, 유도, 검도등 5개종목을 천만우 관장님(1991년 3월 별세)의 지도아래 후진을 양성하였음.

1991년 10월 : 현부지에 150㎡를 증축하여 후진양성에 힘씀.

2006년5월 :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개관으로 현위치에 지하1층 440㎡에 태권도, 복싱, 유도, 검도 종목이 김종성 관장의 지도아래 고성체육의 발전을 위해 수련중임.

### 이 석 재 (태권도)

- 1950년 03월 03일 고성읍 송학동243번지에서 출생하여



- 1) 1974-1978 : 고성읍 동외리 정동에서 용도장 을 운영한 후
- 2) 1978. 6월 : 스페인 정부 초청으로 태권도 사범으로 출국
- 3) 1981-1995 : 스페인 공수부대 태권도 보급
- 4) 1983-1993 : 스페인 경찰 특수대 태권도 지도
- 5) 1991-1994 :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교민 회장 역임
- 6) 1995-2007 : 스페인 왕 경호원 개인지도
- 7) 2001-2009 :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태권도 대표 팀 감독 역임 등으로

태권도 보급과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를 했다.

태권도 공인 9단인 그는 2010년 1월 귀국 후 경상남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 제 4절 고성군 주요체육시설

고성군 공설운동장

위치	고성읍 성내로 50	면적	20,671㎡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1965	사업비	백만원



고성군 궁도(국궁)장

위치	고성읍 기월리 83-10	면적	4,336㎡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1999.2.14	사업비	백만원



## 고성군 종합운동장

위치	고성읍 기월리 83-10	면적	92,560㎡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1998	사업비	6,627백만원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위치	고성읍 기월리 83-10	면적	92,560㎡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03	사업비	5,915백만원



## 고성군 실내체육관

위치	고성읍 송학고분로 179	면적	8,634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1990	사업비	900백만원



고성군 씨름장

위치	고성읍 송학고분로 179	면적	3,500㎡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05. 1.	사업비	566백만원



## 고성군 공설테니스장

위치	고성읍 교사4길 11	면적	5,000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1991	사업비	6,627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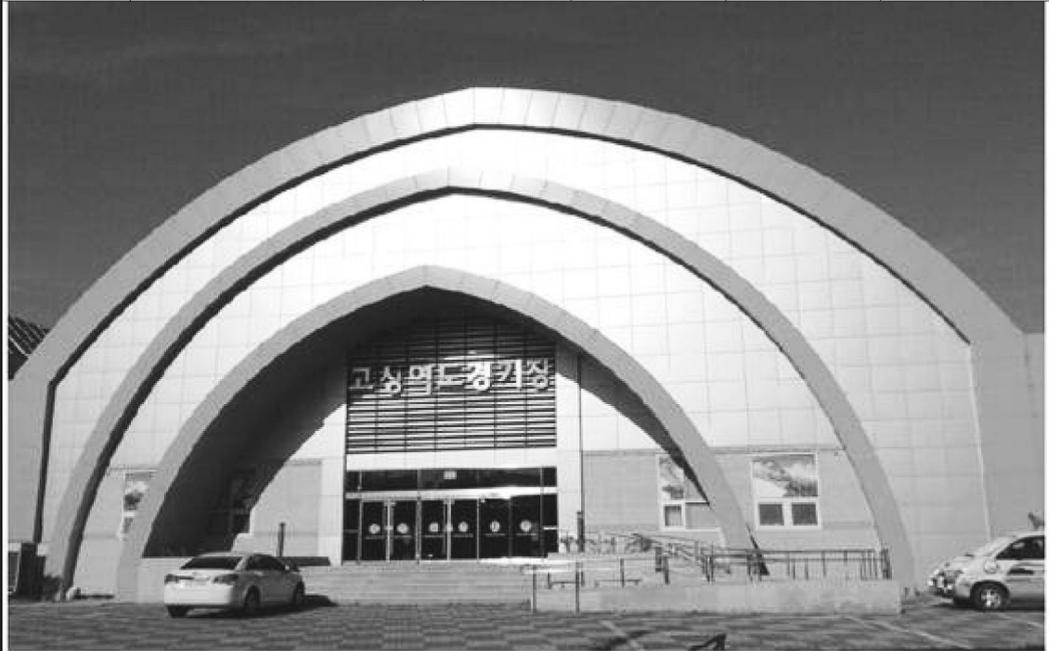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위치	고성읍 송학고분로 193	면적	5,732㎡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13	사업비	10,000백만원



## 고성군 역도경기장

위치	고성읍 송학고분로 193	면적	1,446㎡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11	사업비	4,100백만원



고성군 역도경기장 워업장

위치	고성읍 송학고분로 193	면적	768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13	사업비	4,100백만원



## 고성군 스포츠파크

위치	고성읍 교사리 414	면적	240,500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14	사업비	14,770백만원



고성군 체육관

위치	고성읍 동외로 156길 36	면적	1,575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06	사업비	백만원



거류체육공원

위치	거류면 안정로 1268-36	면적	18,410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06	사업비	백만원



## 하이체육공원

위치	하이면 하이로 277	면적	13,284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04	사업비	백만원



하일면 실내체육관

위치	하일면 학림2길 26	면적	4,158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08	사업비	백만원



하이다목적생활체육관

위치	하이면 덕호2길 51	면적	3,701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12	사업비	백만원



## 대가면다목적복지회관

위치	대가면 유흥갈천길 33	면적	9,166㎡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12	사업비	백만원



하일면게이트볼장

위치	하일면 학림리 380-14	면적	1,549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13	사업비	백만원



영오면게이트볼장

위치	영오면 영회로 511	면적	1,499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10	사업비	백만원



## 개천면게이트볼장

위치	개천면 옥천로 1252	면적	2,848㎡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07	사업비	백만원



## 대독게이트볼장

위치	고성읍 남포로79길 103-10	면적	1,230㎡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11	사업비	백만원



고성군게이트볼장

위치	고성읍 기월1길 43-17	면적	2,570㎡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10	사업비	백만원



## 동부게이트볼장

위치	고성읍 동외로 108길 29-5	면적	500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01	사업비	백만원



## 매수게이트볼장

위치	고성읍 월평리 747-3	면적	300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01	사업비	백만원



외우산게이트볼장

위치	고성읍 우산리 192-8	면적	400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09	사업비	백만원



하이먼게이트볼장

위치	하이먼 덕호리 516	면적	394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08	사업비	백만원



## 대가면게이트볼장

위치	대가면 유흥리 679	면적	391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1999	사업비	백만원



## 영현면게이트볼장

위치	영현면 봉림리 2-7	면적	1,081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12	사업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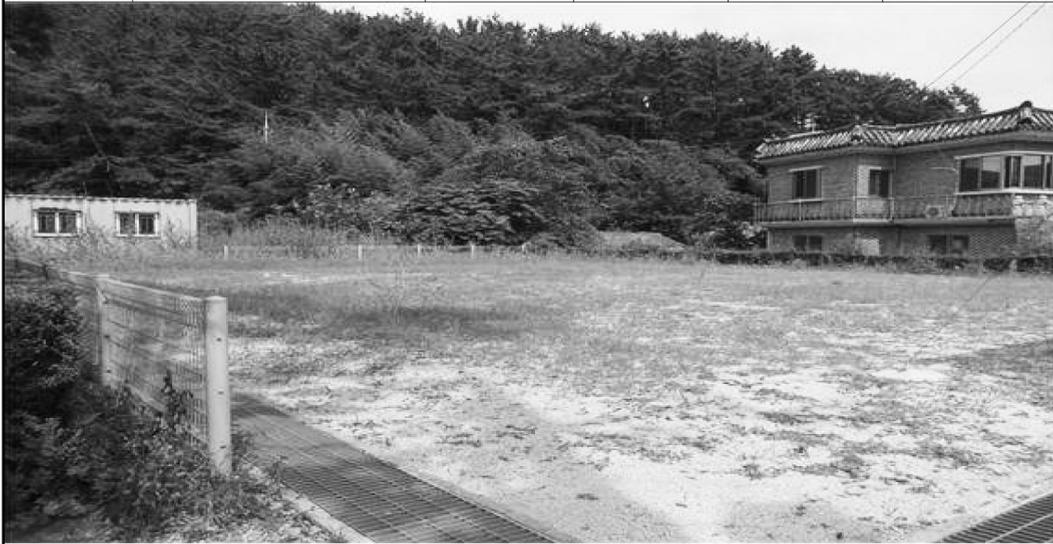
회화면게이트볼장

위치	회화면 배둔리 1288-4	면적	2,685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09	사업비	백만원



마암면게이트볼장

위치	마암면 옥천로 254	면적	340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07	사업비	백만원



## 거류면게이트볼장

위치	거류면 신용리 2042	면적	830m <sup>2</sup>	소유기관	고성군
관리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년도	2003	사업비	백만원



참고자료:

손환(2011). 일제강점기 조선체육연구회의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0권 6호, 1-9.

손환, 서범석(2013). 일제강점기 한국의 근대스포츠 도입에 관한 연구. 22권 3호, 3-15.

이호(2004). 日帝時代の 近代體育 成立과 展開過程에 대한 考察.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상훈(2006). 한말 체육보급과 일제 식민지하의 민족주의 체육활동.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동아일보

시대일보

고성신문

<http://allsteel.blog.me/220125369835>. 고성의 위대한 선각자들

## 제 5장 고성문화원

### 제 1절 고성문화원 연혁

#### 1. 광복후의 문화원

1) 해방이 되고 정치적인 혼란기를 거쳐 지역 유지들이 뜻을 모아 고성군청에서 순수 민간자생 단체로 固城文化院 발기를 가져 조성래 고성군수, 각급 기관장 및 유지 다수가 참석하여 문화원을 결성 후 초대 원장에 이종수씨를 선임하였다.

시설단체로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이 시기에는 향토주민의 자족·자활(自足·自活)을 위한 상록수(常綠樹)가꾸기 운동까지 결집된 계몽운동에 기초를 둔데 특색이 있었다.

또한 주한 미국공보원의 자재 및 기술적 지원협조가 큰 기여를 하였다.

원사(사무실)는 후지야여관(富士屋旅館)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고성농협 성내지점 자리이다.(고성문화원이 결성된 때가 1949년 12월 또는 1950년 5월로 기록되고 있으나 확실한 날짜는 알 수가 없다.)

2) 51년 2월 고성군의 협조로 고성능 확성기를 구입하였다. 원사 운영 현황을 보면 1층 사무실, 영사실, 유선방송실, 2층 도서관 옥상에는 스피커를 설치하여 미국의 소리 방송을 정취하여 중계하고 군민들에게 자유의 벚등 간행물 및 방송제공 사업을 실시하였다.

3) 1952년 신문도 귀하던 그때 뉴스 속보 제반 간행물을 프린트하여 기관단체 각 읍면까지 제공하였고 순회영화, 상영, 뉴스제공, 간행물 발송등을 고성문화원 기본 사업으로 채택하였다.

4) 1953년 고성문화원 주최로 군민체육대회를 년 1회 개최하였으나 2회로 끝났다. 이는 순수 자생 민간단체가 출현하여 시행하였음에 큰 의미가 있다.

5) 1954년 문화원 사무실을 군청 입구 사거리 한삼인(예전 동산약국)위치로 이전하였다.

6) 1956년 10월 이종수 초대 문화원장이 사임을 하고 1957년 2월 2대 문화원장으로 이상인이 취임하였다.

## 2. 법인 문화원 설립

- 1) 1960년 3월 3대 문화원장 황경운씨 취임하였다
- 2) 이 시기의 특색은 정부시책에 치중하였다.
- 3) 1962. 3. 읍면 순회영화 상영을 했는데 주로 리버티뉴스와 미공보원이 제공하는 문화 영화가 주종을 이루었다.
- 4) 에너지 위기와 그 영향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연료 절약을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통하여 연료가 적게 드는 개량 부엌 아궁이 설치 등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개선을 위하여 각종 리후렛을 제작 국민을 계몽하였다.
- 5) 7월 문화원 사무실을 고성읍 성내리 123번지로 이전하였다.
- 6) 1964년 11월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社團法人) 고성문화원 설립허가를 받았다.

## 3. 중흥기

- 1) 1970년 문화원사를 군립도서관 건물로 이전(남산 입구 비석 앞 공터)했다.
- 2) 이 시기의 특색은 정책성 회복과 전통문화 선양 중심의 향토문화 창달을 문화원의 사명으로 하는 방향 정립을 한데 있다.
- 3) 1972년 문화원사를 재향군인회 고성연합분회 회관으로 이전했다.
- 4) 1973년 5월 경로효친 백일장 및 미술사생대회 개최했다.
- 5) 1974년 7월 한일친선문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 6) 가야문화제를 제1회부터 8회까지 개최(1976년~1983년)했다.
- 7) 1975년 부산일보사의 후원으로 농촌 소득 향상을 위한 약초재배 강습회를 개최했고, 불우청소년 결연사업 등으로 농촌경제의 활력화에 기여했다.
- 8) 1979년 10월 일본영사관 협조로 한일친선 문화교류 영화 상영했다.

## 4. 정착기

- 1) 81년 9월 <문화원의 사명과 기능> 세미나를 다시 개최하고 문화원의 향토사회 교육이 지니는 의미의 중차대함을 강조하게 되었고 각계의 큰 호응을 받았다.
- 2) 84년도부터 지방문화시대가 개막되면서 문예진흥원은 종전대비 10배에 이르는 지원금을 문화원에 지급했다. 이 시기에, 문화원 법인에 부설 <향토사 연구소>를 새로 설립하게 되었고 문화원장과 향토사 연구가들이 함께 참가한 <향토사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여 향토사 개발에 대한 온 군민의 관심을 높였다.

3) 81년 8월 문화원과 고성문인협회 공동주체로 8·15 광복예술제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당시 고성문인협회 김춘량 회장, 서벌 부회장, 차천행 사무국장이 적극 활동하였고 진주 개천예술제에 이어 지방문화창달의 기초를 조성하여 소가야문화제를 성사시키는 주춧돌을 놓았다.

4) 84년 10월 어려움 속에서도 임원과 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황경운 원장의 열성으로 <고성소식>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5) 85년 9월 또다시 문화원 사무실을 고성군청 별관으로 이전했다.

6) 1990. 5 제3대 황경운 원장이 소유대지 360평(교사리 63-2. 현 문화원사)을 회사를 했다.

7) 1991. 9 문화원 사무실을 고성초등학교 옆 예전 고성도서관으로 이전을 했다.

8) 1991. 10 문화원사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장에 이맹규를 선임했다.

9) 1992. 5 문화관광부 지정 고성문화원이 시범문화원으로 선정되었다.

10) 1993. 12 문화원사 창건 기공식을 가졌다.

11) 1994. 10 제4대 고성 문화원장에 제두근이 취임(제5대 연임)했다.

12) 1996. 2 문화원사 준공식을 가졌다.

13) 1999. 2 문화원사 예식장 3층 110평 증축 준공식을 가졌다.

14) 2002. 10 제6대 고성문화원장에 김권조가 취임(제7대연임)했다.

15) 2010. 10 제8대 고성문화원장에 도충홍이 취임(제9대 연임)했다.

16) 2011. 11 제1회대한민국행촌서예대전 개최(2015년 현재 제5회 개최했다.)

## 제 2절 고성문화원 고유 업무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 제 3절 고성문화원의 주요사업

### 1. 문화교실운영

회원들의 여가선양과 건강증진 및 문화 복지를 위해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문화교실은 민요·장구, 문인화, 통기타, 한학, 전통무용, 서예, 서각, 농악, 요가, 댄스스포츠 등 1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강사는 해당과목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론과 실기를 가르친다. 문화교실이 있어 문화원이 활성화 되고 문화원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문화교실이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상승효과를 가져와 상호 보완적인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

### 2. 대한민국행춘서예대전개최

고성이 배출한 고려시대 최고의 서예가이자 문하시중(오늘날의 국무총리)을 역임했던 행춘 이암선생을 기리는 뜻에서 2011년 11월 제1회대한민국행춘서예대전을 개최하여 2015년 5회째를 맞는 동안 33명의 작가를 배출했다.

### 3. 문화유적순례

매년 1회씩 문화원의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유명 문화유적지를 답사 순례함으로써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알게 되는 계기를 제공함은 물론 문화원회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소양함양에 기여한다.

### 4. 경로효친사상 선양 백일장·사생대회 개최

경로효친사상의 선양은 문화원이 해야 할 주요 사업 중의 사업이다. IT산업 등 문명이 날로 눈부시게 발달해짐으로 세계가 점점 글로벌시대로 진입하고 과학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다. 이로 인해 우리의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은 날로 퇴색해졌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고성문화원에서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경로효친사상 선양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5. 은정자 동신제 거행

지금의 고성군 거류면 월치·정촌·산촌·신은 네 개의 마을을 예전에는 은정리라 했다. 이 마을의 중앙에 은정자라는 팽나무가 있고 나무아래에는 동제를 모신 돌탑이 놓여있다. 동제의 유래는 조선 영조시대인 1720년도에 마을에 우역(소병)이 돌아 이 나무아래에서 치

성을 드렸더니 우역이 물러간 데에서 시작한다. 이 마을 출신 월봉 구상덕 선생이 자신의 일기에 이러한 내용을 기술해 놓았다. 이곳에서 매년 정월이면 4개의 마을에서 제관을 뽑아 동제를 모셔왔다. 마을 원로들과 함께 동제를 지내는 은정자동신제는 문화원의 고유 사업 중의 고유 사업이다.

## 6. 고성사투리경연대회 개최

자신이 나고 자란 곳의 언어야말로 가장 지방적이고 향토적이다. 이러한 언어를 지켜나가는 작업이 바로 문화원의 사업이다. 표준어에 밀려 점차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고성사투리를 보존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향토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배우고 익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성사투리경연대회 개최하고 있다.

## 7. 고성군민노래자랑대회 개최

매년 소가야문화제 행사에 고성군민들을 대상으로 고성군민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노래자랑대회를 통해 하나 된 군민, 하나 된 동질성을 함양시켜 단합하고 단결하여 문화군민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고성군의 14개 읍면 대표를 선발해 열리는 대회다.

## 8. 전국시조경창대회 개최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시조경창이다. 몇몇 애호가들만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한 시조경창을 우리문화원에서 전국 시조경창동호인들에게 문화를 개방하여 지금까지 13회째가 열리고 있다. 이 대회를 통해 시조경창의 맥과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제 4절 고성문화원 주요발간사업

1. 1990. 12 고성문화유적지 발간
2. 1997. 12 고성향토지명사 발간
3. 1998. 5 고성군출토유물도록 발간
4. 2000. 12 고성문화원50년사 발간
5. 2002. 8 고성선사석어록 발간
6. 2005. 12 고성사료집 1권 발간
7. 2007. 12 총쇄록 발간

8. 2010. 9 고성사료집 2권 발간
9. 2011. 11 대한민국행촌서예대전도록 발간(2015년 현재 5권 발간)
10. 2012. 11 고성사료집 3권 발행
11. 2013. 2 고성명사록 발간
12. 2013. 8 고성의 곁살과 속살을 찾아서 발간
13. 2014. 12 고성의 곁살과 속살을 찾아서 개정판 발간
14. 2015. 6 나무가 들려주는 고성이야기 발간
15. 2015. 12 고성군지 발간
16. 2015. 12 고성독립운동사 발간

### 제 5절 역대 고성문화원장 현황

순위	성명	재임기간	주요업적
초대	이종수	1949.11~1956.10	순수 자생민간단체로 발족
2대	이상인	1957.2~1960.3	고성문화원터전 확립
3대	황경윤	1960.3~1994.5	법인설립. 현 문화원원사 부지 회사 고성문화유적지 발간
4.5대	제두근	1994.10~2002.10	현 문화원원사 준공 고성향토지명사 발간 고성선사석어록 발간
6.7대	김권조	2002.10~2010.9	고성사료집 I, II권 발행 총쇄록 발간
8.9대	도충홍	2010.9~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원중앙운영위원(2011~2014)</li> <li>. 한국문화원 중앙이사(2015~)</li> <li>. 경남문화원연합회수석부회장(2011~)</li> <li>. 제1회대한민국행촌서예대전 개최</li> <li>. 고성사료집 III권 발행</li> <li>. 고성명사록 발행</li> <li>. 고성의 곁살과 속살을 찾아서 발간</li> <li>. 나무가 들려주는 고성이야기 발간</li> <li>. 남산비문 해제</li> <li>. ‘적진포는 고성 거류면 화당리다’ 학술세미나 개최</li> <li>. 고성군지 발간</li> <li>. 고성독립운동사 발간</li> </ul>

## ○ 고성문화원 고문 · 자문위원현황

직 위	성 명	주 소	비 고
고 문	제두근	상리면 척번정리 324-3	4대.5대 문화원장
고 문	김권조	거류면 가려리 805-2	6대.7대 문화원장
자 문	제명수	대가면 척정리 873	전 고성향교 전교
자 문	정병희	고성읍 성내리 62	
자 문	조경문	고성읍 송학리 267	군민상수상자 동우회장
자 문	박창홍	회화면 당항리507	대창건설(주)회장
자 문	박기태	고성읍 송학리 영생빌라202	상공협의회 회장
자 문	하정만	고성읍 송학리 영생빌라106	대한노인회고성군지회장
자 문	이홍근	경기도안성시원곡면내가천리282-4	연합유리(주)회장
자 문	박충용	회화면 삼덕리1길156	소가야문화재보존회장

## ○ 고성문화원 임원현황

직 위	성 명	주 소	비 고
원 장	도충홍	고성읍성내로62-12.802호 (금강드림피아)	전 통영시부시장.고성부군수
부원장	이도생	고성읍 성내로 164	세종인쇄사 대표
부원장	최옥희	거류면 송산1길 37	문화원봉사단 회장
감 사	김성희	고성읍 동외로151번길 33-5	전 동부농협등 근무
감 사	양성한	고성읍 남포로80번길67.207호(장미아파트)	참그맛이향 찜밥식당 대표
이 사	제삼호	고성읍동외로151번길 67-17	전 고성군건설과장
이 사	이상개	고성읍 성내로 62-12.301호 (금강드림피아)	전 경남체육고교사
이 사	강부관	고성읍 성내로 144번길30-20	한국연예인협회 가수분과위원

직 위	성 명	주 소	비 고
이 사	박영숙	고성읍 성내로 27. 101동1105호(협동A)	자원봉사협의회회장
이 사	최영부	고성읍 남포로80번길22-10. A동201호(유흥)	전 교육행정직공무원
이 사	심상정	하일면 간곡길 16	전 통영고 교감
이 사	심진표	대가면 연지1길 28-19	제8대경남도의원. 전 대가농협장
이 사	정몽규	마암면 화산2길 8	예절분과위원장
이 사	박현민	회화면 배둔로 59번길 56A동(화목빌라)	트로트 가수
이 사	김갑용	거류면 화당로 90	신성주택건설대표
이 사	황석수	거류면 감서6길 47	거류면체육회장
이 사	정호용	동해면 외곡1길 16	제4대. 6대 군의원
이 사	정종수	고성읍중앙로25번길57. 나5동205호(시장A)	전도의원. 전산림조합경남도회장
이 사	최상현	고성읍 성내리 78-2	노벨서점 대표
이 사	이용재	고성읍 중앙로 33번길	전 고성군의용소방대장
이 사	한선구	개천면 봉치리 225	전 개천면농협장. 향토사연구소장
이 사	박인권	고성읍 월평3길313-6	베스코상사대표(현)
이 사	구대준	※당연직이사	고성군 문화관광체육과장